

2020학년도

철학박사 학위논문

그랜빌 오랄 로버츠(Granville Oral Roberts)의 전인치유선교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전공

최 희 원

2020학년도

철학박사 학위논문

그랜빌 오랄 로버츠(Granville Oral Roberts)의 전인치유선교 연구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전공

최 희 원

2020

Doctor of Philosophy

A Study of Granville Oral Roberts's Whole Person Healing Mission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Choi, Hee Won

그랜빌 오랄 로버츠(Granville Oral Roberts)의 전인치유선교 연구

지도 유 근 재 교수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최 희 원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전공

2021년 2월

감사의 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매 순간 잊지 않던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본 연구과정 가운데 참으로 귀한 분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연구의 앞길을 열어주신 유근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자의 편에서 용기를 주시고 열정과 도전을 갖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교수님. 저 또한 몸소 보여주신 참된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랄로버츠대학교에 계신 마원석 학장님과 줄리마 교수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실질적인 도움 이상으로 사랑해주시고 기도로 지지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최고의 딸이라고 자랑하시는 부모님. 철부지 딸을 위한 두 분의 물심양면후원과 눈물의 기도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며느리를 이뻐해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생을 응원해주는 하나뿐인 오빠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영원한 영웅이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박희진목사님! 말씀으로 저의 영적 채움을 책임져주고 따뜻함으로 이해해준 그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엄마를 더 많이 안아주고 이해해준 장난꾸러기 아들 하승균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은 무척 좋으신 분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 2월 최 희 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선교사역에 저해요인이 되는 비효과적인 복음전도의 현실 가운데, 목회와 선교현장에 효율적인 선교전략으로 전인치유를 제시한다. 이에 20세기 집회, 방송, 의학과 교육을 통해 복음화를 일으켰던 Granville Oral Roberts(GOR, 1918-2009)의 전인치유선교는 오늘날 새로운 선교신학의 돌파구가 된다. 특히 그의 전인치유선교가운데 통전적 선교사상, 믿음선교사상, 종족 화합을 통한 협력선교사상은 목회, 선교현장에 중요한 사상적 토대이다.

21세기 전인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에 반응해야 하는 교회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부정적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대다수의 교회는 성장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즉 교회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교현장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연구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론적인 복음, 그 중에서 치유의 능력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따라 20세기 부흥사이자 복음치유사역의 권위자인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며 현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선교에 중요한 대안이다.

과거, 하나님의 전인치유 증거를 보면 치유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GOR의 전인치유선교 방향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핀다. 즉, 전 인류와 사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의 역사로 보고, 특히 GOR의 광대한 사역 중에 전인치유에 중점을 둔다. 연구자는 그의 전인치유선교를 의료, 방송/전도, 문헌/교육선교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GOR의 다양한 복음전도 전략에서 전인치유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자 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전초 작업이 된다. 그리고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은 성령론적 치유신학, 종말론적 구원신학, 인간론적 희망신학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반으로 GOR의 전인치유선교 연구가 선교로서 갖는 정당성과 그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가 도출된다.

결과적으로 GOR의 전인치유선교는 통전적 선교사상, 믿음 선교사상,

종족화합을 위한 협력 선교사상, 이 세 가지가 중심이라는 연구결과를 이루었다. 즉, 대형천막집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의 전인건강과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였고, 나아가 자발적 선교의 실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요컨대 선교의 재생산을 이룬 효율적인 선교였다.

본 연구는 과거 ‘위대한 선교의 세기’ 이후로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명의 전인치유선교사를 재발견함으로 ‘잊혀진 선교 차원으로서의 치유’를 다시 상기시킬 뿐 만 아니라 성서와 초기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통전적 선교를 회복하는 단초가 된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시대적, 사회적, 상황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 전인치유를 통하여 전인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로 개신교의 재 부흥이 일어나는 선교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한다.

중심어 : 교육선교, 대형천막, 멀티미디어, 믿음선교, 방송선교, 복음전도, 그랜빌 오랄로버즈, 오랄로버즈대학교, 오순절/은사주의, 의료선교, 전인치유선교, 조건적 통일성, 종족화합, 치유팀, 통전적 선교, 협력선교

일러두기

1. 본 논문에서는 Granville Oral Roberts의 발음 그대로 그랜빌 오랄 로버츠로 표기한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논문축약표기법을 사용하여 그랜빌 오랄 로버츠(Granville Oral Roberts)를 GOR로 명명한다.
오랄로버츠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또한 ORU로 명명한다.
2. 외국인의 인명과 지명은 첫 번째 등장할 때에는 한글 표기에 이어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 음역으로만 표기한다.
3. II. C. 전인치유의 역사적 근거 1. 고대 교부시대의 치유에서는 인명표기시 생애년도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4. 외국 지명의 한글 표기는 발음 그대로를 표기하거나 세계인문지리사전을 표준삼아 표기한다.
5. 한자 표기는 기본적으로 서적과 자료에 표기된 양식을 따른다.
6. 본 논문에서 번역되지 않은 책명은 원서명 그대로 표기한다. 그러나 가능한 번역된 제목을 기재하여 최대한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한다.
7. 한글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8.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이 질적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록에 인터뷰를 전사한다. 이는 본 연구의 충분한 의미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특히 다니엘 이스그리스(Daniel Isgrigg) 교수의 인터뷰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겠으나 내용상의 의미와 뜻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한다.

목차

감사의 글	i
국문초록	ii
일러두기	iii
I.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목적	7
C. 연구방법	12
D. 선행연구	18
E. 용어정리	25
II. 전인치유의 이해	33
A. 전인치유의 다양한 해석	38
B. 전인치유의 분야	42
1. 육(체)적 측면에서의 치유	43
2. 혼(정신)적 측면에서의 치유	47
3. 영적 측면에서의 치유	51
C. 전인치유의 역사적 근거	55
1. 고대 교부시대의 치유	56
2. 중세 시대의 치유	60
3. 근대 시대의 치유	63
III. 그랜빌 오랄 로버츠의 전인치유선교 이해	80

A. 오랄의 생애와 치유경험	80
B. 의료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83
C. 방송/전도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90
D. 문헌/교육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104
IV. 오랄 로버츠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	122
A. 성령론적 치유신학	123
B. 종말론적 구원신학	131
C. 인간론적 희망신학	136
V. 오랄 로버츠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	139
A. 통전적 선교사상	140
B. 믿음 선교사상	152
1. 치유 접촉점	156
2. 씨앗믿음	158
C. 종족화합을 통한 협력선교사상	163
VI. 나가는 글	180
A. 요약	180
B. 제언	188
참고문헌	197
부록	229
Abstract	245

도표 목차

[도표 1] 2020년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	2
[도표 2] 오랄로버츠대학교 전체 다양성 점수	174
[도표 3] 오랄로버츠대학교 학생거주지 분포도	175
[도표 4] 오랄로버츠대학교 학생의 인종 다양성	175
[도표 5] 오랄로버츠대학교 교수진의 인종 다양성	176

I. 서론

A. 문제제기

40대 초반의 J씨는 매일 한두 차례 아프다. 여유를 누리며 살 정도의 가정 경제와 성실한 남편, 온순한 자녀들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아픔이 시작되면 3-4일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꼼짝도 하지 않고 누운 채 천장만 바라 본다. 밤새 뒤척이며 아침이 되길 기다리지만 아침이 되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하루 중 특히 저녁노을이 질 무렵이면 증세가 심해져 세상을 등지고픈 충동이 느껴져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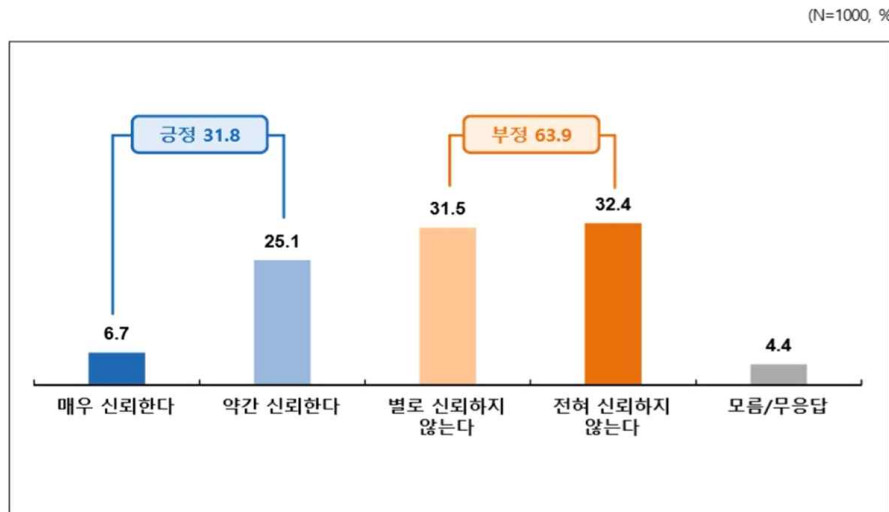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온전한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21세기 첨단과학, 의학, 사회구조의 발전은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노력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속도와 편리성은 얻었으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삶의 질은 어떠한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사회관계, 건강만족도, 안전감 등 '삶의 질'의 부분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²⁾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온전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발전은 인간 삶의 전반적인 건강과는 상관없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최첨단 의학수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적 고통과 소리 없이 찾아오는 각종 심리문제로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호소한다.³⁾ 이렇게 삶에서 겪는 현실적 고통은 인간 전인

1) 최귀석, 『그 아픔 내 안에 또 있어요』, 서울: CTS, 2014, 290.

2)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7055000009>, 2020. 03. 18. 접속.

3)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25; 안도현, 『우울증, 죽음으로 향하는 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8. 통계상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은

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불어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교회의 현실이자 교회가 처한 위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은 하향세를 보인다. 이는 복음전파의 대상이 모든 사람, 즉 전인⁴⁾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의 현상이다. 연구자는 2020년 한국기독교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⁵⁾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아래 도표에 의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63.9%로 집계되었다. 이는 교회성장의 하향세와 교회의 신뢰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도표 1] 2020년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⁶⁾

평균 19명이며, 자살한 사람 70%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자살률이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총 자살 건수는 13055건으로 전년(12277건)에 비해 6.3% 증가했다. 권석만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의 90%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80%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 외는 정신분열증이나 알코올 의존이라는 보고이다.

- 4) 육체의 아픔 또는 정신적 고통, 영적 피해로서 한 측면의 아픔에 대한 호소일 수 있다.
- 5) 최동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 『활천』 Vol. 734, No. 1, 2015, 21. 2014년, 한국투명성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국회 다음으로 종교단체로 나타났다.

[도표 1]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부정적 신뢰도 현상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의 전반적 신뢰도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신뢰도가 2008년 48.3%에서 2017년 51.2%로 증가 현상을 보인다.⁷⁾ 따라서 2020년 한국교회 신뢰도의 결과가 단편적인 이슈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물론, 교회성장의 하향세가 교회의 낮은 신뢰도로 인한 결과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복음전파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당연지사이다. 결국, 모든 종교를 통틀어 가장 큰 감소현상을 보이는 교회⁸⁾, 장기간의 교인 감소⁹⁾로 인해 침체위기를 겪는 교회¹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벅차다. 김광성은 “교회의 위기는 선교의 위기다”¹¹⁾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교회와 선교의 밀접한 연관성은 결국 교회의 어려움이 선교 현장에 동일하게 연계되는 결과를 초

6) 백종국,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발표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12.

7) 위의 책, 13.

8) 정일웅, “신학적 관점에서 본 원인분석과 대안: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목회와 신학』, 2007, 2, 134; 옥수영, 『갈등해소를 위한 성장리더십』, 서울: 은혜, 2007. 한국종교분포현황에 대한 한국통계청 2005년 자료에 의하면, 2천 497만 명의 종교인 중 불교인 22.8%, 개신교인 18.3%, 천주교인 10.9%, 그 외 소수종교인은 1%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는 가톨릭교회 41.14%, 불교사찰 33.5%, 개신교회 20%로 집계되었다. 즉 전년도와 비교해 불 때, 불교와 기독교 인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가톨릭은 성장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9) 김승호, “한국교회성장을 위한 일곱 가지의 원리에 대한 고찰,”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제3권, 2008, 2, 97.

10) 이한수, “한국교회의 성장정책과 그 윤리적 대안,” 『신학지남』 Vol. 65, No. 3, 1998, 09, 82;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교회 성장둔화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1998, 4. 교회성장둔화현상은 1960년대 16%, 1970년대 8%, 1980년대 7%, 1990년대 3%를 보인다. 이원규,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27. “1960년대 이래로 무한 질주했던 한국교회의 성장이 2000년 무렵을 고비로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교인 수에 근거한 교회성장률이 60년대 연평균 교인 수 증가율이 41.2%에 달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는 12.5%로, 80년대에 들어서는 4.4%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90년대에 와서는 3%이하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11) 김광성,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미래선교를 위한 선교구조 개혁과제 연구: 본부중심 구조에서 현장중심 구조로의 전환 모색,” 『복음과 선교』 제40집, 2017, 25. 한국로잔연구교수회에서 다수의 연구를 하고 있는 김광성은 교회(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반응에 따른 사회상황에 민감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래한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 직시는 과거 교회사, 선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던 때를 다시금 회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교회의 저성장으로 인한 쇠퇴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제 3세계의 교회¹²⁾가 있다. 특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아프리카 독립교단(AIC; Africa Independent Church)¹³⁾을 보면, 19세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소수, 식민종교로 간주된 기독교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정치적으로도 우위를 점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1900년에 약 1,000만 명에서 1970년에는 1억 4천 5백만 명, 2000년에는 약 4억 명¹⁴⁾에 이르는 획기적인 수치로 증가했다. 특히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또한 동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국가들을 포함한 그들은 과거의 선교방향성을 역으로 유럽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학적인 발전을 위한 모색¹⁵⁾을 통하여 전 세계 신학계를 비롯하여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에도 다양한 학문적인 목소리¹⁶⁾를 내고 있다.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의 정통교파들이 쇠퇴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바로 오순절계열인 Elim Pentecostal Church나 Free-Methodist Church같은 교단¹⁷⁾의 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계 교회와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동유럽(루마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과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북미의 개신교 성장에는 오순절 혹은 은사주의를 믿는 기독교

12) Allan Anderson, *African Reformation: African Initiated Christianity in the 20th Century*,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2001, 1-5.

13) 모든 교단과 교회적인 특징이 오순절적인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을 지칭한다.

14) 유근재, “21세기 오순절/은사주의운동의 선교학적 접근과 전망: 그들은 세계 기독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선교신학』 제41집, 2016, 246.

15) 이들의 주된 신학적 주제는 오순절/은사주의의 신학적 정체성, 탈 서구주의와 탈 식민주의, 토착화이다.

16) Allan Anderson, *African Reformation: African Initiated Christianity in the 20th Century*, 1-5.

17) 유근재, “21세기 오순절/은사주의운동의 선교학적 접근과 전망: 그들은 세계 기독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243.

교인들의 출현¹⁸⁾이 있다. 즉, 오순절계통의 교단들과 독립적인 초교파 메가처치(Megachurch) 운동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힌두교 국가인 인도는 고등종교로 인해 미전도지역이라고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인도 케랄라(Kerala) 주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동체가 삼천만 명을¹⁹⁾ 넘어섰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개신교 성장현상을 보면,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의 말²⁰⁾처럼 기독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개신교의 공통된 이면에는 오순절/은사주의가 존재한다. 하비 콕스(Harvey Cox)는 그의 저서 *Fire from Heaven*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21세기 교회를 주도하게²¹⁾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선교학의 전통적 개념인 10-40창이라는 지형도를 단숨에 바꾸어 놓은 오순절/은사주의의 특징은,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포용하고 한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울고 웃는 성령을 통한 치유이다. 부흥집회를 포함하여 체험과 상징을 강조한 오순절/은사주의는,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와 강력한 치유를 통해 성장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²²⁾하며 세계를 향해 선교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 기독교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가 존재한다.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한 장소에 몰려오고, 복음전도의 길이 열린다. 교회와 선교의 수(數)적 증가가 복음전도에 의한 구원의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의 전인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통

18) 같은 곳.

19) 위의 글, 251.

20) Allan Anderso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41-43 재인용.

21) 유근재, “21세기 오순절/은사주의운동의 선교학적 접근과 전망: 그들은 세계 기독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223 재인용; 김현진,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교회 개혁의 방향성,” 『복음과 선교』 Vol. 42, 2018, 23. 평택대학교 김현진 교수는 오순절 운동을 20세기 가장 괄목한 만한 기독교운동이며 오늘날 가장 성장하는 기독교운동이라 하였다.

22) 위의 글, 247; Allan Anderso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유근재, 조규형 역, 『땅끝까지』,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2019, 345.

해 필요가 채워지니 교회를 신뢰함으로 사람들이 몰렸고, 이에 복음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전인치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과거, 효과적 전략인 전인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사역을 이룬 대표적 인물의 연구가 이를 증명해줄 수 있다.

미국 역사가들의 조사²³⁾에 의하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지도자를 빌리 그래함(William Franklin Graham), 그랜빌 오랄 로버츠(Granville Oral Roberts)²⁴⁾, 교황 요한 23세(Ioannes PP. XXIII)로 말한다. 이 중 특히 GOR는 오순절/은사주의 중심에서 개신교의 거대한 성장을 이룬 인물이다, 20세기의 복음치유사역의 권위자²⁵⁾이다. 또한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 회복의 능력을 전한 선교사이다. 그러나 현실은 GOR에 관한 연구가 그의 복음전도사역의 영향에 대한 파급력과는 달리 매우 미흡하다.

GOR의 신학, 사역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사역으로 성장 발전을 이룬 조용기²⁶⁾는 현재까지 수십만 성도에 이르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성장시켰다. 결과만을 주목한 채 오늘날 치유 사역을 한 사람만의 단독사역으로 아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효율적 선교전략인 전인치유 영향력을 희석해왔으며 이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4차산업화로 예측 불가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에 전인이 치유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곧 전인치유의 역사적 사실성에 근거한 연구와 전인치유선교를 이룬 GOR의 심도 깊은 연구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전인치유선교 연구가 복음전도를 위한 목회

23) 김계봉,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오순절 신학의 본산,” 『목회와 신학』 통권75호, 1995, 246-54.

24)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논문축약표기법을 사용하여 그랜빌 오랄 로버츠(Granville Oral Roberts)를 GOR로 명명한다.

25)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and David Yonggi Cho: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ir Theologies of Healing,” 『한세대학교영산신학연구소』 No. 5, 2008, 288.

26) 김신호, 『오순절교회의 역사와 신학: 오순절 운동에서 신사도 운동까지』, 서울: 서로사랑, 2018, 303.

와 선교현장에 실천적 대안을 유추하고 필요한 선교사상을 세우는 전조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B. 연구목적

본고의 논지는 선교사역에 저해요인이 되는 비효과적인 복음전도의 현실 가운데, 목회와 선교현장에 효율적인 선교전략으로 전인치유를 제시한다. 이에 20세기 집회, 방송, 의학과 교육을 통해 복음화를 일으켰던 Granville Oral Roberts(GOR, 1918-2009)의 전인치유선교는 오늘날 새로운 선교신학의 돌파구가 된다. 특히 그의 전인치유선교가운데 통전적 선교사상, 믿음선교사상, 종족 화합을 통한 협력선교사상은 목회, 선교현장에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됨을 밝히고자 한다.

실존심리학자인 롤로메이(Rollo May)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적 고초를 다음과 같이 꼬집는다. “현대인들이 산업문명의 중독으로 거대한 사회구조의 노예가 되어 인간상실과 자아상실의 이중적 고통 속에서 고독과 공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²⁷⁾ 이에 현대인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연구한 김현오 교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통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질병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언한다.

첫째, 현대사회는 감정이 격한 사회 즉,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인 불안, 공포, 증오, 죄책감, 원망, 욕구불만, 공허감, 고독감, 소외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는 책임감없이 행동하는 사회로써 이웃에 대한 폭력, 대화단절, 폭주와 흡연 등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현대사회는 잘못된 사고들로 만연된 사회, 즉 그릇된 신념에 빠져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삶, 잡다한 종교들, 세속주의, 이념주의, 이기주의,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오해들, 인생의 무의미성 추구 등으로 거짓 허를 놀리며 무가치한 생활과 고정관념, 욕심, 갈등 관계의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

27) 김현오, 『현대인의 인성』, 서울: 홍익제, 1990, 3.

다.²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고통, 아픔을 포함한 필요에 대하여 과연 현대 교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도구로써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해보아야 한다. 독일선교과학협회(DGMW: Deutschen Gesellschaft für Missionswissenschaft) 회장을 지낸 복음주의 신학자 테오 쉐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현대교회와 선교에 있어서 치유가 사라진 현실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회봉사를 병행하였고 선교병원을 지어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오랜 동안 교회가 선교하면서 사회봉사를 하는 이 일이 항상 함께 병행하는 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서로 전혀 다른 독립된 것으로 각기 나누어졌다.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명한 치유에 대한 사명을 국가 기관이나 또는 개인적인 의료 기관에 넘겨주고 말았다. 게다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지고 기독 재단에 의해 감독을 받는 병원들 마저도 서구에서는 국가의 기관들에 소속되어 그들의 보건 구조 속에서 지시만을 따라 의무를 다하는데 충성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⁹⁾

이러한 쉐더마이어의 서구적인 시각은 한국 교회와 선교에 온전히 적용하여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전인아픔에 대한 관심과 책임, 그 의무의 방향성이 교회와 선교보다는 세상과 사회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인간의 질병에 관한 치유의 입장을 의료, 일반상담,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넘겼다.³⁰⁾ 이로 인해 인간의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의 분리화를 통한 인간 전인의 유기적인 속성은 암묵적으로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박광철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저하되는 동시

28) 같은 곳.

29) Theo Sundermeier, "Heil und Heilung," 『선교신학』 Vol. 5, 2002, 313.

30) Mark R. McMinn, Timothy R. Phillips ed.,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gy*, 전요섭 외 11인 역, 『영혼 돌봄의 상담학: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탐구』, 서울: CLC, 2006, 37-39.

에 모든 필요와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간의 기대를 실망과 함께 전인의 아픔으로 가져다주었다고³¹⁾ 전인치유적 관점에서 교회쇠퇴를 말했다.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가 유대인, 이방인들의 구성체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³²⁾ 교회는 하나님의 복합적인 백성들로 구성되어³³⁾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복음전파의 대상이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 것이다. 따라서 구속사역으로서의 복음전도인 선교는 모든 인간과 사회의 아픔,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신체적, 감정적,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셨던 사역의 모습을³⁴⁾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아래 전인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빈번하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할 신앙공동체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교회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암담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교회는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전한다. 각종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없는 삶, 성령의 체험이 없는 믿음, 전인의 치유에 대한 감격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복음전도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오해와 복음에 대한 왜곡만 일으킬 뿐이라고 단언한다. 결국 교회의 교인감소에 따른 저성장과 복음전파의 역기능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모슬렘 세계같이 예수의 복음을 극적으로 반대하는 대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치유는³⁵⁾ 복음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31) 박광철,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가,” 『목회와 신학』 제121호, 1999, 76.

32) 롬9:24, 엡2:12 참고.

33) Williams, J. Rodman, *Renewal Theology: The Church, the kingdom, and Last Things*, 박정렬 역, 『오순절 조직신학 제3권』, 경기: 한세대학교, 1995, 60.

34) 위의 책, 84-85.

35) 위의 책, 184.

인간의 전인치유와 복음전파의 밀접한 관계성 가운데 효율성을 시사하는 연구는 선교적 관점에서 역사적 재발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서 인간 내면의 ‘치유’에 대해 관심을 갖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치유가 한 개인의 목회특징이자 방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고정관념과 전인치유의 의미와 분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치유사역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즉, 적지 않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치유라는 명분하에 비 신앙적인 모습인 반(反)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수의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선불리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치유사역이 개신교에서 일어났던 특수한 고전적인 방법이라는 시각으로 등한시 여기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사역은 오늘날 제 3세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치유의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물려들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제 3세계의 치유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의 경험을 통해 역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를 향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는 복음전파의 유효성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와의 연관성³⁶⁾을 의미한다.

선교는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에 둘러싸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며, 이에 인간역사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전인치유는 이 시대의 요청이자, 구원의 핵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에 대한 근거성을 연구하는 것은 현 선교 상황의 민감함과 다가올 시대의 선교 상황을 예측, 준비하는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다.

인간 복음화를 향한 선교의 의미를 전통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교사를 파송하여 타지에서 복음지를 전달하고 교회를 설립, 개척하는 것으로 볼

36) 위의 책, 184-5.

때, 이는 중요한 선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남으로써 그 사람들이 개종하고 회심하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대형천막을 쳐서 수 백, 수 천, 수 십만명의 사람들을 모아 놓고 단 한명의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이 치유의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함으로 복음의 수용성을 높였다면,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짐과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 또한 효율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21세기 선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선교신학자들의 말을 바탕으로³⁷⁾ 본 논문을 성령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사도이자 복음전도 부흥사인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이해와 신학적 배경을 토대로 전개할 것이다. 그 결과, GOR의 전인치유선교가 심도 있게 연구되어 특성과 의미가 도출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인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오클라호마(Oklahoma)주의 털사(Tulsa)에 위치한 오랄로버츠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ORU)³⁸⁾를 직접 방문하여 GOR의 생애와 전반적인 모든 사역 특히 성령운동과 이에 따른 치유사역에 관한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시에 ORU의 교수, 재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GOR의 전인치유사역 및 교육의 영향력을 근거로 연구한다. 이러한 역사의 재발견을 위한 작업은 ‘잊혀진 선교의 차원으로서의 치유’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성서와 초기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통전적인 선교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³⁹⁾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와 선교에

37) David Jacobus Bosch, *Transforming mission : paradigm shifts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CLC, 2000, 759.

38) 본 논문에서 오랄로버츠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의 명칭은 축약하여 ORU로 사용한다.

39) 박정진, “치유와 선교: 의료선교의 근본문제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8집, 2005, 156-69. 선교의 본질적 차원으로서의 치유와 그것이 잊혀진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참고한다.

전인치유를 통한 자연적인 교회성장이 일어날 것을 소망한다. 더 나아가 시대적, 사회적, 상황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 전인치유를 통한 전인구원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로 개신교의 재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C. 연구방법

앞서 거론된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장, 즉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인치유와의 상관관계와 명확한 개념이해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심리치료사이자 상담가인 켈시(Morton, T Kelsey)의 분석을 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치유에 대하여 기독교가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로서⁴⁰⁾, 신관과 인간관의 변화⁴¹⁾, 미신적인 신앙으로 인한 치유 역사의 순수성이 하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자 인간의 전인적 구원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치유사역이 예수시대 이후에 사도시대, 교부시대, 종교개혁과 오늘날까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가운데 다시금 전인치유의 올바른 이해와 전인치유를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핵심연구인 GOR의 한국자료는 매우 희박하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GOR의 연구는 GOR을 이차대상으로만 비교하거나 시대적 특징으로 설명할 때 거론하는 정도에 그친다.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GOR의 선교적 차원을 다루는 한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GOR의 단독연구로서, 그의 사역과 신학을 전인치유 중심으로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과정을 목

40) Morton, T Kelsey, *Healing and Christianity*, 배상길 역, 『치유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20.

41)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과 플라톤의 세계관이 대치되면서 인간의 이성주의적 관점이 부각된 신학적 사고의 변천이다.

표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를 토대로 다시한번 전인치유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성장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선교신학유형과 연구의 관점을 설명하는 것은 본 논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우선, 선교의 대상으로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리된 선교신학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⁴²⁾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삼아 이들 전체가 회심하기를 지향하는 회심 유형⁴³⁾, 회심을 통해 선교사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선교 유형⁴⁴⁾, 선교의 근원을 하나님의 작업으로 보는 구원사적 유형,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활동의 목적으로 보는 약속사적 유형⁴⁵⁾, 의사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적 유형⁴⁶⁾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구원사적 유형의 관점에서 GOR의 선교사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많은 선교실천가들의 지지를 받는 구원사적 유형⁴⁷⁾은 하나님께서 인류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작업에서 선교를 시작한다. 즉,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선교사이며, 선교사의 모델, 본질, 형상을 가지신 분⁴⁸⁾이라고 본다. 이 유형의 선교는 구원이 없는 타종교는 회개시

42) 조귀삼, 『복음주의 선교신학』, 경기: 세계로미디어, 2013.

43) 선교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스타프 바르넵(Gustav Warneck)의 선교신학으로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회심을 지향하는 견해이다.

44) Karl Müller, Theo Sundermeier, *LEXIKON MISSIONS-THEOLOGISCHER GRUNDBEGRIFFE*,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역, 『선교학 사전』, 서울: 다산글방, 2003, “선교신학,” 항목. 신앙선교 유형은 선교사역의 모든 필요의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교회성장학과인 맥가브란의 교회성장모델이 이 유형에 속한다.

45) 같은 곳.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으로 시작하는 에큐메니칼 선교 유형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호켄다이크(Hokendijk)가 있다.

46) 박영환, 『세계 선교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2018, 115. 1956년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mer)가 그리스도 신앙의 의사소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심을 사게 되었다. 이 유형은 타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언어와 문화를 수긍한다고 본다.

47) Karl Müller, Theo Sundermeier, 『선교학 사전』, “선교신학,” 항목. 스킨클러(Bengt Sundkler)는 선교의 역사는 구원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시작되어 정점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점진적 확대주의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켜야 할 대상이다. 또한 구원사적인 유형에서 본 선교는 종말과 연관이 된다. 이 같은 구원사적 유형의 특징들은 GOR이 가졌던 선교사상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역사적 관점에서 GOR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 가운데 이해를 돕는다는 전제 하에, 선교역사는 앞으로 다가올 선교역사의 예측, 분석, 조명에 도움을⁴⁹⁾ 주기 때문이다. 선교역사는 관점에 따라 기독교 복음 확장의 역사(정치론; 政治論), 영적 전쟁사(종교론; 宗教論), 개종의 역사(구원론; 救援論), 선교 현장사(사역론; 使役論), 교회사의 선교역사(교회론; 教會論), 갱신운동사(변두리이론; periphery theory)⁵⁰⁾, 구속의 역사(구속론; 救贖論)의 유형으로 나뉜다.⁵¹⁾ 이 가운데 본 연구는 GOR의 선교사역을 포괄적인 구속사에 방향성을 두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전 인류와 사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구속의 역사⁵²⁾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GOR의 선교사역사 연구는 선교의 일반적 유형(사역)으로 본 폴 피어슨(Paul E. Pierson)의 8분류에서 신학사상의 상관성과 선교매체 유형에 속한다.⁵³⁾ 따라서 본 연구는 GOR의 선교사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환경 요소, 그의 선교와 신학사상의 상관성, GOR의 복음전달 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다. 더불어 GOR의 선교사역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인간 보냄을 시작으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사와 영적 현장의 선교역사임이 재발견되기를 기대한다.

세부적으로는 GOR의 전인치유를 연구하면서 일반적인 시각에서의 전인치유를 살펴보고자, 관련된 의학, 보건, 심리, 상담의 전문서적 문헌이 연구

48) 같은 곳.

49) 박영환, 『네트워크 선교역사』, 광주: 바울, 2012, 10.

50) 최정만, 『다시 써야 할 세계 선교역사 I』, 서울: 쿤란, 2007, 13-14.

51) 박영환, 『네트워크 선교역사』, 10-12.

52) 박영환, 『세계 선교학 개론』, 161. 유대적 관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구속사적 관점의 구속역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의 역사이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 "The Ten Epochs of Redemptive History," The Kingdom Strikes Back.

53) 위의 책, 153-54.

될 것이다. 더불어 본 논문의 주된 연구는 GOR에 관한 한국어 자료 이외에, 현장문헌조사연구를 통해 수집한 영어 1차 자료로 이루어진다.

시대를 앞서갔던 GOR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미디어(라디오, TV)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활용하였다. 이에 ORU 교내 도서관의 전문 연구기관인 성령리서치센터(Holy Spirit Research Center)에 소장되어 있는 저널, 신문, 정기 간행물, 학술지, 설교자료, 메모 등에서 GOR의 전인치유와 관련된 자료가 연구된다. 상세하게는 그의 생애부터 치유사역, 당대 GOR의 사역을 향한 사회 전반적인 시각에 관한 대량의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의 집중연구가 필요한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이해와 신학적 특성 및 의미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GOR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문헌 연구를 토대로 심도 있게 연구될 것이다. 더불어 연구의 객관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GOR의 사역평가에서 사실에 근거한 비판 자료를 추출하여 포함할 것이다.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서적 및 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행물과 신문 등의 문헌자료를 사용한다. 특히 GOR의 의료 선교의 한 방안이었던 믿음의 도시 의학센터에 관한 연구는 도시의 저널과 그의 간행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 밖에 본 연구에 있어서 GOR 전인치유선교의 일환으로 ORU의 홈페이지⁵⁴⁾와 선교센터⁵⁵⁾의 객관적 자료, 연도별 통계가 추가 분석된다. 그 이유는 학교의 지속적 유지와 성과는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영향력과 확증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구자는 ORU에 견학하여 교내에 위치한 각종 GOR 교육이념으로 세워진 산물들을 확인하고, 교수진과 재학생, 교직원들과 인터뷰하며, 현장강의와 예배모임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 체험은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문화화 및 전승의 영향력, 학교 커리큘럼의 지속성에 관한 연관성을 연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ORU의 글로벌 기독교와 Ph. D. 프로그램을 위한 마원석⁵⁶⁾교수와

54) <http://dev.oru.edu/>, 2020. 03. 24. 접속.

55) <http://www.orumissions.com/reports>, 2020. 03. 24. 접속.

문화인류학의 줄리 마(Julie C. Ma)⁵⁷⁾교수, 성령리서치센터의 다니엘 이스그리그(Daniel Isgrigg)⁵⁸⁾교수와 인터뷰 및 자료제공은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기반이 되었다. 특히 오순절 신자이자 한국 선교사 1세대인 저명한 선교학자인 마원석 교수의 성령론과 오순절 패러다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이자 다음세기를 향한 현세기의 정확한 진단은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전략적 방법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GOR의 생애와 오순절/은사주의의 발전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본 연구자가 한국오순절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관한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선교학자 줄리 마 교수는 제 3국가의 문화적 상황화에 따른 선교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이는 성령운동의 실질적인 가능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전인치유선교의 타당성을 더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향한 객관적이고 세계적인 시각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일한 성령리서치센터의 소장이자 오순절 역사학자인 다니엘 이스그리그 교수는 GOR의 전인치유사역을 향한 다방면의 평가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의 도움은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이해하는데 객관적 시각형성의 기틀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GOR의 전인치유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과 그에 따른 주요한 자료, 자료의 근거로서 인터뷰를 참고하여 연구한다. 이와 더불어 현 시대와 앞으로 다가 올 시대의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위하여 과거 시대적, 문화적으로 복음 선교에 탁월했던 GOR의 전인치유선

56) <https://oru.edu/faculty/dr-wonsuk-ma.php>, 2020. 03. 25. 접속. 미국 ORU의 글로벌 기독교학 특임교수 및 신학부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오순절연구의 아시아 저널(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편집장과 영국 옥스퍼드 선교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57) <https://oru.edu/faculty/julie-ma.php>, 2020. 03. 25. 접속. 미국 ORU에서 신학과 사역선교 및 이문화 연구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옥스퍼드 선교 연구 센터에서 아시아 선교 저널(Journal of Asian mission) 편집자이자 선교사 연구를 하였다. 2010년 에딘버러 총회에서 세계 오순절교회를 대표하였다.

58) <https://oru.edu/faculty/daniel-d-isgrigg.php>, 2020. 03. 25. 접속. 미국 ORU의 성령연구센터(Holy Spirit Research Center)의 소장이자 교수이다.

교를 재발견하는 역사 방법론을 활용한다.

2장에서는 전인치유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통해 비신앙적 대상을 향한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동시에 전인치유의 일반적 이해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전인치유와의 의미 차이를 정립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간의 이해는 기독교적 이해가 주를 이룰 것이다. 본 연구자는 전인치유 연구에서 필수로 전제되어야 할 인간의 이해를 정립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전인치유의 증거를 찾아봄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치유역사의 연속성을 증명하여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20세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의 대가인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연구한다. 특별히 본 논문의 취지에 따라 그의 광대한 사역 가운데 전인치유에 중점을 둘 것이다. GOR의 사역을 의료사역, 방송/전도사역, 문헌/교육사역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사역에서 이루어진 전인치유선교의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한다. 이는 GOR의 신학이 학문과 이론적으로 정리, 확립된 문헌자료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 연구될 전인치유선교에 관한 신학 배경을 위한 준거의 틀을 마련해주는 작업이 된다.

4장에서는 GOR이 전인치유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이룬 신학적 배경을 연구한다. 앞서 연구된 바에 따라 GOR은 다양하게 전인치유선교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40년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정작 GOR의 기독교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연구는 그의 선교과정, 결과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기본적인 신학에 대해 설명하는 초기 연구는 ORU(Oral Roberts University)의 2대 총장인 리차드 로버트(Richard Roberts)와 다른 신학 교수들이 “Christian Faith and Ministry” 수업을 위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만난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⁵⁹⁾ 그래서 본 논문의 제 4장은 앞서 연구된 3장을 토대로 GOR의 저서와 사역, 2018년에 GOR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59) Thorpe, R. Samuel, “An Overview of the Theology of Oral Roberts,”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59.

ORU의 저널을 참고하여 연구될 것이다. GOR은 자신의 신학을 학문적으로 이론화시키지 않았지만, 연구자는 그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하되 임의적으로 성령론적 치유신학, 종말론적 구원신학, 인간론적 희망신학으로 구분하여 그의 선교사역에서 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단, 본 연구에서 GOR의 교단에 대한 기재와 분석은 제외한다. 그 이유는 그의 신학이 배경이 되어 이루어진 사역을 보면 오순절 운동의 색을 띄지만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인치유사역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본 논문이 오순절에 대한 GOR의 신학과 사상을 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오순절 및 오순절 운동, 오순절 특징으로서의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연구는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가 도출된다. GOR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역을 보면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였다. 목회자이자 복음전도부흥사, 전인치유사역자인 그의 전인치유선교는 복음전파의 효율성에 있어서 탁월하였다.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특성과 의미연구는 그의 전인치유사역이 선교로서 갖는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며 선교사역으로서의 충분한 증거와 연구, 심도 있는 분석과 정리로 마무리 될 것이다. 그 결과, GOR의 전인치유사역이 선교사상을 기반한 선교로 다시금 재해석되는 중요한 연구결과가 된다. 더불어 과거 ‘위대한 선교의 세기’ 이후로 선교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명의 전인치유선교사의 재발견을 목적으로 둔다.

D. 선행연구

전인성에 관한 국내 초기연구로 이명수의 『치유선교론』이 있다.⁶⁰⁾ 이 연구는 병인론, 치유, 건강의 개념 설정과 의미를 전인성의 입장에서 객관

60) 이명수, 박행렬, 『치유선교론』, 서울: 나임, 1993.

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전인치유의 연구 시작에 앞서 살펴볼 충분한 의의가 있다. 그의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으로서 전인치유의 전인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인치유의 개론 연구로 마무리되었고, 전인치유의 활성화 부분이 생략되어서 전인치유의 임상 및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안타까움을 산다.

김영준⁶¹⁾은 『전인치유』에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영성치유와 현대의학을 함께 적용한 성경적 전인치유라고 제시한다. 의학과 신앙의 조화를 거론한 그의 연구는, 한 인간이 겪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했다는 것과 전인치유의 의료적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⁶²⁾ 의학과 신학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상은은 “생명선교의 의학적·기독교적 고찰”⁶³⁾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 피조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동일선상으로 본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치유,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본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전인적 치유를 새로운 대안으로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선교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총체적인 치유사역에 있어 일상에서 목회자를 비롯하여 평신도, 전문인, 일반인을 포함하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선교가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특히 예수가 행했던 사역을 근거로 한 의료선교는 전인적인 치유를 포함하여 총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행렬 또한 “총체적 치유 목회, 왜 필요한가”에서 시대에 필요한 총체적 치유방안을 연구하였다. 현대 목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61) 김영준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생리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교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성인병 전문의로 활동했다. 뉴욕과학원 의학과 학술회원이며 미국 세포생리학회 정회원, 미국 원호성 성인병 클리닉 의료책임자, 크리스천 아카데미 연구위원, 한국기독교전인치유회 수석고문, 복내전인치유센터 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62) 김영준, 『전인치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9-231.

63) 박상은, “생명선교의 의학적, 기독교적 고찰,” 『선교와 신학』 제22집, 2008, 83-113.

할 방향성을 치유로 보고, 치유목회의 현실적 대안이자 실천방안으로 예배 갱신, 목회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협력기구 설치를 제시하였다.⁶⁴⁾

김남식은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서 전인적이며 전환경적인 치유의 이해를 돕고자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인건강을 위하여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MacNutt)의 네 가지 영역의 분류(영적 치유, 내면 치유, 질병 치유, 사회적 치유)를 통한 치유를 제시하였다.⁶⁵⁾ 그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인건강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에 목적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전인치유의 소개 및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서 치유목회를 위한 치유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와 치유의 신학적, 의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선교 신학적 관점을 통한 전인치유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GOR의 전인치유 연구를 위하여 조용기의 저술은 참고할 만하다. GOR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목회 방향을 전환하였던 조용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목회에서 치유를 중심 사역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의 수많은 저작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용기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적 치유를 설명한다.⁶⁶⁾ 조용기는 치유의 개념을 정신과 육신의 고침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된 삶으로 정의하였다. 즉,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실존적인 치유를 주장한다. 특히 이충웅은 “조용기 목사의 능력대결”에서 치유에 속하는 축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조용기가 제시한 치유의 기도, 내적강화에 주목한다.⁶⁷⁾ 이 연구는 진정한 승리로서의 치유, 축사 등의 오순절 성령 사역의

64) 박형렬, “총체적 치유목회, 왜 필요한가,” 『상담과 선교』 Vol. 3, No. 4, 1995, 34-57.

65) 김남식,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상담과 선교』 Vol. 3 No. 4, 1995, 6-33.

66) 조용기, 『천국의 증인』, 서울: 말씀사, 2005, 41.

67) 이충웅, “조용기 목사의 능력대결,” 『영산신학저널』 Vol. 38, 2016, 235-72.

경험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복음 수용에 매우 용이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축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임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전인치유 가운데 축사는 분리가 아닌 포함되는 영역인 가운데 이러한 축사사역은 국가마다 문화적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김성건은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해 문화적 요인으로서 무속신앙과 개신교의 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서 경제발전 사이에 친화성을 주목한다. 종교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인의 샤머니즘(shamanism)은 귀신(鬼神)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강신술(spiritism, 혹은 교령술, 交靈術)이 중요한 요소이다.⁶⁸⁾ 현대에 와서도 한국인의 내면적, 심층적 의식구조를 보면 샤머니즘으로부터 기원한 사람이 죽어서 된 ‘인귀’(人鬼)의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불치병에 걸려 고통 받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중 주술적 치료에 대한 의존이 적지 않고, 대체로 한국 사회는 최첨단의 발전을 이룬 현대에도 ‘귀신’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⁹⁾ 이에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전인치유에 축사를 포함시키되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초점의 한계상 축사사역 연구는 보류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GOR의 연구는 그의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영향력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연구는 GOR의 영문으로 기재된 1차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0여권 이상의 GOR의 저작들과 각종 매거진, 신문기사가 연구되어질 것이다. 그 중 GOR의

68) Charles Allen. Clark, *Religions of Old Korea*, Taylor&Francis, 2019, 16; 조홍윤, “한국무속의 세계와 성격,” 『한국의 기층문화』, 1987, 175; 정재식, “한국 종교전통의 연속과 변혁,” 『한국사 시민강좌』 Vol. 26, 2000, 75-76.

69) <https://nstore.naver.com/broadcasting/detail.nhn?productNo=1143966> 2020. 03. 24. 접속. 국내 TV방송 채널A의 “이영돈PD, 논리로 풀다”는 제 3부작 다큐 프로그램(2012. 8. 20)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마이산 등지의 수많은 이른바 ‘소원바위’ 현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는데 당시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였다.

저자인 *Expect A Miracle: My Life and Ministry, My Story*와 데이비드 하렐 (David Harrell)의 *Oral Roberts: An american Life*는 GOR의 생애와 전반적인 사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GOR의 저작 중 *If You Need Healing Do These Things, Seven Divine Aids For Your Health*는 전인치유를 연구하는데 유용하였으며 *The Miracle of seed-faith, Unleashing the Power of Praying in the Spirit*은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연구하는데 기틀이 되었다. 이 외에도 GOR의 40년간 발행된 매거진 *Abundant Life*와 *America's Healing Magazine, Healing Waters*는 그의 전인치유선교가 이뤄졌던 당시상황과 그에 따른 사실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어 본 논문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신문인 *The New York Times, Tulsa World, The Christian Century*는 GOR의 전인치유선교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 비판적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였다. 학교 매거진인 *Oral Roberts University*는 ORU의 전인교육과 종족화합사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상 방대한 GOR의 1차 자료들은 본 논문을 심도있게 연구하는데 주축이 되는 자료이다. 단, GOR의 1차 자료가 신학과 선교사상에 관한 내용보다는 간증과 설명, 설교식의 글로 선교신학적 관점의 연구가 아니라는 점과, 본 연구를 위해 영문 번역에 있어서 다소 의미전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 내 존재하는 GOR의 연구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쓰였는데, GOR을 다른 여러 사람들과 비교분석하거나 GOR의 전기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 이후 ORU 설립 이래 GOR의 단독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졸업생들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세계적인 학자들의 GOR에 관한 연구가 소수 존재하는데 그 중 ORU의 명예교수이자 신학대학의 전학장인 톰슨 메튜 (Thomson K. Mathew)는, GOR과 조용기를 20세기에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능력을 통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보고 그들의 치유신학을 연구⁷⁰⁾하였다. 그는 20세기 미국

70) Thomson K. Mathew, “오랄 로버츠 목사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치유신학에 대한 비교 평가,” 『영산신학저널』 Vol. 3, No. 2, 2006, 38-69.

의 복음주의자이자 최고의 치유사역자인 GOR,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중을 가진 아시아 목사 조용기의 각각의 신학적 구조와 강조점, 치유 신학의 정의를 성서적, 오순절적/은사주의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GOR의 신학을 실천적인 신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GOR의 치유신학을 연구함으로써 GOR의 성령의 역사인 전인치유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심도있게 다루었다.⁷¹⁾ 이외에도 빈슨 사이난(Vinson Synan)⁷²⁾, 사무엘 소프(R. Samuel Thorpe)⁷³⁾의 연구는 GOR의 경험, 소속교회의 전통, 사회적 맥락의 영향으로 세워진 그의 치유신학과 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티모시 해처(Timothy Hatcher)⁷⁴⁾의 GOR의 원주민 뿌리에 관한 연구와 다니엘 이스그리그⁷⁵⁾의 연구는 GOR연구의 미래지향적인 면을 고려한 자료축출에 큰 보탬이 되었다. 더불어 윌리엄 윌슨(William M. Wilson)⁷⁶⁾과 케빈 슈나이더(Kevin Schneider)⁷⁷⁾, 짐 헌터(Jim Ernest Hunter, Jr)⁷⁸⁾의 연구는 GOR의 선교사역의 발전과 방법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연구 자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원석의 GOR에 관한 연구⁷⁹⁾는 본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해

71)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A Journey from Pentecostal "Divine Healing" to Charismatic "Signs and Wonders" to Spirit-empowered "Whole Person Healing","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303-23.

72) Vinson Synan, "The Pentecostal Roots of Oral Roberts' Healing mini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87-302.

73) R. Samuel Thorpe, "An Overview of The Theology of Oral Roberts", 259-75.

74) Timothy Hatcher, "The Spirit of Immense Struggle: Oral Roberts' Native American Ance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177-98.

75) Daniel D. Isgrigg, "Oral Roberts: A Man of the Spirit,"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325-50.

76) William M. Wilson, "Oral Roberts and the Spiritual DNA of Oral Roberts Universit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77-86.

77) Kevin Schneider, "A History of ORU Healing Team,"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21-38.

78) Jim Ernest Hunter, Jr, "Where My Voice Is Heard Small: The Development of Oral Roberts' Television Mini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39-57.

79) Wonsuk Ma, "Why Oral Roberts Studies?,"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157-67.

주었다. 그의 선교 시각으로 연구한 전 세계의 선교패러다임을 비롯하여 오순절 선교전략에 대한 성령연구⁸⁰⁾와 고찰은, 현대 선교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연구⁸¹⁾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자의 세계선교의 시각을 넓히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한국에서 GOR에 관한 단독적인 연구는 보기 드물다. GOR을 오순절/은사주의 운동과 연관하여 소개하는 정도로 그친다. 유일하게 GOR을 지목하여 연구한 연구자는 임열수와 박명수이다. 그들은 “Oral Roberts목사의 신유운동과 오순절 운동”을 통해 GOR의 치유사역(Healing Ministry)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GOR의 저작을 통해 그의 생애를 기반으로 치유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치유사역이 확산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치유신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⁸²⁾ 이 선행연구는 본 논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GOR의 사역과 사상의 객관적인 비판과 시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GOR의 사상이 연구되지 않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배덕만은 “미국교회 종말론의 다양성과 그 역사적 흐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종말론적 경향에 있는 인물로 GOR을 주목하여 그의 신학사상에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요소를 찾았다. 그래서 GOR의 사역, 역사관에서 종말사상을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는⁸³⁾ 본 논문에서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GOR연구의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

80) Wonsuk Ma, “The Holy Spirit in Pentecostal Mission: The Shaping of Mission Awareness and Practic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1, No. 3, 2017, 227-38.

81) 마원석,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 한국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제 6회 국제신학학술세미나, 서울: 국제신학연구원, 1997, 141-55; Wonsuk Ma, “Theological and Missional Formation in the Context of New Christianity,” *World Council of Churches* Vol. 66, No. 1, 2014, 53-64.

82) 임열수, “Oral Roberts목사의 신유운동과 오순절 운동,” 『오순절신학논단』 Vol. 2, 1999, 62-95.

83) 배덕만, “미국교회 종말론의 다양성과 그 역사적 흐름,” 『오순절신학논단』 No. 11, 2013, 39-82.

다. 동시에 연구자가 본 연구를 시작하는 데 앞서 전인치유의 명확한 이해와 GOR의 전인치유선교 연구의 동기부여와 원동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선 전 인건강의 일반적, 신학적, 의학적인 이해를 통하여 전인치유의 신빙성을 입증 해 주었다. 그리고 전인의 치유, 상담, 목회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일찍이 전 인치유의 시급함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 다는 점에서 전인치유가 시대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결과도 중요했기에 전 세계의 오순절/은사주의의 복음화에 있어 실질적인 현상은 전인치유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사역 가운데 전인치유의 시급성과 가시적 효율 적인 복음전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의 시급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 있었던 GOR의 본 연구가 그의 선교사역의 지대한 영향 력에 비해 적은 연구의 한계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소개한 GOR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GOR의 전인치유선교가 21세기에 다시금 소개되어 야 할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ORU에 직접 방 문한 연구자의 경험과 체험이 본 연구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물론, 한 인간이 타인의 생애, 사역, 신학, 선교사상이라는 방대한 내용을 한 논문에 기재한다 는 것은 분명 미흡함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이를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앞서 나갔던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연구는 21세기 복음전도에 효 율적인 목회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주장한다.

E. 용어정리

1. 전인치유(Whole Person Healing)

전인치유는, 가시화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나옴, 고통으로부터 해

방되는 단일적인 개념을 벗어나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영, 혼, 육인 전인(whole being)이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process)을 뜻한다. 박양현은 전인치유가 불균형적인 삶의 방식에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주는 실제적 접근(lifestyle approach)이며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정화하는 개념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영적 가치와 개인 및 공동체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⁸⁴⁾ 혼적, 영적 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전한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치유만이 가능하다. 이 전인치유를 GOR은 곧 전인구원이라고 한다. 이는 영, 혼, 육의 합일로 이루어진 것으로, 치유가 구원과 연합된 상태⁸⁵⁾라고 한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의 정의와도 부합한다.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진정한 치유를 “단지 질병의 회복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회복 이후 지속적인 삶의 자세까지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삶을 사는 것”⁸⁶⁾까지 확장한다. 다음의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 E. Stanley Jones School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스탠저(Frank Bateman Stanger)가 정의한 치유에 대한 내용은 전인치유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치유란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을 파멸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치유에는 그밖에도 그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의 인격이 활짝 꽃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질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

84) Daniel E Fountain, *Health, the Bible and the Church*, 김창용 역, 『전인치유의 하나님』, 서울: 조이선교회, 1999, 215.

85) Paul Tournier, *Bible et m'edecine*, 마경일 역, 『성서와 의학』, 서울: 다산글방, 2004, 219.

86) 같은 곳.

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인격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유된 사람이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계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모두 제거한 사람을 말한다. 치유란 단순히 병 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⁸⁷⁾

김태수는 영혼의 집인 육체와 사유를 담당하는 마음과 형이상학적 차원의 영역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회복과정⁸⁸⁾으로 전인치유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전인치유라는 단어의 사용은 과학적, 자연적, 초자연적, 의료적, 교육적 개입을 포함하여 인간이 겪고 있던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전인의 회복을 의미할 때 쓰인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까지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한다.

a. 전인(Whole person)

후크마는 “인간은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분리해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육체를 갖는” 영혼, “영혼을 갖는” 육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인간이해는 전인성과 통일성이 중심을 이루는 성경적 시각에서 도출⁸⁹⁾되었다. 성경은 인간을 영, 혼, 육의 통일된 존재인 전인적 존재로 본다.⁹⁰⁾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 없

87) Frank bateman Stanger, *God's Healing Community*, 배상길 역, 『위대한 의사 예수』, 서울: 나단, 1995, 32.

88) 김태수,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의미와 방법,” 『복음과 상담』 통권 1호, 2003, 169-73.

89)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359.

90) Dietrich Bonhoeffer, *Creation and Fall; temptation : two biblical studies*, New York: MacMillan, 1976, 192.

게 보전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살전5:23).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세 부분의 구성요소는 생활환경과 더불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적임⁹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영, 혼, 육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히브리적 사고를 전제로 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b. 치유(Healing)

일반적으로 인간의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로 치료(treatmen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⁹²⁾ 여기서 ‘치료’는 ‘치유’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둘의 차이를 둔다면 ‘치료’는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료적인 행위를 동반한 의료 과정, 시술, 처치를 의미하고 ‘치유(Healing)’는 전인적인 건강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 ‘치유’를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함은 ‘치유’가 갖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이다. 치유는 의료적인 처치를 통한 나옴의 상태인 치료의 의미를 내포하며 한 인간의 전인적인 ‘회복’이라는 뜻이 더해짐으로 그 의미가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곧 질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 그 이상의 건강(健康)을 말한다. 영어로 색슨어의 형용사 ‘hal’에서 생성된 ‘healing’은 어원에서 인간 신체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뜻으로⁹³⁾ 치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질병을 포함하여 불완전한 상태에서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한다.

기독교에서의 치유는 신체의 병적인 부분의 나옴 이상을 의미한다.⁹⁴⁾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질병 상태로 인해 변질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치유라 한다. 더 나아가 폴 투르니에는 “진정한 치유를 단지 질병의 회복

91) 장요한, 『기도치유의 정석 I』, 대전: 힐링, 2010, 61.

92) 『동아 새 국어사전 4판』, 서울: 두산동아, 2002.

93) 김남수,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사역』, 서울: 서로사랑, 2006, 108.

94) Andrew Weil, *Spontaneous Healing*, 김옥분 역, 『자연치유』, 서울: 정신세계사, 2005, 22.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회복 이후에 삶의 자세까지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삶을 사는 것까지 확장⁹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불편함을 겪어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금 불편함이 없이 본인의 의지적 의도에 따라 온전케 될 때, 치유 혹은 전인치유 단어를 쓰고자 한다.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또는 정신적, 영적인 부분의 개별적인 회복에 관하여 논할 시 치유라는 단어로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전인치유선교(Whole Person Healing Mission)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질병의 상태이다. 세부적으로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육과 낮은 자존감을 포함한 각종 정신병을 지닌 사유를 담당하는 혼, 형이상학적 차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단절로 온전히 못한 영이 하나로 이뤄진 변질된 인간은 전인 회복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전인 건강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구원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이를 전제로 선교는 인간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부르심이며 전인치유선교는 하나님의 작업으로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사역을 전파하고 행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연구자는 전인치유선교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깨어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인회복이 일어나는 치유사역으로 정의한다. 이는 전인의 통전적인 회복과 구원의 과정을 포함하여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자의 삶으로서 선교의 재생산을 이루는 것까지를 그 범위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 자연적, 초자연적, 의료적, 교육적인 개입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

95) Paul Tournier, 『성서와 의학』, 291.

음수용을 목적으로 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다.

3. 성령운동(Holy Spirit Movement)

성령운동은 오순절 성령운동과 한국의 성령운동으로 구분해서 설명될 수 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등 소위 프로테스탄트 주류 교단에서 발견되어지는 오순절 성령운동은 로마가톨릭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소수 교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의 대부분 모든 교단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심지어는 100년도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진 오순절 교단들이 프로테스탄트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한다는 주장이⁹⁶⁾ 있을 정도이다. 이런 오순절 성령운동이 복음에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를 향해 급격하게 확장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약 4억 6천만의 교인 수⁹⁷⁾를 갖게 될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성령운동은 류장현에 따르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인한 일제의 침략과 국권상실, 해방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한국 전쟁의 결과로 인한 민족분단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소외 속에서 정신적 허무함, 심리적 박탈감과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국민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특히 1907년 평양 대 부흥 운동은 회개, 거듭남, 충만한 성령 세례를 동반한 성령의 능력체험이 일어났다. 이 성령운동은 당시의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태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성령운동이 일제강점기 때에는 해방하는 힘으로 작용되었고, 사회적 억압과 착취 가운데 존재감의 타락으로 방황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

96) 이영훈,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오순절신학논단』 제1호, 1998, 83.

97) 위의 글, 81.

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던 가난과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성령운동은 소망과 희망을 전한 종말론적 신앙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 교의학에서 본 성령운동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성화시킴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성령운동의 종말론적, 구원론적 의미를 포함하여 오순절 성령운동과 한국의 성령운동에 나타난 성격 및 특성과 함께 새로운 21세기 성령운동을 거론할 때에 이 단어를 쓰도록 한다.

a.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

은사주의(Charismatic)와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오순절 교단과 제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순절주의와 신오순절주의(Neo-Pentecostalism)의 역사적 발전으로 아는 것이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b. 은사주의(Charismatic)

그리스어 ‘Charisma’에서 온 ‘Charismatic’은 “자유롭고 은혜롭게 주시는 선물”⁹⁸⁾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단어는 신약 로마서에서부터 고린도후서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되는 비물질적인 종류의 특별한 선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은사주의운동’은 1960년대부터 역사적, 주류 교회에서 영적 은사의 사용과 성령세례를 언급할 때 사용하였다.⁹⁹⁾ 이 용어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

98) Daniel Ed. Patte,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84.

99) Allan Anderson, 『땅끝까지』, 283.

고 행하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운동, 전통적인 오순절 교회를 언급하기까지 사용된다.

대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또는 능력으로 사용된다. 은사주의운동의 주요 특징은 성령의 은사나 치유, 기적, 예언, 영의 분별, 방언으로 말하거나 해석하는 경험의 장이다. 본 연구자는 특정 종류의 종교적 경험이나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운동을 언급하기 위한 역사적의미의 내포로 해당용어를 사용한다.

II. 전인치유의 이해

전인치유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 대상인 ‘인간’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경적 이해 하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변질되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공존하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여기서 죄인인 인간은 영과 혼에서부터 짓는 죄와 육으로 겪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⁰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아야 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이 치유되어야 하는 이중적인 요소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전인치유에서 전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문제¹⁰¹⁾와 관련해서 인간존재를 이분법적인 존재 혹은 삼분법적인 존재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히브리적 사고 체계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면, 오히려 인간은 전인적 존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전인치유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인간 이해에 대한 역사를 보면, 먼저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적 사고를 토대로 인간을 ‘육’(soma/body)과 ‘영’(psyche/soul)의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였다.¹⁰²⁾ 이 견해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후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교회의

100) Andrew Murray, *Divine healing*, 장진욱 역, 『하나님의 치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19.

101) Jurgen, Moltmann, *Human*, 편집부 역, 『인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1; Millard J. Ericsson, *Christian theology*, 현재규 역, 『복음주의 조직신학(중)』,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12, 99;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6.

102) Anthony A. Hoekema, 『개혁신의 인간론』, 341-42;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

보편적 신앙의 토대가 되었다.¹⁰³⁾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으로 구분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의 진정한 실체이며 가치 있는 것을 ‘영혼(靈魂)’으로, 그리고 이보다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육체(肉體)’로 인식하는 체계이다. 이 견해는 로마서에 근거하여 육에 속한 사람은 죄의 정욕으로 인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거하지 않고 영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에 의해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을 통하여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의미를 받아들여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설명한 육은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하지 않는다. 육은 ‘몸’이라는 단어와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에 있는 인간 존재¹⁰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분법적 이해는 인간존재에 관하여 보편적인 견해를 가졌던 조직신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편적으로 본 입장이기도 하다. 이 입장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되, 이 둘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신성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이라고 이해한다.¹⁰⁵⁾ 비물질적 부분인 영과 혼을 설명하자면, 혼(psyche)은 개체적, 의식적인 생명으로 신체적 유기체에 원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영(pneuma)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인간의 고차원적 부분인 동시에 영은 영적인 실재와의 관계, 혼은 육과의 관계가 성립된다. 즉, 인간의 비물질적 부분인 영과 혼은 능력적으로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본질상 통일적 이해로¹⁰⁶⁾ 인간은 이분법적인 존재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혁주의 신행협회, 2005, 204-06, 346; 김성환,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에 관한 연구: 하나님나라와의 연관성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Vol. 21, No. 2, 2013, 43. 이분설(Dichotomism)에 대한 관점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를 이원론적으로 보았던 플라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103)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복음주의조직신학(중)』, 90.

104)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II』, 43-44.

105) 박행렬, 『기독교인을 위한 전인치유 사역』, 서울: 나임, 1999, 60.

106) Henry C. Thiessen,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권혁봉 역, 『조직신학 강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3, 357-58.

다음으로 인간을 ‘영’, ‘혼’, ‘육’(soul & soma & psyche, body)인 세 요소로 보는 삼분법적 견해(Trichotomism)¹⁰⁷⁾ 또한 널리 보편화된 사고이다. 이 삼분법적 견해는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토대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물리적인 부분인 육은 동, 식물과 공유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심리화적인 요소인 혼(soul)은 이성이나 감정, 사회적 상관성의 기초를 이룬다. 인간의 혼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의 혼과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구분은 영(spirit)의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 영역은 종교적 요소이다. 인간은 영을 통해 영적 문제와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다. 위 성경의 기록들은¹⁰⁸⁾ 인간의 세 요소를 열거하거나 혼과 영을 구분하였다. 삼분법적 견해에 의하면 이는 혼이 인간의 영적인 부분임을 부정하진 않지만 구분하자면 혼이 영보다 낮은 세계에 관계되어¹⁰⁹⁾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 영에서 혼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영적인 성질이 내재되어¹¹⁰⁾ 있음을 말한다.

과거의 초대 교부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닛사의 그레고리가 삼분법적 견해를 따랐으며, 아폴리나리우스가 이 삼분설을 자신의 기독교론을 세우는 데 사용¹¹¹⁾하였다. 그 후에 지속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신학자들을 통해 삼분설은¹¹²⁾ 다시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영과 육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전적(統全的)인 존재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히브리적 사고로 인간을

107) 이명수, 박행렬, 『치유선교론』.

108) 살전 5:23, 히 4:12 참고.

109) 위의 책, 359.

110) 위의 책, 400.

111)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복음주의조직신학(중)』, 89. 아폴리나리우스가 삼분설을 통해 기독교론을 세운 후에 교회는 그의 기독교론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이 이론은 불신을 받게 되었다.

11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53, 191-92.

육과 영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통합체로 보는 전인적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한다.¹¹³⁾ 구약학자 볼프(Hans Walter Wolff)는 앞서 제기된 인간을 이분법적, 삼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을 고대 희랍어 번역인 70인역 성서에서 시작된 인간론의 오도의 결과라고 보았다. 즉 성서에서 나오는 명사를 육체(Fleisch), 정신(Geist), 영혼(Seele), 마음(Herz)으로 번역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보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¹¹⁴⁾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 인간을 이해한 볼프는 구약에 사용된 ‘vp,n<’(네페쉬)를 통해 전체성 가운데 인간이해를 추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성경에서 목구멍, 목, 육구, 영혼, 생명, 사람, 대명사로¹¹⁵⁾ 인간의 영역을 전부 가리키는 ‘vp,n<’(네페쉬)는 인간 모습의 전체이자 생명 있는 실체(존재) 그 자체이다.¹¹⁶⁾ 인간의 전체성 가운데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육의 부분을 의미하는 ‘rf'B'’(바사르)’, 혼의 부분을 의미하는 ‘ble’(레브)’, 영의 부분을 의미하는 ‘x:Wr’(루아흐)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vp,n<’(네페쉬)는 생명이 있는 인간 그 자체를 뜻한다.

‘vp,n<’(네페쉬)의 개념 하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인간이 구별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인간 자체의 통일적인 존재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¹¹⁷⁾ 그리고 신약에서는 육과 혼을 나누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간혹,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처럼 몸과 영을 대조시키기도 하지만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울¹¹⁸⁾이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한 용어들도 모두 전인을 가리키는 동의어로서 결국 히브리적 사고가운데 인간을 이해하였다. 존 워

113) 노영상, 『하나님의 세븐케이트』,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9-20.

114)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문희석 역, 『舊約聖書の人間學』, 서울: 분도, 1976, 24.

115) 위의 책, 28-56.

116) 위의 책, 29. 볼프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living nefesh)’을 뜻하는 נֶפֶשׁ חַיָּה(네페쉬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을 호흡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117) Michael harper, *The Healing of Jesus*, 고재봉 역, 『예수의 치유』, 서울: 요단, 2002, 185.

118) Rudolf Bultman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Scribner, 1951, 16. 바울은 영과 육의 소마(soma)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바울의 인간이해는 죄의 포로되어 있는 인간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인간이다.

버(John Wimber)와 케빈 스프링거(Kevin Springer)는 “신약성경 역시 인간의 속성을 하나의 통전적 실체(aunified whole)”¹¹⁹⁾라고 이해함을 말하였다. 그들은 성서에 기재되어 있는 영(히: nephesh; 헬: pnuma), 혼(헬: psuche), 몸(헬: soma), 육(헬: sarks)은 인간의 존재 안에서 서로 다른 각각의 국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인간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통전적, 전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침례교 조직신학자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그의 저서 *Christian Theology*에서 성경에는 인간의 영적인 본질이 육과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인간이해를 위한 최선의 관점으로 “조건적 통일성(conditional unity)”을 말하였다.¹²⁰⁾ 그는 통일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항상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해체는 인간의 죽음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조건적 통일체라는 관점이 가진 함의¹²¹⁾를 보면 곧 구약의 ‘vp,n<’(네페쉬)의 인간이해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1) 통일체인 인간의 영적 상태와 육적, 심리적 상태는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다뤄져서는 안 된다.¹²²⁾ 2) 인간은 복합적인 존재이다. 3) 인간의 육, 감정, 지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은 존중되어야 하며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성육하신 예수는 인간의 전인을 구속하기 위한 것으로 복음은 전인에 대한 호소이다. 4) 인간의 각 요소에서 자체적으로 악한 것은 없다. 즉 인간 본성에서 어느 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굴복하게 하거나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화의 잘못된 이해와도 비슷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전인을

119) John Wimber, Kevin Springer, *Power Healing*, 이재범 역, 『능력치유』, 서울: 나단, 2003, 13.

120)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복음주의조직신학(중)』, 106-07.

121) 위의 책, 109.

122) Otto Weber, *Karl Barth's Kirchliche Dogmatic*, 김광식 역, 『칼바르트와 교회 교의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164;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359. 칼바르트(Karl Barth)는 인간의 영과 육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은 연합과 질서를 이루고 있기에 결코 나누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후크마(Anthony A. Hoekema)는 “인간은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육적인 측면과 정신적 혹은 영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육체를 갖는’ 영혼 혹은 ‘영혼을 갖는’ 육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활동하신다. 조건적 통일성의 함의에서 하나님의 전인을 향한 치유 시각은 히브리적 사고의 전인이해와 관련이 된다.

그 이유는 앞서 거론된 ‘vp,n<’(네페쉬)로서의 인간이해와 더불어 넓은 의미 가운데 ‘vp,n<’(네페쉬)로서의 인간은 생명을 목표로 하는 존재이자 고달픈 현실 속에 쇠약하고 갈망하는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자아를 하나님을 향해 희망과 자유로 인도한다는¹²³⁾ 점에서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이해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동시에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통전적 존재성을 갖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모든 사람을 단일체인 전인으로 보며 모든 인간의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있다는 관점을 가진다. 즉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갖고 있되, 육체를 갖는 영혼 혹은 영혼을 갖는 육체로 이해된다.¹²⁴⁾ 이는 육의 고통이 영적 삶을 위한 인간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관계가운데 영향과 기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전체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vp,n<’(네페쉬)로서의 인간이해를 전제하는 전인치유는 인간의 전체이자 그 자체의 치유를 말한다. 연구자는 인간이해에 있어서 삼분설을 포용하되, 전인치유의 연구를 위해서는 히브리적 사고체계, 즉 볼프의 견해를 수용함으로 조건적 통일성을 전제로 한다.

A. 전인치유의 다양한 해석

앞서 거론한 네페쉬로서의 인간을 조건적 통일성에 부합하여 이해하면서 전인치유를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시해야 할 작업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건강과 질병의 상호영향이 존재하는 가운데 치유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3) Hans Walter Wolff, 『舊約聖書의 人間學』, 56.

124) Anthony Andrew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35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목적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WHO가 명명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 또는 불구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복지의 상태¹²⁵⁾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사회적 상태의 구분을 벗어나 모든 사람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건강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삶을 영위하는데 건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웹스터(Webster) 의학 사전은 질병을 한 인간에게 “평온함(tranquility)이 결여된 상태 혹은 건강의 부조리(disorder)를 경험하는 상태”¹²⁶⁾로 규정한다. 여기서 ‘평온함’은 심적인 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부조리’는 육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구체화하여 정낙준은 질병이란 인간의 영과 육의 부조화(disharmony)와 분열(fragmentation)의 상태이자 동시에 사회가 부조리(disorder)를 이루는 것¹²⁷⁾이라고 보았다. 즉, 질병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부조화와 분열의 경험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에서 건강을 위한 필요기본조건인 치유는 일반적 치료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서 치료라는 용어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의미가 나뉜다. 하나는 처치(treatment)의 의미로 의학적으로 질병이라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¹²⁸⁾는 뜻이 있다. 또 다른 치료(therapy, curing)의 의미는 질병을 포함한 각종 장애, 문제가 완화되기 위해 계획된 체계적인 과정과 활동¹²⁹⁾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회복이 잘 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질병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돌보고

125) <https://www.who.int/about/who-we-are/constitution> 2020. 04. 22. 접속.

126) 이명수, 『치유선교론』, 14.

127) 정낙준, “성경적 상담과 치유상담,” 『성경과 상담』 제15권, 2016, 121.

128) 정영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치유,” 『상담과 선교』 Vol. 79, 2013, 19.

129)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블루피쉬, 2009. 이와 같은 의미의 용어는 심리치료(psychotherapy), 심리사회 치료(psychosocial therapy), 집단치료(group therapy)와 동일어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물리치료, 약물치료, 화학치료(chemotherapy) 등 치료 형태를 구분할 때 특정 용어로 사용된다.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상, 각각의 의미는 그 목적이 인간의 안녕과 건강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의학에서 의사들은 건강에 대해 치유보다는 치료 개념의 실현으로, 사람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회복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치료의 과정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이루기 위한 치유를 연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말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전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다.¹³⁰⁾ 둘째는 이어지는 플라톤의 말이다.

머리를 모르고 눈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 몸을 모르고 머리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 영혼의 세계를 모르면서 육체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질병을 바르게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다.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이 건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이 건강하다면 그의 영혼을 치료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¹³¹⁾

즉, 전인치유는 인간의 영, 혼, 육의 유기적인 전체성을 내포한 전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전인치유의 개념을 이해하며 정리하자면, 치유라고 명명하는 한도 내에서 삶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질병을 겪는 전인으로서의 인간이 정상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를 포함한 모든 회복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앞서 말한 건강과 치료의 일반적 이해가 기독교 이해에 포함된다고 본다. 즉, 기독교이해는 일반적인 건강의 개념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서의 영적인 건강을 포함한다. 방사선과 전문의 이자, 선교의 실제적인 문제를 연구한 전희근에 따르면¹³²⁾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을 이루며, 전인건강의 최종 결정권은 하

130) William Arthur Heidel, *Hippocratic Medic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1.

131) Plato, Tran, B. Jowett, *The Dialogues of Plato: Charmides*, New York: Random House, 1937, 5.

132) 전희근, 『선교와 의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65-68.

나눔께 있다.

기독교의 전인치유는 모든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성서적 시각을¹³³⁾ 통해 단순히 육(체)의 질병 혹은 정신적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¹³⁴⁾ 가지고 있다. 폴 투르니에¹³⁵⁾는 인간의 육(체), 혼(정신), 영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는 구원과 연합되어 있으며 전인치유 이후 하나님 안에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¹³⁶⁾까지를 완전한 치유로 보았다. 그는 전인치유를 이해할 때 실제인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실제적 접근(lifestyle approach)으로 그 시각을 넓혔다.

다음, 교회의 영적 형성과 치유 사역 교육자인 스탠저(Frank Bateman Stanger)의 말은 전인치유의 정의를 잘 정리해준다.

치유란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을 파멸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치유에는 그밖에도 그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의 인격이 활짝 꽃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질병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인격을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치유란 단순히 병들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¹³⁷⁾

따라서 기독교 전인치유의 총체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인간 전인의 특성인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처치, 치료하는 것이

133) Ruth H. Folta, *Spiritual Nursing Care*, 정정숙 역, 『영적간호: 기독의료인, 기독간호사의 역할』, 서울: 현문사, 1995.

134) Andrew, Weil, 『자연치유』, 22.

135) 폴 투르니에는 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또한 여기서 진료종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인격으로서의 환자 존재를 인정함으로 관계를 통한 영적 차원을 고려하였다. 그는 1947년 스위스의 보쎈(Bossey)에서 최초로 “의학과 전인치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요주제는 전인치유로 환자가 질병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과 의학적 치료과정 속에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근원을 인간 존재의 의미와 연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였다.

136) 박기백, “폴투니어의 치유방법론,” 『폴빛 묵회』 11월호, 1987, 97.

137) Frank bateman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32.

다. 아울러 전인 자신과 타인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곧 죄인인 인간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의 자유를 얻어 온전함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내포한다.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 전인치유의 이해가운데 인간의 전인치유 분야로서 영적, 혼적, 육적 측면을 형식상 분리하여 각 차원이 겪는 고통의 원인 및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인으로서 인간의 각 측면의 유기적 연관성과 전인치유의 통전적 이해가 적립될 것이다.

B. 전인치유의 분야

한국 손보사 민영의료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질병의 종류는 2만 5천 가지이다. 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알려진 질병 외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 발견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질병이 생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을 위협하는 질병의 범위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같은 질병은 그 대상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둔다.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MacNutt)¹³⁸⁾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의 실질적 범위와 영향력을 영의 질병, 감정의 질병, 육체의 질병, 귀신에 의한 질병으로¹³⁹⁾ 나누어 단순화하였다. 이와 같은 질병들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존 Wimber(John Wimber)는¹⁴⁰⁾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치유의 영역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질병은 인간의 영, 혼, 육으로 침입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38)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MacNutt)는 치유사역의 세계적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치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치유』의 저자이다. 그 외에 『치유의 능력』, 『치유하는 기도』, 『성령의 권능』 등 다수의 저술이 있다.

139) Francis MacNutt, *The power to heal*, 조원길 역, 『치유의 능력』, 서울: 전망사, 1979, 153-55.

140)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14-15.

인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가 필요하고 유기적인 관계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질병에 사로잡혀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생소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전인치유이다.

본 장에서는 인간에게 필요, 필수적인 육(체)적, 혼(정신)적, 영적 치유의 기능적, 개념적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각 분야를 특징으로 이해하여, 전인치유가 인간의 통전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1. 육(체)적 측면에서의 치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를 이원론으로 보았던 플라톤의 세계관이 반영된¹⁴¹⁾ 헬라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은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배격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육은 성령하나님이 거하시는 전(행2:17; 고전3:16; 6:13-25)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이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신체기능의 장애 뿐 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까지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으로 자연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다. 즉,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보았을 때 육의 질병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포함한 사회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육의 존재와 그 건강의 상태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치유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체적 치유를 생각한다. 이 육체의 질병에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한 내적 요인, 죄와 악한 영에

141)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341-42; 최홍석, 『인간론』, 204-06, 346; 김성환,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에 관한 연구: 하나님나라와의 연관성 중심으로,” 35-60, 43.

의한 영적 요인과 고령, 유해한 환경으로 인한 사회 환경적 요인, 원활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적응과 부조화에 따른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요인, 불균형한 편식, 영양부족 및 과잉, 과로, 수면부족, 무절제한 성생활,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있다. 또한 과음과 노동, 폭음, 자극적인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을 포함한 각종 중독과 세균감염, 유전자, 체질,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하는¹⁴²⁾ 요인이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은 정상적인 혈액순환, 면역기능을 포함한 생리기능에 특수한 증상을 동반한 문제가 생긴다. 이외에도 생명체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어기전으로 육체의 고통이 수반되는¹⁴³⁾ 경우도 있다.

많은 육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로 파악한 ‘주관적 건강상태’¹⁴⁴⁾ 조사에 잘 나타나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는 특별히 질병이나 질병을 처방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평가한 비율도 포함된다. 그 결과, 육체적 건강과 불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¹⁴⁵⁾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는 육(체)적 질병에 대한 걱정과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무수히도 많은 원인으로 인간의 고통에 관하여, 최근에는 상당수의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육(체)의 질병이 정서적 원인이나 그 외의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육체적 질병이 영적요인에 의한 결과인지, 정신, 정서장애의 결과인지 정확한 진단 후에 전문

142)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치유, 1994, 344; Andrew Weil, 『자연치유』, 22.

143) 전재규, 『통전적 치유와 건강』, 서울: 보문, 2001, 155.

144)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즉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한 것을 말한다. 이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객관적 지표로 측정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145)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2> 2020. 03. 24. 접속.

의료기술, 믿음치유, 자연치유, 원인치유, 예방치유, 면역치유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단, 육(체)의 치유에 관한 다양한 치유방안이 있는 가운데 육체의 치유를 위하여 피해야 할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 하나는, 현대 의학에 의한 진료와 처방적 치료행위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질병까지도 온전히 순응하여 믿는다는 명분으로 의료적인 서비스와 치료, 의약품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식과 기도로 치유를 바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고, 목숨까지도 앓아갔다. 존 Wimber는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을 권하였다.¹⁴⁶⁾ 육(체)적 치료에 있어서 질병이 일차적인 원인인 세균감염이나 외상일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을 통해 현대 의학 치료를 함으로써 치유의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입장은 무한한 신뢰로 현대 의학만을 따르고 믿는 태도이다. 현대에 와서 과학을 포함한 의학은 급속한 발전을 통하여 인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즉 치유과정에 있어서 의학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2002년 7월 24일, 미국 내과학회에서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의 연구결과로 ‘만성병에 걸린 83세 부인과 강력한 종교적 믿음’ 논문을 미국의학 협회보(JAMA)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연구를 통해 최초로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믿음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연구는¹⁴⁷⁾ 인간의 전인건강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치유라는 목표를 동일시할 때 신앙적 믿음과 현대의학의 새로운 협력을 알려주는 시도가 되었다.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정신, 영, 사회에

146)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223-31.

147) 김영준, 『전인치유』, 86.

영향을 주며 또 다른 질병을 발생시킨다. 육(체)적 질병의 영향력과 관계성에 대하여 존 터너(John Turner)는 육체적 질병의 50%는 영적,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온다¹⁴⁸⁾며 영, 혼, 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의 맥락에서 맥너트는 인간의 육(체)과 정신, 영의 건강 사이에는 깊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질병은 근심과 고뇌의 뿌리가 기도를 통해 제거될 때 깨끗이 사라진다고¹⁴⁹⁾ 전인연관성과 의학적 치료 이상의 치유방법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통합적 시각으로 인간을 전인으로 본 성경¹⁵⁰⁾에서 육(체)의 치유는 전인적 대속과 구원의 필수적인 한 부분임을¹⁵¹⁾ 알 수 있다. 이를 떼면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은 ‘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영적인 문제가 다른 영역들에게 영향을 끼치고¹⁵²⁾ 관여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육(체)의 치유는 몸이 질병의 상태에서 변화되고 회복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즉각적인 치유를 하셨지만,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 제거 후 회복되는 과정을 보이시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하신 이유는 모든 육체의 질병치유 후에 믿음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 회개, 삶과 사고 전환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회복과 정의 노력이 후속처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질병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은 재발된다. 결국, 육의 질병은 죄인인

148) Turner John,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치유하는 교회: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회의 비결』, 서울: 광림, 1984, 28. 존 터너는 감리교회 회장을 지낸 감리교 목사이며 ‘심리적, 영적치유’로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강사이다. 그의 첫 저서로 『치유하는 교회』가 있다.

149) Francis. Macnutt, 『치유의 능력』, 78.

150) 살전5:23 참고.

151) 조용기, 『신유론』, 서울: 말씀사, 2001, 70-71;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서울: 말씀사, 2017, 10-16; Francis Macnutt, *Healing*, 변진석 역, 『치유』, 서울: 무실, 1992, 202-03. 로마 가톨릭에서 치유에 관해 지배적인 권위를 갖는 프란시스 맥너트는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질병 유형을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질병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 유형은 영의 질병, 감정(정서)의 질병, 육체의 질병으로, 이것들은 귀신의 억압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다.

152) 박행렬, 『기독교인을 위한 전인치유사역』, 26.

인간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며 풍성케 하는 계기를¹⁵³⁾ 제공한다.

기독교에서 치유는 신체의 병이 나음 그 이상¹⁵⁴⁾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건강의 힘은 인간육체 안에서 치유의 힘으로 작용한다. 육체의 치유를 통한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죄의 문제를 지적하셨다.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언급보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질병과 죄의 문제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또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육(체)적인 질병과 죄의 밀접한 관계에서 육과 영의 높은 관련도를 유추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을 잃게 되고 불안, 공포, 초조 등의 감정을 통한 육적 질환이 생기게 된다는 의학적 증명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는 성경의 시각과¹⁵⁵⁾ 상통한다. 곧,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육(체)의 치유는 예수의 사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나님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도구로써 인간의 온전한 건강을 위한 전인치유 가운데 육적 치유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다.

2. 혼(정신)적 측면에서의 치유

우리나라 원인별 사망률 추이에 관한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자살률은 2018년도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¹⁵⁶⁾하였다. 자살률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깊다. 물론 자살의 원인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 기준이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생각에서

153) Thoman C. Oden, *Pastoral Theology*, 이기춘 역, 『목회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362.

154) Andrew, Weil, 『자연치유』, 22.

155) 황수관, 『예수 건강 영생의 길』, 서울: 너와나미디어, 2003, 89.

156)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 2020. 03. 24. 접속.

기인된다는 점에서 자살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자살률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크게 늘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였다. 2018년 현재 자살률이 26.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¹⁵⁷⁾으로 집계되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주원인으로 인간 육체 내에 이루어진 면역체계와의 연관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면역체계를 통한 몸의 활성화에 따라 건강유지도는 달라진다. 이 면역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두려움, 공포, 질투, 분노, 걱정, 자기중심, 욕심, 강박관념, 열등감, 의심과 불신, 완벽주의¹⁵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은 스스로의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¹⁵⁹⁾는 실제로 부정적 감정과 면역체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한국의 객관적 건강 지표인 기대수명¹⁶⁰⁾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OECD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객관적 건강상태는 서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낮은 결과¹⁶¹⁾가 도출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성과 편리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도 초래했다.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면 인간의 타락한 감정과 사고, 즉 불안, 초조, 시기, 질투, 미움, 증오에 사로잡혀

157)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40>, 2020. 03. 24. 접속.

158)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136.

159) 통계청 사회조사로 파악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160)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6>, 2020. 03. 24. 접속.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평균수명, 0세 기대수명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령별 사망률 통계로 산출한 것이다.

161)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2>, 2020. 03. 24. 접속.

정상적이고, 온전한 정신을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로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본인 외의 또 다른 타인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인간이 겪는 질병 발생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정신(마음)으로 인한 질병이다. 이는 외적요소인 타인과 내적요소인 과거 상황에 따른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한 상처(트라우마; Trauma)¹⁶²⁾에서 기인한다. 당시 경험에 의한 충격과 아픔은 내적인 상처들이 되어 치유를 통한 회복이 되기 전까지 신체적인 질병이나 몸의 내부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내면의 감정에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자극은 지성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지성이 감정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 원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잠언 17장 22절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걱정, 염려 등의 심적 영향력이 육(체)에 미치게 되어 그에 따른 질병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인 상처(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상담학 용어이자 사회복지학 용어로 사용되는 정신신체증(psychosomatic, 心身症)¹⁶³⁾은 마음과 몸의 유기적 관계를 잘 알려준다. 정신신체증은, 정신적, 감정적, 심적 원인에서 생기는 신체 증상을 가졌다¹⁶⁴⁾는 뜻이며,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관계성을 거론할 때에 정신신체적 반응(Psychosomatic Reaction)이라는 말을 사용¹⁶⁵⁾할 정도로 인간의 육과 혼(정신)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신신체증은 근육통, 두통, 과민성 대장증상, 비 궤양성 소화불량, 만

16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IV. 4th ed*, 이근후 외 14 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서울: 하나, 1995. 영미권에서 ‘트라우마’는 물리적 외상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SM-IV*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상처는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실제적, 위협적 죽음 혹은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직면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163) 상담학, 사회복지학, 의학에서 동일,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164) 이우주, 『이우주 의학사전』, 경기: 군자, 2012.

165) Russell L. Disks, *Toward Health and Wholeness*, New York: MacMillan, 1960, 3.

성피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불안, 공포,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별한 병리적 원인이 없어도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거나 기능적 이상을 경험하는¹⁶⁶⁾ 것이다. 이 또한 정신적 질병이 육체와 영적인 고통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 준다.

정신적 질병은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각종 피부병과 두통, 기억력 상실, 폭식 또는 식욕부진, 자신감 상실,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정신질환과 암을 유발¹⁶⁷⁾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자기중심적이고 강한 의존성은 여러 가지의 형태인 죄, 우울, 무가치함,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도피, 각종 중독, 부정적 사고, 도덕적 관념 상실, 신앙생활의 무미건조함과 피해의식 등의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영국의 의사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Lloyd Jones)는 치유에 대하여 정서적, 심리적인 질병이 해방되고 동시에 정서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¹⁶⁸⁾이라며 혼적 치유의 영역을 넓혔다. 맥너트는 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안에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공동체 내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¹⁶⁹⁾며 이 영역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¹⁷⁰⁾ 강조하였다.

타락한 인간의 정신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다. 이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혼의 질병을 유발하여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의 정신을 치유¹⁷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창조물인 인간존재를 바르게 인식해야

166) 김춘경 공저, 『상담학사전 이상심리 편』, 서울: 학지사, 2016;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167) 주광석, 이준남, 『21세기 전인치유사역』, 서울: 침례신문사, 2001, 121.

168) Martyn, Lloyd Jones, *Healing and medicine*, 정득실 역,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6, 164-66.

169) Francis. Macnutt, 『치유』, 231.

170) 같은 곳.

171) Larry Crabb,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2011, 209.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기(사61:1, 눅 4:18)”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상한 감정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회복¹⁷²⁾될 것이다.

3. 영적 측면에서의 치유

Marquette University 간호대학 부교수 형겔만(Joann Hungelmann)에게 있어서 인간은 정신과 신체를 포함하며 타인과 자연,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타자와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영적 존재¹⁷³⁾이다. 인간의 영과 육의 문제를 구분하여 생각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의료, 간호와 연관된 교육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각 나라의 건강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는 건강의 정의에 영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정상(well-being)인 상태”이다. 인간의 건강이라는 범주에 영적인 부분을 포함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육체, 정신, 영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통일된 연합체(integrated unity or unified whole)로서 모든 인간은 육(체)적, 혼(정신)적,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기¹⁷⁴⁾ 때문이다. 인간의 영적 부분에 대하여 아론슨(Aaronson)과 벡맨(Beckmann)¹⁷⁵⁾은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개인생활과 정신

172) Tom Marshall, *Free indeed*, 예수전도단 역, 『자유케 된 자아』, 서울: 예수전도단, 2018, 85.

173) Hungelmann, Joann, et al, “Spiritual Well-being in older adults; Harmonious interconnectednes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24, No. 2, 1985.

174)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 요단, 1999, 13.

175) Aaronson, N. K., and Beckmann, J, *The quality of life cancer patients*, New York: Raven Press, 1987.

적 지지의 유지, 사고에 의한 굳은 신념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히아트(Hiatt)가 한 인간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영적 차원이 모든 사람의 세계관과 건강한 관념 등의 시각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국내 김효빈의 ‘암 환자의 성경과 기도를 통한 방법에 따른 연구’는 영적 중재가 통증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내용¹⁷⁶⁾을 포함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영적 건강에 따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근거로 인간 삶에 있어서 영적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인 영적부분에서의 건강에 대해 연세대학교 유영권교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발견하고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위기 상황에 대하여 일관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추월하는 능력을 소유한 상태”¹⁷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교헌¹⁷⁸⁾은 영적건강에 대하여 제한된 개체의 실존을 넘어서 ‘영원’ 및 ‘무한’과 연결하려는 노력에 해당하고, 우리의 존재와 행위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¹⁷⁹⁾이라 했다.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질병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비롯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사고이자 내적, 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발언이다. 더 나아가 건강 범주 안에서 영적 부분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을 보면, 인간의 건강추구는 의료가 속한 과학은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영적 부분과 밀접한 종교와도 깊은 연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영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될 수 있

176) 민소영, “암환자의 영적건강 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Health & Nursing』, Vol. 7, 1995, 127-42.

177) 유영권, “전인치유의 총체적 모델,” 『신학논단』 Vol. 28, 2000, 323.

178) https://www.gnppcnu.org/new/sub02/sub02_0201n.php, 2020. 03.24. 접속. <http://cnupsy.ezshosting.com/sub1/menu4.php>, 2020. 03.24. 접속.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교수이다.

179) 김교헌, “전인적 건강과 시스템 이론,” 『사회과학연구』 Vol. 10, 1999, 59.

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영적 질병의 원인은 이해를 돕는다.

영적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곧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적질병은 외적으로 자기 의지, 정욕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힐(Stephen Hill)은 “불순종은 질병을 가져오고 순종은 치유하게 한다.”고¹⁸⁰⁾ 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깨어지면서 영적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은 우리의 정서와 인간관계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혼적, 육적인 질병까지¹⁸¹⁾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질병은 환경에 의한 질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영, 혼, 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근본 치유, 곧 영적치유가 선행되어야 한다.¹⁸²⁾ 즉, 영적치유는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¹⁸³⁾으로서,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뜻한다.

전인치유의 기초가 되는 영적치유의 결과는, 화해와 조화를 비롯하여 구원과 동일한 은혜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타인과의 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적 건강을¹⁸⁴⁾ 가져온다. 단, 영적치유가 오직 과정 및 결과에 따라서만 단순히 표현되거나, 행동 또는 태도 변화만을¹⁸⁵⁾ 의미하지는 않는다. GFI(Grace Fellowship International)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찰스 솔로몬(Charles R. Solomon)은 영적치유를 단순한 행동이나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로 보지 않고, 완전히 변화된 삶의 의미¹⁸⁶⁾로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은 구체적으로 바울의 신학에 나타나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¹⁸⁷⁾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성령의 통치권에

180) Stephen Hill, *Healing is Yours*, Harrison: New Leaf Press, 1965, 11.

181) John Wimber, Kevin, Springer, 『능력치유』, 129.

182) 위의 책, 114.

183) 같은 곳.

184)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 서울: 목양, 2010, 135.

185) Charles R. Solomon, *Spirituootherapy*, 김우생 역, 『영적 치유의 핵심』, 서울: 나침반, 2001, 109.

186) 같은 곳.

187)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1, 662.

속한 온전한 영적 자유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로부터 인간을 고치시며, 파괴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전인치유를 통한 전인적 구원사역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전인치유의 목적은 육(체)적, 정신(혼)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인치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영적치유가 혼적, 육(체)적 치유와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치유로 확산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하기 때문이다.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구원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와해된 것을 성하게 만들어 주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치료”라고 하였을 때¹⁸⁸⁾ 인간의 온전한 전인치유의 중심은 구원에 있다. 인간의 치유와 구원의 관계에 대하여 투르니에는 영, 혼, 육의 합일로 이뤄지는 치유는 구원과 연합된 상태¹⁸⁹⁾라고 하였다. 이는 영적인 문제를 우선시 한다는 중요성과 동시에 인간의 궁극적인 치유는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원은 치유 자체이자, 치유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¹⁹⁰⁾하는 것이다.

이상, 전인치유의 분야인 육(체)적, 혼(정신)적, 영적 치유를 알아봄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 및 선교에서 전인의 관점으로 치유의 목적을 통전적인 이해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인치유의 성취는 일회적인 동시에 삶의 전반적인 과정이라는 광범위한 이해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전인치유의 시작에서 인간의 의지는 관련이 깊다. 이를 보면, 인간의 나약한 의지는 이 자체가 질병으로 타락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로부터 죄를 확대, 반복하는 속성을 지닌다. 반대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건강을 회복하려는 용

188)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275-85.

189) Tournier Paul, 『성서와 의학』, 291.

190) Norma Dearing, *The Healing Touch*, 박홍래 역, 『힐링터치』, 서울: 서로사랑, 2003, 35.

기와 의지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켜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간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나약한 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케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모든 인간은 믿어야¹⁹¹⁾ 한다.

결론적으로 전인치유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근거하여, 인간을 통전적이고 유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전인치유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영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직, 간접적인 개입이자 자연적, 초자연적 기적임과 동시에 인간을 향한 온전한 고치심을 의미¹⁹²⁾한다. 그 대상은 모든 인간이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필수이자 그 자체의 특성을 지닌 전인치유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C. 전인치유의 역사적 근거

기독교는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로마로 퍼져나가면서 강력한 영적 집단이 되었다. 특히 사도행전의 치유 사건들을 보면 인간을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 있다. 과거 초대교회는 전체가 성령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¹⁹³⁾였기 때문에 당시 초자연적인 치유가 영적 선물(spiritual gifts)로 인식되었고, 전인치유를 비롯한 예언이나 방언을 기이하게 보기보다는 보편적인 현상¹⁹⁴⁾으로 보았다.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모든 인간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중

191) Tom Marshall, 『자유케 된 자아』, 248.

192) John Wimber, Springer, Kevin, 『능력치유』, 34-38.

193) Kenneth L. Bakken, Hofeller, Kathleen H, *The Journey Toward Wholeness*, New York.: Crossroad, 1988, 14.

194) Allan Anderson, 『땅끝까지』, 53.

요한 의미로 존재했다.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의미는 1세기의 예배 의식이나 성만찬에 내포되어 있었고, 이러한 종교적 체험들은 기독교를 향한 시대적 박해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사도 시대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체험에 대한 인식과 결과로서의 경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성경의 말씀과 교리가 그 주축을 이루면서 전인치유에 대한 시각이 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치유는 각 시대에서 잡초와 같은 근성으로 그 존재의 끈을 이어왔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치유의 근본적인 성격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목회, 선교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으로 전인치유의 근거를 연구하는 데 기본적 도움이 된다.

1. 고대(ancient times) 교부시대의 치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치유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등에서 일어났다. 당시 로마 네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37-68)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오히려 선교의 열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시켰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갈망을 가져다¹⁹⁵⁾ 주었다.

2-3세기의 교회 내에서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들린 자들이 놓임을 받아 자유케 되는 치유사역이 이미 널리 용인되었다는 사실은 『헤르마스의 목자』 *Shepherd of Hermas*나 퀴드라투스(Quadratus)의 글을 비롯하여¹⁹⁶⁾ 여러 자료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자료에서 고울(Gaul)의 감독이자 육체의 존재를 폄하하고 물질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영지주의 비판자, 이레니우스(Irenaeus, 130-202)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안수를 통하여 치유

195) 배본철, 『성령, 일치, 선교, 세계교회사』, 서울: 영성네트워크, 2009, 67.

196)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141-67.

가 되는 일들이 기록¹⁹⁷⁾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스틴(Justin Marter, 100-165)은 『변증』 제2권 6장 5절 이하에서 본인이 존재했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곳곳에서 기술을 부리던 마술사들도 고치지 못한 귀신들린 사람들이 많은 고침을 받았다고¹⁹⁸⁾ 증언한다. 그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며, 사도시대가 끝난 후에도 능력 행함을 포함한 치유와 같은 은사들이 계속 되었다.”¹⁹⁹⁾며 사도시대를 지나 고대 교부시대에도 이루어진 치유를 영적인 은사로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레니우스, 터툴리안(Tertallian, 155-240)²⁰⁰⁾과 같은 여러 교부들을 통해 2-3세기까지 행해졌던 치유는 더욱 발전하였다. 당시 성령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함께 주어졌다. 이블린 프로스트(Evelyn Frost)가 *Christian Healing*에서 사도시대의 활발했던 치유사역이 교부시대로 계승되었다고 기록한 것처럼 치유사역은 활발하게 지속되었다.²⁰¹⁾ 동, 서방 교회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질병이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축출한다고²⁰²⁾ 믿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인치유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은사로 부어짐으로 이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

197) Allan Anderson, 『땅끝까지』, 55.

198) Scherzer, Carl J. *The Church and Heal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0, 35.
특히 저스틴은 그의 저서인 *The First Apology, On the Resurrection, The second Epistle Cloment* 에서 치유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199) Vincent Edmu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s on Faith Healing*, London: The Tyndale Press, 1956, 33.

200) Morton. Kelsey, 『치유와 기독교』, 143. 터툴리안의 저서 *To Scapla*를 보면 그는 어떠한 계급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추방되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저서인 『육신의 부활에 관해서』에서는 예수 부활의 치유능력을 믿었다.

201)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36; Evelyn Frost, *Christian Healing: a Consideration of the Place of Spiritual Healing in the Church of Today in the Light of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the AnteNicene Church*, London: Mowbray, 1954 참고.

202) 위의 책, 237-38.

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현실적으로 직시한 오리겐(Origen of Alexandria, 185-254)²⁰³⁾의 기록과 암브로스(ST. Ambrose, 340-397)의 저서 *On the Holy Spirit*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부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존재했던 인식임을²⁰⁴⁾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전인치유가 활발히 일어났고, 그 능력을 인정한 교부, 바실리우스(Basilus the Great, 330-379)²⁰⁵⁾,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yssenus, 335-394)²⁰⁶⁾는 이론적으로도 치유를 신학에 포함시킬 정도로 하나님 능력으로서의 전인치유를 신학적, 현실적으로 인정²⁰⁷⁾하였다.

실상,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행했던 전인적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부 가운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²⁰⁸⁾ 인식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그러나 다음의 글을 통해 치유를 일상으로 삼았던 영적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3) Scherzer, Carl J, *The Church and Healing*, 35. 오리겐은 그의 저서 『원리론』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의 논문인 ‘켈수스 논박 (Against Celsus vol 3, chapter 24)’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치유 및 귀신축출을 기록하였다. 그는 귀신을 축출하고 질병을 낫게 하며 인간 마음에 내제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 치유능력을 아스클레피우스(Aesculapius; 신화에서 의학과 치료의 신)의 가르침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204) John Wimber, *A Brief Sketch Of Signs and Wonders through out the Church Age*,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 1984.

205) 그리스의 그리스도교 종교가이자 카파도키아의 3대 교부이다. 교회통합에 주력한 설교자이자 수도생활의 아버지로 불렸다. 철학, 천문술, 기하학, 의술 등에 관한 지식이 깊었던 그는 교회, 병원 등의 복지시설을 세워 사회활동을 행했다. 다수의 저작이 있지만 그 중 『성령론』이 유명하다.

206)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로서 그리스 교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저작 『신학적 웅변』 *Theological Orations*를 통해 삼위일체설 확립에 공헌한 만인구제론적(萬人救濟論的)인 신앙을 가진 명성 있는 신학자이다.

207)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41.

208) 정태기, “기독교 치유목회의 흐름에 관한 연구,” 『신학연구』 Vol. 38, 1997, 423.

초기교회는 특별한 치유 공동체였다. 당시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우스(Aesculapius)²⁰⁹⁾의 신전에 가듯이 교회에 갔으며, 종종 치유를 받았다. 하나님의 치유목회는 2-3세기를 통해 계속되었으나, 4세기에 들어와서는 점점 식어지게 된다. 그 이유는 주의 명령이 철회되거나 사도들의 죽음으로 치유사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함으로 교회 내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거나 약해졌기 때문이다.²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인치유의 역사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속성을 잃지 않았다. 이는 약 천년 가량 서방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어거스틴(Augustine, 354-430)²¹¹⁾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를 통해 알 수 있다. 어거스틴은 당시 일어났던 전인치유의 구체적인 설명과 이에 따른 증거를 기재함으로 치유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갔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많은 치유를 행하신다. 우리는 이를 통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로써 치유를 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해야 한다.²¹²⁾

어거스틴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자세가 전인치유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전인치유는 어거스틴의 생애후기에 이르러 초대교회와 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전인치유에 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교부시대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기독교 사상을 지도하는 대

209) 그리스 로마신화 속 등장하는 의약, 의술의 신이다.

210)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36.

211)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 조호연, 김중흡 역, 『하나님의 도성』, 서울: 은성, 2007, 445; George Matin, *Healing: reflections on the Gospel*, 이재범 역, 『예수님의 치유』, 서울: 보이스사, 1995, 43.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70여 건의 치유사례를 언급하였다.

212) Saint Augustine, 『하나님의 도성』, 1092-96.

표적 변증가들도 전인치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영적인 힘의 증거²¹³⁾라고 생각했다. 세대주의의 근본주의, 플라톤의 이원론을 벗어나 교부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전인치유는 고대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을 극복하게 한 강력한 능력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다.

2. 중세 시대(Medieval Age)의 치유

영적 암흑기였던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의 교회는 현실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에 초점이 맞추던 과거와 달리, 인간의 영혼에 관한 죄와 이에 대한 용서에 관심을 맞추었다. 그 결과, 현세의 삶보다는 죽음 후에 맞이할 새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육(체)적인 치유의 반대 입장에서 의술 행위에 큰 저항을 가져왔다. 더 나아가 법적금지과 핍박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베데(Bede)²¹⁴⁾나 아시시의 프란시스(Francis of Assisi)²¹⁵⁾ 등 초기신학자들이 공통된 치유경험을 기반으로 치유사역을 이루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의 현현으로서 치유가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입장이 강했던 신학적 흐름은 중세 중반에 들어오면서 신학적인 틀 안에서 치유가 배격되는 데 강한 영향력을 가했다. 이를테면 제롬(Jerome)은 치유를 상징화하여 사람들이 교회

213) Morton. Kelsey, 『치유와 기독교』, 136.

214) 베데의 저서인 *Ecclesiastical History of England*, Vol. 1, 13-15에는 소경과 병어리의 치유, 소녀와 성인여종 등의 치유 기적이 소개되어 있다.

215) 류기중, 『기독교 영성』, 서울: 은성출판사, 1997, 121; Richard J. Foster, *Streams of Living Water*, 박조앤 역, 『생수의 강』, 서울: 두란노, 2000, 154; Allan Anderson, 『땅끝까지』, 59. 성 프란시스는 21세 때 자신이 중병에서 치유 받고 살아난 경험이 있다. 헤르만(Hermann)에 의하면 성 프란시스는 절름발이, 중풍병자, 나병, 귀신들려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였다. 이같은 치유 경험은 그의 삶에서 무한하다. 그의 제자이자 작가인 보나벤투라(Bonaventure) 또한 치유사역을 기록하였다.

의 관심으로부터 멀리하도록 노력하였고, 그레고리오대교황(Gregorius Magnus)은 모든 인간이 겪는 질병의 원인은 인간의 죄이고, 질병 자체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죄의 징벌이자 죄에 따른 대가, 즉 채찍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당시 사제들이 병자를 심방할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은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치유보다는, 당연히 인간 죄에 대한 용서에 초점을 맞춘 것은²¹⁶⁾ 극히 흔한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른 영향력은 결국 과거에서부터 이어오던 전인치유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켰다. 그 결과, 인간의 육(체)적 치유의 금지와 영적 치유만을 강조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그레고리오대교황의 사망 이후, 로마 제국의 쇠망이라는 현실은 그레고리오대교황의 치유에 관한 시각을 더욱 잘 받아들이는 현상을 만들었다. 특히 그레고리오대교황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서방교회에서는 현실적 치유의 중요성이 외면되었고, 치유에 대한 관심의 방향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평안을 바라는 의식으로 설정²¹⁷⁾되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왈도파(Waldensians)²¹⁸⁾가, 전인치유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발현을 중요시 여겼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전인치유의 역사가 침체를 보이다가도 상황과 시기의 변화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전인치유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에 하강세가 나타났고, 12세기 초에는 치유와 의술의 사용 거부로 인하여 육체의 치유가 또다시 금지되는 반복을 재차 거듭하였다.

특히 11세기 이후, 전인치유에 대한 인식은 회랍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증명 철학을 통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 발단은 가시

216) Morton. Kelsey, 『치유와 기독교』, 210-11.

217) 이기춘, “기독교 치유와 영성,” 『기독교사상』 352호, 1988, 4, 76-77.

218) 이용규, 『한국교회와 신유운동』, 서울: 쿤란, 2006, 41-43; 김현진, “공동체와 선교: 균형 잡힌 선교 방식의 필요성,” 『한국개혁신학』 Vol. 39, 2013, 13. 중세기 왈도파 운동은 복음에 대한 전도자적 순종, 엄격한 금욕주의, 가치 없는 사제들의 사역에 대한 혐오, 환상, 예언, 영적인 황홀경을 믿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원초적인 신앙과 사도적인 단순성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 김현진은 이 운동을 일종의 기독교 증거의 통로로 보았다.

적으로 확인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진정한 진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일부를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아퀴나스²¹⁹⁾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지성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능이나 자연 질서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은 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치유의 여러 과정과 요소를 다양한 유비(analogy)로²²⁰⁾ 보았다. 특히 아퀴나스와 제자들이 저술한 신학대전인 *Summa Theologica* 제 3(III)부에는 예수의 기적이 인간에게 예수의 교훈 증명과 그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났다고²²¹⁾ 본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치유는 인간의 교육을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육체보다는 인간의 영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하기 보다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인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정의했고, 당연히 이들에게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따른 능력인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인치유를 향한 사고체계와 전반적인 시각에만 집중하면 마치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가 사라지는 것²²²⁾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성자들의 생애 및 유적과 유골, 특별한 성지 등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능력을 신봉했고, 그런 신비주의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또 다른 시각에서 전인치유를 받아들였다는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아시시의 프랜시스(Francis)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일으켰다는 것과²²³⁾ 파울라의 프랜시스(Francis of Paula)²²⁴⁾, 대수도원장이었던

219) Kenneth L. Bakken, *The Journey Toward Wholeness*, 20. 아퀴나스의 신학은 중세 교회 기틀로서 최대의 신학사상을 확립시켰다.

220) Thomas Aquinas, *The Summa Theologica*,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52, I, 13.2, 5, 6, 16.6, 57.3, 62.4, 87.2, 17.1; II-I, 5.5, 8.3, 9.4, 12.3, 19.8, 33.4, 87.6, 101.3, 109.5; II-II, 1.1, 20.1, 24.10, 27.3, 6; III, 15.6, 60.1.

221) Morton. Kelsey, *Healing and Christianity*, 213-15.

222) 위의 책, 205.

223) 프랜시스는 자신 스스로가 치유를 일으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치유 은사 사용을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리지트(Bridget)²²⁵⁾를 비롯하여 제네비베(Genevieve), 카를로 보로메오(Carlo Borromeo), 패트릭(Patrick), 커트벌트(Cuthbert), 빈센트 페리어(Vincent Ferrer)등과 같은 성자들의 기록은 전인치유의 역사적 연속성을 반영하고 있으며²²⁶⁾ 이는 곧 초자연적인 전인치유의 역사를 증명한다.

3. 근대 시대(Modern Age)의 치유

16세기 초,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계몽사상을 기반으로 수학, 철학, 물리학, 신학이 발전하면서 다수의 이론들이 전인치유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개신교는 이전에 타락한 교회들을 대적하며 오직 믿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 신을 강조하면서 개인 신앙은 자율적인 인간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더불어 자연과학의 발달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 즉 기존과는 달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인식과 사고체계를 근대적인 자율적 이성을 가진 인간²²⁷⁾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이성과 논리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던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사고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조차도 기계론적 시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같은 사고는 인간영, 혼, 육의 유기적, 상호적인 관계성을 거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영적 세계의 존재와 영향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으로 학계와 교회에 큰 영향을²²⁸⁾ 미쳤다.

하나님나라에 대해 설교하던 중, 몸이 약하고 다리를 저는 외아들을 둔 군인의 간절한 간구로 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그 아들은 치유를 받아 회복되어 걷게 되었다. 또 한 사례로는 중풍 걸린 사람에게 안수기도 후, 치유되어 건강을 되찾았다.

224) 파울라의 프랜시스(Francis of Paula)는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병어리에게 육(체)적 치유를 일으켰고, 죽은 사람을 소생하게 하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성자로 불렸다.

225) 맹인이었던 달리아(Daria)와 두 문둥병자는 브리지트(Bridget)의 기도를 통해 치유되었다.

226) 이용규, 『한국교회와 신유운동』, 41-43.

227) 김광재, 『근세/현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8.

228) Robert Irving Watson, *The Great Psychologists from Aristotle to Freud*, New York: Lippincott, 1963, 72.

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인치유의 능력은 존재하였다.

하나님의 존재인식에 대하여 논리로 접근했던 루터는 사역 초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기적이나 계시를 비롯한 전인적 치유가 불필요하다고 보았고, 치유 기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책략이라고 생각했기²²⁹⁾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루터는 치유를 위한 기도와 치유에 관한 성구를 자주 인용하면서 본인이 몸소 치유를 경험하였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으로 비로소 루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치유를 인정²³⁰⁾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전인치유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이 치유는 때와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루터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하여 목회에서 치유는 핵심이라고²³¹⁾ 생각할 정도로 치유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존 칼빈(John Calvin)은 초기 루터의 견해와 일맥을 이룬다. 칼빈은 치유를 통한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하였는데 하나님의 치유를 통한 기적의 능력보다는 말씀을 통한 복음의 선포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사도가 시행하였던 기름 바르는 의식(anointing)과 권능은 그 시대에 위임되지 않는다고²³²⁾ 보았다. 그러나 칼빈의 주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치유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통한 설명이 불가능²³³⁾했다. 그는 그의 저작인 『기독교 강요

229) Martin Luther,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367.

230) Adoniram Judson Gordon, *The Ministry of Healing*, Harrisburg & Christian Publication, Inc, 1961, 92; 이훈구, 『성경적 치유사역』, 서울: 백함미디어, 2003, 48;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김태수 역, 『성서와 치유: 치유에 관한 의학적 신학적 주석』,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494.

231) Walter Wink, *Unmasking the Powers: the invisible forces that determine human existence*,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6, 178. 당시 신교도들은 예수의 치유 기적은 그 시대에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현대교인에게는 이적, 기적, 치유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생활을 향한 이들의 사고는 전인치유의 중요성과 감정 체험을 지나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232) Joh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8.

(綱要)』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을 통하여 병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가 일어나는 행위, 병이 고쳐지는 행위 등의 치유가 예수를 믿게 하는 도구로서의 상징일 뿐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치유를 향하여 그는 죄인인 인간존재의 영혼구원에 대한 강조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치유를 실재적이고 체험적 신앙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전인치유에 관한 사회의 전반적인 신학적 사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왈도파, 모라비안(Moravians) 교부들, 독일의 경건주의자(pietist)들과 영국의 침례교도들, 퀘이커(Quakers) 교도들, 스코틀랜드의 계약교도들을 비롯하여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존 웨슬리(John Wesley) 등²³⁴⁾ 복음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인치유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Methodist Revival)을 일으킨 존 웨슬리²³⁵⁾는 여러 번의 성령 체험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행해졌던 복음 선포의 형식을 바꾼다. 그 후로는 전인치유가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전해지고, 경험하게 하였는데 이를테면 그는 장외 집회를 열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웨슬리는 치유 역사의 지속성을 확신하였다. 더불어 웨슬리가 하나님의 전인치유 능력을 경험한 후 치유를 통한 회복에 대한 간증은,²³⁶⁾ 그가 개인의 육체적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함과 동시에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대교회 이래,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과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성경에 나타났던 전인치유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전인치유를 이루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단순히 기도로만 제한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구약 외경 중 시락(Sirach)의 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당시 하

233)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50.

234) 위의 책, 251.

235) 모라비안 교의 영향을 받은 웨슬리는 *Primitive Medicine*을 저술하였다. 그의 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웨슬리는 의학과 기독교신앙을 병행하여 육체 치료를 행했다.

236) John. Wesley, *The Journal of John Wesley*, 김영운 역, 『존 웨슬리의 일기』, 경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9, 145-46.

나눔 능력과 의학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의사들을 양성하라. 그들도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들이다. 의사들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을 만들어내셨으니, 지각력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라. 나무의 물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업적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²³⁷⁾

모든 세기동안에 전인치유가 이루어져 온 교회는, 단적으로 기도를 통한 치유만을 의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일부이자 계획의 일부로 약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의사의 도움도²³⁸⁾ 받았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지성인들의 전인치유에 대한 체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치유의 역사는 시대적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사상적 흐름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등은 인간 자체를 고차원적인 세계의 해방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리고 헤겔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철학자 후설(Edmund Husserl)도 인간은 지적인 분석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철학의 기초를 세웠다. 뒤를 이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야스퍼스(Karl Jaspers), 마르셀(Gabriel Marcel) 등과 같은 학자들을 통하여 실존주의 철학 사상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초인간적인 능력과 실재에 대하여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전인치유는 이해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고라고²³⁹⁾ 보았다. 이와 같은 합리주의적 사상을 비롯하여 역사 비평학, 자유주의 성서비평운동으로 전인치유는 신학 안에서 소외될 수

237) Sirach 38:1-8.

238) Vinson Synan, “영산 조용기 목사의 치유신학의 뿌리,” 『영산신학저널』 Vol. 3, No. 2, 2006, 7-37.

239) Morton Kelsey, *Healing and Christianity*, 314.

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인치유는 지속되었지만, 신학적 바탕을 근거로 한 구원의 본질이기 보다는 하나의 현상적인 카리스마 운동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인치유가 존 웨슬리를 비롯하여 감리교도였던 휴 본(Hugh Bourne), 윌리엄 클로우스(William Clowes)의 장외 집회를²⁴⁰⁾ 통하여 활발하게 행해짐에 따라 점차 크루세이드(Crusade)²⁴¹⁾로 발전하였고, 교회 밖의 복음 전도 집회 형식으로 오순절 운동의 전통과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시초가 되었다.²⁴²⁾ 전인치유는 오순절 운동 속에서 복음을 통한 회심과 개종을 동반하였는데, 전인치유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령운동을 함께 알아보는 것은 전인치유 역사의 질적인 깊이와 이해를 더해준다.

미국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 18세기 중엽에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 Movement)은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²⁴³⁾로부터 시작되었다. 조나단의 개인적인 성령체험을 통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개인의 회심과 하나님의 징계, 기도가 강조되었다. 당시 신앙적 체험과 확신을 중요시 여긴 조나단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회심하고 전인치유를 체험하는 경우가²⁴⁴⁾ 많이 일어났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요 인물인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²⁴⁵⁾는

240) 수많은 이적이 행해졌던 장외집회로 인해 이들은 ‘마술을 부리는 감리교도들(Magic Methodists)’이라는 호칭이 생겼으며 이를 시작으로 원시감리교(the Primitive Methodists)가 탄생하였다.

241) 본래 십자군을 의미하지만, 미국 복음주의자들을 시작으로 생겨난 이 말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중 집회를 통한 복음전도운동을 가리킨다.

242) 김호환, 『카리스마와 영성』,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134-35

243) 신학자이자 철학자,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이다. 그리고 미국 신앙부흥운동의 지도자이다. 그는 미국 식민지 공통의 정신적 연대를 구축시켰고, 회심을 강조했으며 종교적 감정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신앙의 구체적 측면과 회심 경험을 필수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의 저서 *Some Thoughts Concerning the Present Revival* 과 논문 “Religious Affection”은 대각성운동의 본질이 정립되어있다.

244) 이훈구, 『성경적 치유사역』, 51.

245) 영국 성공회 사제이자 신학자, 설교자, 복음 전도자이다. 조지 휫필드는 중병에서 치유되는 개인 체험을 통해 회심한 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 한 평생, 아동보육 및 구제 사업을 비롯하여 복음 전도에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다.

미국의 전역을 다니며²⁴⁶⁾ 설교하였다. 당시 많은 회중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곳이 집회 장소가 되었다. 조지 헛필드가 가는 곳마다 일으켰던 성령을 통한 치유의 역사를 본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군중에게 임했다”²⁴⁷⁾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 집회에서 성령의 치유를 통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 1차 대각성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개종함과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 신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던 전인치유적 성령 운동이었다.

2차 대각성 운동(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²⁴⁸⁾은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²⁴⁹⁾에서 시작되었다. 감정을 중시하는 반 지성주의 성격의 이 운동은 현상적으로는 1차 각성 운동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장외에서 이루어졌던 예배집회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고함을 지르며 행해졌다. 성령의 체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집회 자체를 고난 속에 위로를 얻는 장소라고 생각했고 집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속이 후련해지고 열정이 생기는 전인치유가 일어났다. 성령의 체험을 통한 회심 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던 찰스 피니의 집회는 특히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회심하고, 개종하여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높은 복음률을 보였다. 피니의 집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100,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피니는 집회 때마다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 가운데 성령세례(baptism in Holy Spirit)²⁵⁰⁾를 증언하였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후에

246) Wesley Duewel, *Revival Fire*, 안보현 역,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69-81.

247) 위의 책, 71-72.

248) 1787-1825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운동이다. 선교를 강조했던 이 운동은 많은 성도, 목회자들을 헌신하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선교를 자원하게 하는 영향력을 펼쳤다.

249) 영적 대 각성운동을 일으킨 주요 인물이다. 집회에서 100,000명을 회심한 성령의 도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집회에서 회심한 후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이 100명 중 85명이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훗날 그는 대학을 설립하여 후학을 복음 사역자로 양성하는데 힘썼다. 저서는 *Systematic Theology*가 있다.

250) 최초로 ‘성령세례’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성령세례에 관한 피니의 증언 및 가르침은 뒤에 일어날 오순절운동의 뿌리 역할을 하며 신학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도 믿음을 지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 계기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성령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당시 반지성적이고 체험적 신앙의 성격을 띤 영적 부흥각성 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의 전인을 치유하여 개종, 회심, 선교의 통로가 된 운동이다.

19세기 현실적으로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학의 발전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인간의 강도 높은 질병에는 기대만큼 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이에 성령을 통한 전인치유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1830년에 런던에서 에드워드 어빙(Presbyterian Edward Irving)²⁵¹⁾, 1843년에 독일에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Johann Christoph Blumhardt)²⁵²⁾, 1851년에 스위스에서 도라테아 트루델(Dorothea Trudel), 1867년에 오토 슈토크마이어(Otto Stockmayer)는 치유에 대하여 가르치며²⁵³⁾ 치유신학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모든 전인의 문제를 죄와 결부시켰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성한 치유를 받아들인다는 이론은 인간이 속죄를 통해 치유된다는 신념을 만들었다. 이 치유신학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속죄와 연장선상에서 성령치유를 내포하는 오순절 교리로²⁵⁴⁾ 인도하였다. 이 시기에 슈토크마이어의 저작인 *Sickness and the Gospel*은 인간의 몸 전체를 위한 육적 치유가 전반적인 속죄에 포함되어 있다는 새롭고 획기적인 내용으로²⁵⁵⁾ 가장 영

251) Allan Anderson, 『땅끝까지』, 62. 어빙의 설교를 통해 치유를 포함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이 은사들은 약 1879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었고 어빙과의 신앙운동은 오순절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된다.

252) Morton Kelsey, 『치유와 기독교』, 248; Allan Anderson, 『땅끝까지』, 62, 72. 1805년,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젤 선교회(Basel Mission) 설립장의 아들로 태어난 블룸하르트는 선교에 큰 관심이 있었다. 30년간 ‘치유의 집’을 운영했던 그의 치유사역은 근대 그리스도교치유운동의 중요한 운동 중 하나가 되었고, 본인의 치유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는 승리자’라는 기독교적 강조점과 함께 종말론적 논거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성령의 능력과 치유 사역을 연관 지었다.

253) Vinson Synan, “The Pentecostal Roots of Oral Roberts’ Healing ministry,” 291.

254)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 on Faith Healing*, London: The Tyndale Press, 1956, 191.

255) Stanley Burgess and Paul Lewis, *A Light to the Nations: Explorations in Ecumenism, Missions, and Pentecostalism*, 286-300.

향력이 있는 책이었다.

과거 미국 내에서 엘리자베스 믹스(Elizabeth Mix)²⁵⁶와 조지 폭스(George Fox)²⁵⁷가 성령의 치유를 나타내었지만, 성령을 통한 치유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은 찰스 컬리스(Charles Cullis)²⁵⁸이다. 의사였던 그는 1864년, 인간의 죄 사함과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연관시켜 사역하였고 그의 치유사역은 초자연적으로 이뤄졌다. 1880년대까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의 올드 오차드(Old Orchard)에서 치유 협약에 관한 대회를 열었던 그는 치유를 성서적 성결과 신앙, 학문을 관련지어 발전시켰다.²⁵⁹ 찰스 컬리스에게 영향을 받은 심슨(A. B. Simpson)²⁶⁰의 기독교선교연합회(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CMA)는 구원, 치유, 성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중 복음’을 도입하였고, 빈민을 위해 사역하였으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전 세계 지역 특히 아시아를 향하여 선교사를²⁶¹ 파송하였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전인치유는 선교적 사명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열정이라는 목표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1885년, 심슨은 미국의 영적치유사역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보드만(William Boardman)²⁶²과 연합하여 런던에서 성령의 치유와 거룩한 성결에 관

256) 아프리카계 미국 여인으로서 북아메리카에서 치유사역을 하였다. 이 후에 몽고메리(Carrie Judd Montgomery)의 사역에 영향을 주었다.

257) 프로테스탄트교파의 하나인 웨이커교의 창립자이다. 내적 계시와 정신적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Society of friends’라는 웨이커 공동체는 엄청난 선교의 열정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258) Allan Anderson, 『땅끝에서』, 72-73. 북미 치유운동의 개척자로 불린다. 1870년, 쇠약 뇌증양을 앓고 있던 루시 드레이크(Lucy Drake)에게 찰스 컬리스가 손을 얹어 기도한 후 즉시 회복되었고, 그는 급진적 복음주의 교단인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연맹(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창립자 심슨(A.B. Simpson)에게 영향을 끼쳤다.

259)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 on Faith Healing*, 191.

260)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연맹(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를 창설한 심슨은 1884년, ‘치유의 집’을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준비된 치유에 대하여 책을 썼다. 그는 성령세례를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성회 신학의 초석을 놓았다.

261) Allan Anderson, 『땅끝까지』, 73.

262) 미국 목회자이며 교사였던 윌리엄 보드만(William Boardman)은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아이라 생키(Ira D. Sankey)와 함께 복음전도운동을 하였다. ‘성령 치유와 거룩한 성결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는 현대 오순절운동의 기원에서 전

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컨퍼런스에 당시 전 세계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면서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국제적 성격을 띄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당시 이 컨퍼런스의 영향으로 언론에서 기도를 통한 치유의 능력을 기재하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와 정보의 확산력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보드만은 런던에 ‘치유의 집(Bethshan Healing Home)’을 설립하였고, 개인의 간증을 포함하여 신학적 논쟁에서 치유를 거론한 보드만의 저작 *The Lord that Health Thee*와 켈소 카터(Kelso Carter)의 저작 *The Atonement for Sin and Sickness: Or a Full Salvation for Soul and Body* 외에 치유에 관한 도서들이 편찬되었다.

보스턴의 목회자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Adoniram Judson Gordon)의 존경받는 책인 *The Ministry of Healing*²⁶³⁾에는 치유 역사와 고든의 치유사역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그는 본인의 저작에서 육체에 대한 신성한 치유는 영을 위한 죄 사함과 함께 속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담아냈다. 이후로 심슨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치유가 이뤄진다는 고든의 이론이 공식화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교사와 교회는 성령의 치유를 속죄로서의 의미로²⁶⁴⁾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son)²⁶⁵⁾, 아그네스 샌포드(Agnes Sanford)²⁶⁶⁾의 저서 등 서적을 통해 치유에 관한 사례와 치유의 지식적인 부분에서 체계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 중 세기 전환기에 대표적인 전인치유사역자 존 알렉산더 도위(John Alexander Dowie)²⁶⁷⁾는 전인치유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²⁶⁸⁾한 후 전

환점이 되었다.

263) Edith L.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3. 고든의 이 도서는 초기 오순절의 기준이 된다.

264) Vinson, Synan, “A Healer in the hous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healing in the pentecostal/charismatic tradition,”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Vol. 3 No. 2, Jul 2000, 192.

265) Francis Thompson, *Health & Holiness: A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Brother Ass, the Body, and His Rider, the Soul*, Read Books, 2008. 톰슨의 저서 *Health and Holiness*에는 구원과 치유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266) 샌포드는 저작 *Healing Light*에서 치유에 대한 지식을 언급하였다.

통적인 의료치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약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전인치유사역을 하였다. 그는 이사야 53장 4-5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전제로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sin bearer)하시는 동시에 질병 또한 담당(sickness bearer)하셨으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더 이상의학적인 부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을 통한 기도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의지한다면 믿음 저하에 따른 신앙 부족의 결과라고 보았다.

1893년, 도위는 큰 장막을 설치하여 자신의 집회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 전인치유의 능력을 체험케 했다. 그 후로 도위는 기도를 통해 치유 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치유의 집’²⁶⁹⁾ 열었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설하며 대통령상을 수여했던²⁷⁰⁾ 그는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당시, 본인의 전인치유 사상을 도입하여 ‘시온 도시(Zion City)’²⁷¹⁾를 건설하였다. 당시 오순절 다수의 사람들이 도위의 주장에 동의하여 의사나 약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치유해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²⁷²⁾ 서원하였다.

267) Edith L.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s on Faith Healing*, 195. 오순절주의의 선구자이자, 20세기 초 부흥에 관하여 영향력을 발휘한 도위는 1987년에 호주 시드니의 대형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다. 당시 병으로 죽어가던 소녀를 향해 기도하던 중,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를 경험한다. 이 체험을 시작으로 그는 치유사역을 하게 된다. 의학에 관해서는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도위의 입장은 성결운동의 부분적인 뿌리가 되었고, 1901년에 미국 캔자스(Kansas)주의 토피카(Topeka)에서 시작된 오순절운동의 다수파에 영향을 주었다.

268) RoBerts Liardon, *God's generals: why they succeeded and why some failed*, 박미가 역, 『치유사역의 거장들』, 서울: 은혜, 2012, 33-46.

269) Edith L.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31-32.

270)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 on Faith Healing*, 193.

271) 의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만을 주장했던 도위는 1900년에 8000명 이상이 수용가능한 ‘시온 도시(Zion City)’를 건설했다. 도위는 신권정치만을 주장하는 이곳을 종교, 상업, 정부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고, 술, 마약은 물론, 약국과 의사가 없는 도시로서 도위의 치유사상이 적용되어 이뤄졌다. 그러나 결국 1905년에 도위의 시온 도시는 파산하였다.

272) Allan Anderson, 『땅끝까지』, 75.

1898년 치유복음사역자였던 찰스 폭스 파함(Charles Fox Parham)²⁷³⁾은 도위의 시온도시를 방문한 후, 캔자스(Kansas) 주 토피카(Topeka)에 ‘베델 치유의 집(Bethel Haealing Home)’을 설립하여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한 치유로 회복의 결과를²⁷⁴⁾ 가져다주었다. 파함은 ‘사중복음(five-fold gospel)’을 설교함으로 속죄를 이루는 성령의 치유와 교회의 휴거를 강조하였고, 당시에 성령을 통한 치유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파함의 이와 같은 주장과 가르침은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Azusa Street)²⁷⁵⁾의 윌리엄 조셉 시모어(William Joseph Seymour)에 의해²⁷⁶⁾ 본격화되었다. 파함의 성령치유집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프레드 보스워스(Fred F. Bosworth)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를 일으킨 운동가들에게 치유신학과 방법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의료적 행위와 의약에 관한 부정적 사고를 만들어 거부행위로 나타났다. 이는 무서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교회의 어떤 목사들이 의료에 관한 면허없이 의약을 실습하여 체포된 사건과 또 아픔을 호소하는 가족구성원에게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약을 먹이지 않아서 죽음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결과, 치유를

273) 감리교 목사이자 성결교 교사이며 복음전도자이다. 찰스 파함은 방언이 성령 침례에 대한 최초의 증거라는 것을 교리로 공식화하였다.

274)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 on Faith Healing*, 195.

275) Vinson Synan, “The Pentecostal Roots of Oral Roberts’ Healing ministry,” 292-3. 1900년에 노스 캐롤리나(North Carolina)주의 페이엣빌(Fayetteville)에서 감리교 전도자 Abner B. Crumpler가 설립한 Pentecostal Holiness Church는 아주사 거리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오순절이 되었다.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로 방언을 받아들임은 물론 성령 치유로서 속죄를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Pentecostal Holiness Church와 189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의 앤더슨(Anderson)에서 침례교 설교자 벤자민 어윈(Benjamin Hardin Irwin)이 세운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가 19세기 성결운동에 뿌리를 둬서 합병되었다. 이 후로 GOR이 태어나고 자란 Pentecostal Holiness Church가 된 것이다.

276)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김명용 역, 『성령신학』, 서울: 나눔사, 1989, 47-48; 이재범, 『성령운동의 역사』, 서울: 보이스사, 1993, 116. 윌리엄 시모어의 오순절 성령운동은 미국 전 지역을 향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행했던 목회자들은 살인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데 동시에 오순절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영웅이²⁷⁷⁾ 되었다. 당시 엄청난 성장세를 타고 있던 오순절 운동은 현대교회에 파격적인 충격을 가함과 동시에 전인치유사역에서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부분을²⁷⁸⁾ 차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인간의 질병에 대한 단독 해결책으로 기도를 주장한 결과,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죽음까지도 겪는 상황에서, 1919년, 휴 볼링(Hugh Bowling)²⁷⁹⁾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교회신문에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구제책’을 취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²⁸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여 성령의 신성한 치유에 대한 불신과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은 죄와 연관이 없음을 밝힌 볼링은, 의학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 자체를 믿음의 부족으로 주장한 오순절 성결교회와의 투쟁을²⁸¹⁾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현실은 휴 볼링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회 상황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다. 내용인 즉, 첫째, 1920년부터 27년간 치유를 통해 간증을 해 온 오순절성결교회(Pentecostal Holiness Church)의 샘 페이지(Sam Page)목사, 둘째, 부러진 뼈, 편도선염, 인플루엔자, 소화불량, 디프테리아, 내향성발톱, 암 및 결핵과 같은 질병들을 의학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를 받았던 노블(W. J. Noble)목사²⁸²⁾같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오순절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질병을 겪게 되면 당사자에게 죄가 있거나, 치유받기에 부

277) Vinson Synan, “A Healer in the hous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healing in the pentecostal/charismatic tradition,” 197.

278) 이재범, “치유목회 현장론,” 『목회와 신학』, 1993, 04, 123. 대표적인 치유사역자로 Oral Roberts, T. Lo Osborne, Kenneth Hagin, Morris Cerullo 등이 꼽힌다.

279) 조지아(Georgia)의 설교자이다. 휴 볼링은 치유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반대적인 시각을 주장함으로 교회에서 추방당했다. 1921년 그는 14개의 교단과 동료들과 Congregational Holiness Church를 조직하였다.

280)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 on Faith Healing*, 198.

281) 같은 곳. 휴 볼링 주장에 대하여 반문을 낸 지도자들 입장에 대하여 빈슨 사이난은 수 년 동안 오직 기도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성령 치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본다.

282) Vinson Synan, *The Old Time Power: A History of the Pentecostal Holiness Church*, Franklin Springs, Georgia: Advocate Press, 1973, 166-71.

족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고, 결국 그들의 신학적 사고에 따른 의학에 대한 시선은 마땅히 긍정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악마로 간주하는 시선²⁸³⁾, 사람들이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어도 의사와 의약을 거부한 채 홀로 기도하며 병실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교리적 차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의학이 처방을 거부당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1921년에 교회를 분열시킨 의료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었고, 오순절 성결교회는 본인들의 교리에 있어서 오류를 인정하였다. 비로소 인간의 전인치유를 위한 기도와 의학적 수단이 모두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61년, 사이난(Bishop J. A. Synan)은 육체적 질환으로 인한 의료수단 사용을 정죄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지는 교회 지도자의 안수, 기름부음 등에 대한 실천 또한 좋게 보았다.²⁸⁴⁾ 이로부터 치유를 위한 신앙 태도인 기도와 의학의 관계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속적인 역사적 행보가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영국 보스턴(Boston)의 임마누엘 영국국교회에서 시작된 치유 운동, 임마누엘 운동(Emmanuel Movement)²⁸⁵⁾은 1904년에 엘우드 우스터(Elwood Worcester)가 정신과, 외과 의사들과 협력하여 사람의 영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시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 등의 신학자들이 전인적인 인간이해에 대한 세미나로 전개한 운동으로서 의학과 종교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계몽적 바탕

283) 훗날, 의학을 옹호하던 볼링의 주장을 비판했던 다수는 최고위의 의사와 의약이 있는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84)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The Pentecostal Holiness Church Manual*, Okla: Church, General Headquarters, 1989, 47.

285) 맥콤(Samuel McComb)신부, 신경정신과 의사 코리앗(Isador Coriantt) 등이 협력했던 임마누엘운동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약화되었다. 약화된 원인에 대하여 쏜튼(Thornton)은 목회자훈련 실패, 우스터의 저조한 성장으로 인하여 정신의학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것, 목회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 운동은 임상목회교육운동의 전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에 전개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종교와 의료가 협력하여 인간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운동은 기존교회의 입장인 인간의 영적, 정서적인 문제를 기독교체제 안에서만 해결하고자 했던 사고를 벗어나 일반 사회의 학인 심리학으로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이론을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였다.

이 운동은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통합체로 보았기에 때문에 소수의 유기적인 기능적 장애도 영적인 치유의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²⁸⁶⁾ 종교분야는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초기에 치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의 시도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정도로 증진되었고²⁸⁷⁾ 치유의 활성화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은 물론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운동은 사무엘 팔로우(Samuel Fallows), 로링 베티(Loring W. Beten)에 의해 이어졌다. 머지않아 운동은 사라져갔지만 인간의 전인적 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와 의학의 협력을 강조한 이 운동은 전인치유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이처럼 환경적 상황과 상관없이 전인치유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인치유를 통한 복음집회의 발전은 1950년대가 가장 부흥의 성과를 나타냈는데, 오순절 성령운동의 불길을 다시 붙인 윌리엄 브랜햄(William Branham)²⁸⁸⁾, 성령의 카리스마 전인치유 운동을 일으킨 GOR²⁸⁹⁾과

286) Liston Mills, "History of Pastoral Care,"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by Rodney H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836-38.

287) 권수영 외, 『목회상담이론입문』, 서울: 학지사, 2009, 174.

288) 카리스마 치유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미국 역사상 치유사역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언과 치유사역을 병행한 치유사역자이다.

289) Hollenweger, Walter J, *The Pentecostals*, SCM Press, 2015, 6-7;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Mich: Zondervan Publishing, 2002, 1024-5; Vincent Edmund and Scorer Gordon, ed., *Some Thoughts on Faith Healing*, 191.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GOR을 포함한 윌리엄 브랜햄, 오스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치유체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미국에

고든 린세이(Gorden Lindsey)를 중심으로²⁹⁰⁾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1950-60년대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사역으로 알려진 GOR의 신학과 영성을 따라 조용기가 전인치유사역을 이어갔고, 한국교회사의 지대한 발전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1977년, 애틀란타(Atlanta)의 새생명침례교회(New Birth Baptist Church)에서는 오순절적 성향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전인치유를 허용함으로서 300명이었던 성도가 10년 만에 1만 8천명으로 증가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²⁹¹⁾ 이어 1980년에는 케네스 헤긴(Kenneth Hagin)에 의해 제3의 바람이라 불리는 성령운동이²⁹²⁾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육(체)적 치유는 인간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뜻²⁹³⁾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 요한삼서1장 2절, 마태복음 10장 29-30절의 말씀을 근거로 백배의 보상인 축복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명령을 말로 선포할 때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난다고²⁹⁴⁾ 주장하였다. 성령세례에 관하여 전통적인 오순절 운동과 근원적인 차이²⁹⁵⁾를 두는

서는 오순절주의가 인기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55년에 GOR은 자신의 치유집회를 미국 전역에 TV프로그램으로 방영하였고, 월간잡지 *Abundant Life*로 세계적인 오순절주의자가 되었다. 빈슨 사이난은 현대 교회사에서 성령치유의 역사에 가장 떠오르는 핵심 인물 중 중요한 인물로 GOR를 지목한다.

290) 김호환, 『카리스마와 영성』, 165.

291) Valerie G. Lowe, "The Long Way to Build a Church," *Ministry Today*, Sept/Oct, 1977, 32-40.

292) Charles Peter Wagner,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정운교 역, 『(피터 와그너의)제3의 바람』, 서울: 하늘, 1990, 21-33. '믿음의 말씀(Word-Faith)운동', '긍정적 고백 운동(The Positive Confession Mov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

293) Kenneth E. Hagin, "Seven Things Should Know about divine Healing," 김진호 역, 『당신이 알아야 하는 신유에 관한 일곱 가지 원리』, 경기: 믿음의 말씀사, 2000, 8-9; Edward J. Young, *Isaiah fifty-three: A Devotional and Expositor Study*, 윤영탁 역, 『고난의종: 이사야53장주해』,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06, 56-60.

294) Kenneth E. Hagin, 『당신이 알아야 하는 신유에 관한 일곱 가지 원리』, 171-72.

295) William W. Menzies, Robert P. Menzies, *Spirit and power: Foundations of pentecostal experience*, 배현성 역, 『오순절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성령과 능력』, 경기: 한세대학교, 2005, 234; Peter Wagner, 『(피터 와그너의)제3의바람』, 29-33. 오순절 운동은 하나의 구별된 체험으로서 성령세례를 주장해왔지만 제3의 바람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성령세례를 회심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은사와 차별되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둔다. 이 운동은 성령세례에 관하여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틀에 고정되어 인식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한다.

이 운동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함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전인치유에 있다. 이 운동의 중심부에 있었던 빈야드 교회(Anaheim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 Church)의 존 Wimber(John Wimber)는 피터와그너(Peter Wagner)와²⁹⁶⁾ 동역을 하였다. 이 둘은 개인적인 치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적과 표적을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병 고침과 축사 사역이 동반된 교회부흥은 수많은 교회들을 동역하게 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인 의로 행위를 포함한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 이 운동을 일으킨 교회들은 기도, 특히 중보기도를 중요시 여겼는데,²⁹⁷⁾ 80년대 초에 와서 피터와그너(Peter Wagner)는 영적 기도의 중요성을 풀러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구체화하였고, Wimber와 함께 치유기도를 통한 치유사역을²⁹⁸⁾ 하였다.

전인치유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인치유가 성령을 통한 체험을 강조한 오순절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오순절의 영성운동 가운데 전인치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인치유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주체로 이루어지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전도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인치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과 긍정의 두 양상으로 존재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치유사역에 대한 재인식과 재조명으로 성경적, 신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치유목회를 행하고²⁹⁹⁾ 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을 통한 전인치유가 신학적, 성경적으로도 하나

296) C. Peter Wagner, "The Third Wave,"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Stanley Burgess and Gary B. Mcgee, ed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843-44; 김현진, "성령세례 논쟁과 그 해결점에 대한 연구," 『영산신학』 Vol. 33, 2015, 42.

297) Peter Wagner, *Prayer shield*, 명성훈 역, 『방패기도』, 서울: 나눔터, 1995, 137-58.

298) Peter Wagner, 『(피터 와그너의)제 3의 바람』, 49-50; 김호환, 『카리스마와 영성』, 183-84. 정통 복음주의 교회에 영향을 준 빈야드 운동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계시, 예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다. 이로 인해 비판과 염려에 대한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299)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236.

님의 현현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순절/은사주의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인 전인치유는 교단과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전파에 관련된 중요한 다리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전파를 전인치유를 통해 선교했던 20세기 전인치유의 대가로 불리는 GOR의 전인치유 선교사역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의 사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전인치유선교의 다방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그랜빌 오랄 로버츠의 전인치유선교 이해

A. 오랄의 생애와 치유경험

GOR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의 부모를 통한 오순절적 가정배경과 생애, 특히 GOR이 체험한 하나님의 치유경험을 알아볼 것이다. GOR의 생애에 대한 배경이해는 훗날 GOR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 선교를 하게 된,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1918년 1월 24일, GOR은 오클라호마(Oklahoma) 주의 폰토톡 카운티(Pontotoc County)에서 웨일스인인 엘리스(Ellis Melvin Roberts)와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체로키족의 인디언(Cherokee Indian)계인 클라우디우스(Claudia Priscilla Irwin) 사이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³⁰⁰⁾ GOR의 아버지 엘리스는 영국 웨일스(Wales)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웨일스 계통의 후손이며 오순절 성결교회(Pentecostal Holiness Church)에 소속되어 12개의 교회를 개척한 설교자이다. 그리고 GOR의 어머니 클라우디우스는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GOR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적이고, 삶 가운데 기도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교류를 중요시 여겼던 부모 밑에서 자랐다. 특별히 오순절주의의 영향 아래 신앙의 기초적 교육이 기반 된 GOR의 성장배경은 훗날 GOR의 신학과 사역을 이루는 데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

어렸을 적부터 GOR은 말을 더듬는 장애(어눌증)를 가지고³⁰¹⁾ 있었다.

300) "Interview With Lennox Lewis; Interview With Oral Roberts, transcript," *Larry King Live*, 18 December 2009.

301) <http://www.oralroberts.com/oralroberts/biography/1930-1939>, 2020. 03. 24. 접속.

학창시절, GOR은 어눌증때문에 또래 사이에서 항상 놀림을 받기 일쑤였고, 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이었다. 옳친 데 뒸친 격으로 1935년, GOR은 17세 되던 해에 과거 수년간 오클라호마 주에서 인디언들을 괴롭혔던 질병인 결핵³⁰²⁾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GOR은 결핵 판정 후에 163일 동안 병치레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고백과 함께 삶에서 치유경험을 하게 된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안 그 모습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감싸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와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온몸을 통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몇 달 동안 없었던 힘이 솟는 듯 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수개월동안 폐결핵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내가 아니었습니다.³⁰³⁾

1935년 7월, 폰토톡 카운티에서 열린 조지 몬시(George W. Moncey)의 치유 집회에 가는 도중 GOR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한다. “아들아, 나는 너를 치유하겠다. 너는 나의 치유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너는 나의 권위와 성령 위에 대학교를 세워라.”³⁰⁴⁾

GOR은 치유 집회에 참석하여 몬시의 안수를 받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는 준비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몸을 푸는 듯 한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

302) 결핵(tuberculosis, 結核)은 폐를 비롯하여 장기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던 20세기 초에는 죽음으로 직결되는 병이었다.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결핵은 감염질환이며 남녀노소 막론하고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303)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전형철 역, 『기적을 기대하라』, 서울: 말씀사, 1998, 60.

304)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My Life and Ministr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5, 32.

습니다. 다만 담대함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묶고 있는 병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고통을 주는 더럽고 냄새나는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소년에게서 나오라! 소년을 풀어주고 놓아주어라.” 목사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순간 마치 온 몸에 감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양쪽의 폐가 꽃처럼 활짝 피는 것 같았고, 아주 강한 힘이 기운을 샘솟게 하듯 나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게 숨을 내쉬어도, 어떤 기침도, 통증도, 몸이 나른해짐도 없었습니다.³⁰⁵⁾

몬시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GOR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다. GOR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낮은 자존감과 깨어진 인간관계를 가져온 어눌증과 미래의 소망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결핵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치유된 GOR은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발음으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치유하신 일을 간증하며 개개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권면을 한 것 뿐 아니라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³⁰⁶⁾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 체험은 GOR의 일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굳은 결단을 불러일으켰다.

1947년, 목회 초기 GOR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로 들었다고 고백한다. “아들아, 다른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 어떤 교단처럼 굴지도 말아라. 예수처럼,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치유하여라.”³⁰⁷⁾ 이후로 GOR은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부활을 뼈 속 깊이까지 받아들이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을 지속적으로 꾸었다. 그리고 GOR은 1947년 5월 25일에 최초의 치유집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오순절 교단과 협력하면서 대형천막을 이용한 본격적인 치유집회를 시작한다. 1950년 10월, 세계 전역에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텍사스(Texas)주의 애머릴로(Amarillo)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하여 1967년 마

305) Oral Roberts, 『기적을 기대하라』, 65.

306) Oral Roberts,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Value of Speaking in Tongues Today*, Tulsa: Oral Roberts, 1964, 10; “Why you Must Receive the Holy Ghost,” *Healing Waters* Vol. 3, No. 6, May 1950, 6-7.

307)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85.

지막 집회까지 대형천막을 이용한 전도사역과 더불어 방송사역, 수많은 문헌을 포함한 교육사역, 의료사역은 GOR 자신의 전인치유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전인치유 능력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사역이었다. 이 장에서 연구될 GOR의 의료사역, 방송/전도사역, 문헌/교육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에서 그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단, 의료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의 연구에서 믿음의 도시 의학센터의 비판적 견해와 폐쇄에 대해 다룬 이유는, 의료사역을 향한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목적과 의미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현실적인 폐쇄가 전인치유를 위한 선교적 차원의 의미와는 구별됨을 알기 위해서이다. 이를 포함하여 그의 전인치유선교의 사역 방안이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구체적이고 살펴보는 것은, 다음 장인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B. 의료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GOR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유형의 질병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전인치를 치유³⁰⁸⁾하셨다. 그는 구원자이며 치유자이시다. 전인치유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의학박사 프랭크레이크(Frank Lake)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의사였다. 그분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개별적 인격체로 대하셨으며,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고,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었던 완전한 것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시기에 가장 훌륭한 정신과 의사이다.”³⁰⁹⁾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사로 묘사하였다.

308)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309) Duncan Buchanan,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역, 『예수의 상담과 실제』, 서울: 아가페, 1987, 15.

GOR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게 된 것³¹⁰⁾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전인치유에 대한 GOR의 생각은 경험에서부터 기반한다. 과거 결핵과 어눌증을 앓고 있던 GOR은 육적인 치유 외에 정신적, 영적인 부분과 삶의 습관까지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건강을 통한 온전함이 인간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임을³¹¹⁾ 알게 되었다. GOR은 과거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을 포함하여 습관, 욕구, 자존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인치유를 통하여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었고, 단점이 장점으로, 혼란 속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하였다. 또한 그는 과거에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술을 통해 정상적인 눈을 갖게³¹²⁾ 되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실현에 있어서 의학을 하나의 도구로 인정한 것 또한 GOR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믿음의 기도와 의학을 통한 하나님의 전인치유로 전인이 온전해지고 삶의 재생산이 이루어진 GOR은 하나님의 치유력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능력은 기도와 의학을 통하여 나타난다고³¹³⁾ 보았다.

1947년에 GOR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역을 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처럼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너는 나의 치유의 능력을 너의 세대에 전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³¹⁴⁾으로 느꼈다. GOR은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 가운데 믿음의 기도와 의학을 합병해야 함을³¹⁵⁾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사역초기부터 치유의 과정 가운데 믿음과 의학이 병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전인 건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치유

310) *Abundant Life* Vol. 34, No. 9, October 1980, 10-11;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311) 같은 곳.

312) 조용기, 『설교예화 I』, 경기: 서울서적, 1996, 240-41.

313)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God's Still Small Voice, the Clearest and Loudest Voice You'll Ever Hear*, Pengold Garrett and Assoc, 2008, 76.

314)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77.

315) *Abundant Life* Vol. 35, No. 11, November 1981, 2-3.

능력의 경계를 넓히기 위한 소망을³¹⁶⁾ 가졌다. 그 방안으로 의료 선교사들의 기도와 의학의 협력을 통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기 위한 장소로서 믿음의 도시 의료연구센터(City of Faith Medical and Research Center)가 존재하게³¹⁷⁾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학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거나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팽배했다. 또한 의학과 기도를 동등하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간주한 의사는 거의 없었으며 기도를 사용한 몇몇 소수 의사들은 기도를 의료의 보완적인 것으로만 보고,³¹⁸⁾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달하는 의미로는 보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GOR은 예수의 재림에 앞서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인건강을 위한 모든 기능의 조화와 질서를 바로 세우시길 원하심으로 대량의 치유가 오고 있다고³¹⁹⁾ 믿었다. 동시에 믿음의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기도와 의학을 통해 환자를 자유롭게 할 치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하였다. 다시 말해, GOR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의료진들을 통해 건강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믿음의 도시는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손을 얹어 초자연적, 자연적인 회복을 통해 승리와 회복을 가능케 할 치유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³²⁰⁾하였다. 왜냐하면 병원으로서 믿음의 도시는 기도와 의학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곳을 통하여 많은 병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온전함으로 건강해질³²¹⁾ 것이기 때문이다.

316)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178.

317) "Ideas and Trends: Oral Roberts's Word on Cancer," *The New York Times*, 30 January 1983; *Abundant Life* Vol. 34, No. 7, August 1980, 10. "Oral Roberts' Ministry Hits a 'Low Spot'," *Dallas Morning News*, 5 January 1986.

318)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170.

319) 김계봉,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오순절 신학의 본산," *Abundant Life* Vol. 38, No. 2, February 1984, 7-13.

320) Thomson K. Mathew, "오랄 로버츠 목사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치유신학에 대한 비교 평가," 38-69;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8.

321)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4.

이와 같이 GOR은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과 이 치유의 사건이 바로 믿음의 도시에서 일어날 것이라³²²⁾ 기대했다.

1981년, GOR과 더불어 수많은 동역자의 협력으로 약 2백만 평방 피트의 공간을 가진 2억 5천만 달러의 30층 병원과 60층의 의료 센터, 20층 규모의 연구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의료 센터, 믿음의 도시 의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의 철학은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향한 기도와 과학적 의학을 병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전 인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철학으로 세워진 믿음의 도시는, 다른 일반 병원들과 차별성을 두어 계획되었다. 우선, GOR은 의료진을 출생, 사망, 질병, 죽음을 포함한 비극적인 중요한 순간에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환자와 건강을 공유하여 돌봄으로써 삶의 모든 차원에서 사랑과 치유를 전할 훌륭한 기회를 가지므로, 하나님의 치유능력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치유를 갈망하는 환자에게 접촉하여 관계 맺는 의료진 교육을 중시한³²³⁾ GOR은, 의료진들의 내부 교육으로 허버트 할레브랜드(Herbert Hillebrand)의 전 채플린(Chaplains)대학에서 승인된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로서의 주어진 사회적, 의학적 영향력을 다루었다. 그리고 기도를 합병하여 전체적으로 최고의 의학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다. 특히 환자의 전인회복을 진정한 건강으로 보았다. GOR은 믿음의 도시에 속해있는 전 직원이 일반적인 전통 목회자보다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환자의 삶 속까지 개입하는 의료 교육 담당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처럼 GOR은 환자를 향한 특별 동역팀에 차별성을 두고 진행되는 양질의 건강관리에 대한 팀 접근 방식을³²⁴⁾ 사용하였다.

322) *Abundant Life* Vol. 34, No. 9, October 1980, 10-11;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323)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16-17.

324) *Abundant Life* Vol. 37, No. 6, June 1983, 23.

이를 테면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담당의사와 치유를 위한 기도 동역자, 간호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³²⁵⁾ 적용하였다. 시대를 앞서 갔던 믿음의 도시는 최첨단 시스템과 시설을 도입하였고, 모든 의료진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며 기대하는 믿음의 환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 대면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즉, 서로 말씀 묵상, 재정, 인간관계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의학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능력이³²⁶⁾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믿음의 도시에서 의학적 치료와 병행되는 기도는 매우 중추적인 사역으로 모든 직원 및 의료진들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 결과 고통, 죽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병원보다 빠른 치유가 일어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과 같은 명백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처럼 믿음의 도시는 역동적인 의학, 기도 및 치유의 장소이고 모든 동역자는 의사와 목회자로서 환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의 도시 의료센터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 고통이 자신의 문제 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 삶의 근원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GOR의 주장을 통해 소망의 치유력을 경험하게 된다.³²⁷⁾ 이를 도와주는 믿음의 도시 의료진들은 신앙적으로 기도의 능력 뿐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의학적인 실력이 우수한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개개인으로는 각자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거나 의사가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므로 모두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진³²⁸⁾ 사람들

325) 한 예로, 특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적절한 시간에 식사 카트를 환자에게 바로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식품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326) John R. Crouch, Jr, "Healing through Prayer and Medicine: How Oral Roberts' Healing Vision Was-and Continues to Be-Fulfilled,"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4, No. 2, 2019, 198.

327)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328) *Abundant Life* Vol. 34, No. 9, October 1980, 2;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4.

이다.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 세대에 전하는 선교를 실행하기 위해 믿음의 도시는 ORU와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세운다. 이 프로젝트는 제 3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가 전인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GOR은 믿음의 도시와 학교, 이 두 곳을 통하여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기도 동역자, 전도사 및 선교사를 양성하고 교육자, 음악가 및 기타 사람들과 함께 치유팀(Healing-Team)을 결성하여 궁핍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선교사들의 추방, 혹은 출입 금지된 제 3의 국가로 보내지는 것을 계획한다. 이 치유팀은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질병의 치유자임을³²⁹⁾ 알려주었다.

이처럼 ORU와 믿음의 도시 의료센터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중심으로 “예수가 큰 무리를 보고 동점심을 가지사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사역하기³³⁰⁾ 위해 협력하였다. 이 두 기관의 교육 연계 가운데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ORU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공활하심을 환자에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의 의료 전문가를 훈련시키기³³¹⁾ 위해 노력하였다. GOR과 믿음의 도시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과 믿음의 도시의 동력자로 불리는 목사들의 임상 훈련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한때는 병원과 클리닉에서 일하는 목사와 전문 상담자의 수만 50명³³²⁾일 정도로 발전하였다.

당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의학적 약품이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보았고, 1984년 믿음의 도시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사상 최고 수준³³³⁾에 도달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329) *Abundant Life* Vol. 34, No. 9, October 1980, 10-11;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330) *Abundant Life* Vol. 35, No. 11, November 1981, 2-3.

331)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16-17. GOR의 교육방침은 본 논문의 문헌/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에서 좀 더 면밀하게 다루기로 한다.

332)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316.

치유를 위하여 훈련하고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의 도시였지만, 전국 각지에서부터 오кла호마 국제 사역의 동역자 3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편을 통해 기금한 금액으로만 믿음의 도시병원 및 의료연구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한쪽 측에서는 믿음의 도시는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며 지역 시민 센터에서 반대를 하였고³³⁴, 운영 예산의 증가로 운영 유지가 불가능했다. 또한 St. Francis Hospital의 이사회 집행위원장인 톰슨(Thompson)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도시를 통해 GOR이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³³⁵ 말했다.

믿음의 도시 폐쇄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당시 믿음의 도시는 병원 상황시스템을 전국적으로 DRGs(Diagnostic Related Groupings ; 진단관련그룹화)로 바꾸었다. 이는 입원한 환자들의 실제 치료비용에 관계없이 각 진단과 입원 예정일수에 따라 병원비를 지불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제한된 금액은 병원의 경제적인 유지를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의학 분야의 재학생에게 학비 무료 교육을 시행하는 의학교육 자체적으로도 대학 예산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³³⁶ 들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서 운영하기에는 큰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상 믿음의 도시 폐쇄³³⁷에 관한 이유 중 자금의 문제와 지역상황에 관한 운영의 문제는 있었지만, 병원의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기도와 의학의 협력은 육체의 아픔으로 믿음의 도시를 찾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의 문제까지도 자유케됨으로 전인치유에서 전인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

333) *Abundant Life* Vol. 38, No. 9, November and December 1984, 15. 믿음의 도시 관리자 조 건(Joe Gunn)은 1985년 1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를 223대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환자 증가는 믿음의 도시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알리는 것과 같다고 보도했다.

334)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317.

335) *The Dallas Morning News*, 5 Januray 1986, 47.

336)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318.

337) 이 후로 믿음의 도시는 CityPlex Towers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타병원에서 인수하여 사용되고 있다.

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치유를 위한 기도와 의학이 전해지도록 실행했던 치유 팀의 사역³³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한다는 GOR의 선교의 목표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믿음의 도시를 통해 사람의 전인을 치료하고 치유되는 것의 중요성은³³⁹⁾ 많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전해졌다.

다음의 GOR의 말은 믿음의 도시 폐쇄가 전인치유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이제는 그러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느 병원이나 진료소를 가더라도 전에 없었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텔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치료의 한 과정이라는 신문광고까지 싣기도 했습니다.³⁴⁰⁾

즉 GOR의 의료사역을 통한 전인치유는 그 당시 의학계에 믿음의 기도와 의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학계에 새로운 전인치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조가 되었다.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한 치유, 치유를 통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이 이뤄지는 선교였다.

C. 방송/전도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GOR은 전인치유선교를 위하여 미디어를 통한 방송사역과 대형천막을 사용한 집회전도사역을 행했다. 우선, GOR의 방송사역을 통하여 전인치유선교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0세기 후반에 진화하는 미디어로서 TV는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의 성장과 영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오순절 설교자들은 본인들의 사역에 있어서 TV를 성공적으로 사용하였는데

338) 본 논문 제 3장 C. 문헌/교육사역을 통한 전인치유 선교에서 면밀하게 다루기로 한다.

339) "Oral Roberts Dies," *A. Larry Ross Communications*, 15 December 2009, 3.

340)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437.

이러한 성공은 GOR의 라디오 및 TV 방송사역의 부흥의 바람을 타고 강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7년 11월에 출간된 *Healing Waters*에는 GOR이 5개 방송국을 통해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있음이 기재³⁴¹⁾되어 있다. 이를 통해 GOR이 라디오 방송 시작과 자신의 치유사역을 한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TV를 도구로³⁴²⁾ 활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GOR의 복음치유사역은 1949년부터 사업가 노스 캐롤리나(North Carolina)와 블랙스틴(Lee Braxton)의 협력을³⁴³⁾ 통한 TV 방송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GOR의 전인치유를 통한 복음은 1950년 중반까지 80개의 방송국을 통해 전해졌는데³⁴⁴⁾ 이러한 그의 전파사역은 1951년 말에는 115개 방송국, 다음해인 1952년에는 175개 방송국으로 늘어났고 1953년 말에는 300개가 넘는 방송국³⁴⁵⁾, 1955에는 800개의 방송국을 통하여 치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시대적으로 점차 대중매체인 TV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GOR은 본인의 치유사역을 이 매체로 전파할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수많은 치유를 가져온 자신의 첫 영화 *Venture Into Fatlh*를³⁴⁶⁾ 발표했다. 이 영화는 1952년 9월에 오리건(Oregon)주 포틀랜드(Portland)로 시작하여 미국 내의 수백여 교회에서 상영되었다. 1956에는 라디오 Ceylon, Luxembourg를 포함하여 11개국의 40개 해외방송에서도 그의 강력한 치유사역이 전파되었다.

341) Oral Roberts, "Healing Waters Radio Log," *Healing Waters*, November and December 1947, 10.

342) "Broadcasters Vote Three to Hall of Fame," *Oklahoma Association of Broadcasters*, 4 June 2010; "Chancellor Roberts Elected to Hall of Fame," *Oral Roberts University*, 20 November 2009.

343) Lee Braxton, "I Followed Oral Roberts Across America," *Healing Water* Vol. 3, No. 1, December 1949, 4.

344)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024-1025.

345) G. H. Montgomery, "The March of Deliverance,"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3, February 1954, 4.

346) *Abundant Life* Vol. 41, No. 3, May and June 1987, 13.

그 중 GOR의 TV 방송을 통하여 젊은 공군상사의 부인이 치유된 일은, 특히 GOR의 치유사역이 미국 대중들에게 거대한 인기몰이를 하게 된 한 대표적인 사건³⁴⁷⁾이었다. 이를 계기로 GOR의 전인치유사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교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대다수의 오순절주의자와 치유부흥사들이 학문적 깊이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전통교단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및 회중 교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지 못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GOR의 전인치유를 통한 TV 방송사역은 사회, 교계, 사역에서 성장과 발전에 목말라 있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되는 자료가 되었다.

더 나아가 GOR의 치유사역이 TV 방송을 통하여 사실성이 증명된 후로는 기성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아 오순절주의자, 신유부흥사들의 집회시 사역의 장점들을 도입하는 경우도³⁴⁸⁾ 일어났다. GOR은 전통적으로 자리잡아왔던 개교단의 차별적인 분리에 대하여 치유사역의 발전과 목회의 성장을 공통의 목표로 잡아 직접적인 의도적 행위 없이 교단과 교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GOR의 치유사역이 TV 방송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는데,³⁴⁹⁾ 그의 방송 형식은 치유의 실질적인 현상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GOR의 ‘Your Faith Is Power’ 프로그램은³⁵⁰⁾ 전인치유에 대한 간증, 20분의 설교, 구원을 위한 영접, 치유를

347)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128. 1951년, 교통사고로 안나 윌리엄스(Anna Williams)는 소아마비와 하반신이 마비되는 병을 앓았다. 그 해 5월 1일, 그녀는 GOR의 치유집회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GOR의 설명에 따라 믿음으로 자신의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를 따라하였고 즉시 뛰게 되는 회복이 일어났다. 텍사스(Texas)주의 위치타 폴즈(Wichita Falls)에 있는 신문은 1951년 5월 2일에 “Paralyzed, She Walks After Prayer.” 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기재하였고, 지방신문을 비롯하여 ABC방송국의 시사 해설가였던 폴 하비(Paul Harvey)가 사건을 소개하였다.

348) Jim Ziegler, *Personal Interview with the author*, 8 and 9 April 1998.

349) Oral Roberts, “Your Faith Is Power,”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1, December 1953, 17.

350) G. H. Montgomery, “The March of Deliverance: Previewing the Oral Roberts TV Programs,”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2, January 1954, 4; “Oral Roberts, Fiery Preacher, Dies at 91,” *The New York Times*, 24 December 2009. 1954년 1월 10

원하는 곳에 손은 없는 병자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는 GOR의 집회현장을 직접 보여줌으로 본 방송을 시청하는 수 백 만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지만 바로 눈앞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³⁵¹⁾ 이처럼 GOR은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TV 화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신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구현해냈다.

GOR의 방송사역은 더욱 확장하여 1955년 여름에는 91개의 국내 TV 방송과 해외 2개의 TV 방송에서 상영되었고, 그 중 61개의 방송국에서 GOR의 대형천막을 사용한 치유집회를³⁵²⁾ 실시간 방영하였다. GOR의 TV와 라디오 방송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함으로 160,000명이 넘게 그리스도께³⁵³⁾ 인도되었다. 이를 통해 GOR은 TV 방송이 대중에게 복음과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가³⁵⁴⁾ 됨을 확신하였다. 동시에 TV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미국인들이 오순절치유의 부흥에 대한 영적인 기대를 갖게 된 것은³⁵⁵⁾, GOR의 전인치유사역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한 선교에 불을 붙이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OR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치유운동가가³⁵⁶⁾ 되는 계기도 되었다.

몽고메리(G. H. Montgomery) 작가의 말처럼 “GOR의 TV 방송 중에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술집(beer garden) 및 주점의 모든 판매가 중단이 될”³⁵⁷⁾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GOR의 TV 방송은 1958년도에 136개국에서

일, 16개의 방송국에서 30분씩 상영되었다.

351) *Abundant Life* Vol. 41, No. 3, May and June 1987, 13.

352) Lee Braxton, “Millions See the First Oral Roberts Telecast,”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9, No. 3, March 1955, 22.

353)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9, No. 1, January 1955, 6-7.

354) Jim E. Jr, Hunter, ““Where My Voice Is Heard Small”: The Development of Oral Roberts' Television Mini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42.

355)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127.

356) 조용기, 『설교예화 I』, 240-41.

357) G. H. Montgomery, “Television Follows Him Around the World,” *Abundant Life*, July 1956, 10.

상영될 정도로 확장되었다.³⁵⁸⁾ GOR의 라디오와 TV 방송 감독이었던 백스톤(Baxton)은 그의 방송사역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던 사람으로 그의 TV 사역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TV 시청자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GOR의 치유집회의 맨 앞줄을 차지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가 행하는 것을 보았고, GOR 앞에 줄지어선 사람들을 보았으며,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GOR의 손이 닿으면 그들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극적인 피날레로 GOR은 각각 개인의 집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다시 나타났다. GOR은 시청자인 그들에게 치유를 위하여 자신들의 심장이나 TV에 손을 올리는 것을 제안하며 그의 치유의 손길을 수 백 만 가정으로 확대시켰다.³⁵⁹⁾

백스톤의 말처럼 GOR의 TV 방송사역이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형천막치유집회에서 치유 부흥사의 기도로 일어났던 치유현상들이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TV를 틀어 놓은 곳에서 치유 부흥사의 기도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는 로마 가톨릭,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등 서로 다른 신학적 교리를 가진 자들도 속해 있었고 그들 속에서 역동적인 오순절 신앙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개개인의 치유경험과 사례, 간증들이 일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GOR의 TV 방송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GOR의 TV 방송은 미국전역 뿐 아니라 일본 TV 홍보활동을 통해 전인치유의 복음을 세계를 향해 전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런 그의 노력 가운데 TV 프로그램은³⁶⁰⁾ 일본에서 시청률이 높은 3개의 프로

358) Oral Robert, “My Plan for Television,”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2, January 1954, 12-14; G. H. Monegomery, “Oral Roberts's Television Guide,” *Abundant Life* Vol. 12, No. 3, March 1958, 29.

359) Lee Braxton, “Millions See the First Oral Roberts Telecast,”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9, No. 3, March 1955, 22;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127.

360) “The Healing Power of Christ in the Orient,” *Abundant Life* Vol. 15, No. 3, March 1961, 5.

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GOR의 사역방향성은 세계 미 전도종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는 선교적 시도였음을 알 수 있다.

GOR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역의 경계를 벗어나 비종교적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치유의 능력을 전할 방법을 연구하였다. GOR은 그의 친구이자 예술가인 랄프 카마이클(Ralph Carmichael)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TV 스페셜 프로그램’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만들었다. 이 스페셜 방송은 GOR의 방송사역 역사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³⁶¹⁾ 알렸다. 1969년, GOR은 ‘TV 스페셜 프로그램’의 청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간 1시간의 주요 시간대로 편성했다. 그리고 프라임 타임 TV에서 사용한 할리우드(Hollywood)의 유명한 출연 방식을³⁶²⁾ 차용하여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TV 스페셜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6천 4백 만 명이 증가하였다.

국제 종교 방송사(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회장인 벤 암스트롱(Ben Armstrong)은 GOR의 ‘TV 스페셜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원인을 “밝은 현대 음악, 매력적인 젊은이들, 빠른 속도와 뛰어난 기술 품질, 잘 알려진 스타들이 조화를 이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³⁶³⁾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평가인 제임스 모리스(James Morris)는 GOR의 “종교를 음악적 연예기술과 능숙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³⁶⁴⁾ 인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GOR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설교와 함께 유명인들의 출연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하였다.

361) Quebedeaux Richard, *The New Charismatics II*,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3, 109; Bill J. Leonard, “The Electric Church: An Interpretive Essay,” *Review and Expositor* 81, Winter 1984, 51. GOR 스페셜 방송에 대해 혹자는 “세계의 유명 인사들과 ORU의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보여주는 활발한 춤과 노래를 하는 재학생들의 출연은 비즈니스 산업을 보여준다.” 라고 하였다.

362)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118.

363) Ben Armstrong, *The Electric Church*, Nashville: Thomas Nelson, 1979, 86.

364) James Morris, *The Preach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3, 59.

하나님의 전인치유 능력을 통한 복음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한 GOR의 선교방식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중 1974년,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에서 ‘Minister’s Week’을 위해 가장 많은 청중이 GOR의 말을 들었다³⁶⁵⁾는 것은 사실상 당시 종교방송을 접하지 않는 수백 만 명의 사람들까지 GOR 방송의 청중이 되었음을³⁶⁶⁾ 의미한다. 1977년, 일요일 아침방송의 시청자는 110만 가구에 이르렀고, 그의 프로그램은 TV에서 진행되는 최고의 종교 프로그램이³⁶⁷⁾ 되었다. 1987년, 유나이티드 스타레스(United States)와 캐나다 전역을 통해 방송된 GOR의 프로그램은 매주 1,500,000명이 시청하는³⁶⁸⁾ 집계 결과를 이뤄냈다. 그 후로, 1996년 GOR은 Golden Eagle Broadcasting을 설립하게³⁶⁹⁾ 되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선교를 펼친 GOR을 향하여 한 아프리카 학자는 “오순절 문화가 갖고 있는 특정한 스타일을 대중화한 그의 미디어 사용은 실로 엄청났다.”³⁷⁰⁾며 시대적, 상황적인 영향력을 평가하였고, GOR의 TV 방송사역을 분석한 한 동료는 “이 방식으로(TV 방송사역) GOR은 성공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TV 방송사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³⁷¹⁾라는 말에서 과대평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0세기의 치유복음전도자이자 방송선교사였던 GOR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민에게 알림으로, 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치유사역을 하였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통한 전인치유를 알리기 위하여 미디어매체를 활용함으로 복음전과 효과를 극대화시킨 장본인 GOR은, 당시에

365) William Willimon, “Oral Roberts Goes Legitimate,” *Theology Today* Vol. 33, No. 3, October 1976, 279.

366) “Going Back on National Television,” *Abundant Life* Vol. 28, No. 5, May 1974, 8.

367) *The Christian Century* Vol. 127, No. 1, 12 January 2010, 14.

368) *Abundant Life* Vol. 41, No. 3, May and June 1987, 13.

369) “Oral Roberts,” *Oral Roberts Ministries*, 23 June 2011.

370) J. Kwabena Asamoah-Gyadu, “Your Miracle is on the Way: Oral Roberts and Mediated Pentecostalism in Africa,”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1, 2018, 5-26.

371) “Roberts Faces New Challenges,” *The Tulsa Tribune*, 5 February 1986, 5.

획기적인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선교를 이뤄냈다.

GOR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³⁷²⁾ 다가갔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GOR의 근본마음이 전인치유선교를 하는 데 일평생을 바치게 하였다.

GOR의 전도사역을 알아보기에 앞서 그가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1942년, GOR은 Oklahoma Baptist University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때 우연히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인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의 생애를 알게 되었다. 캐리가 동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큰일을 시도하는 자세, 모든 나라와 피조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는 고백에 큰 감명을 받고³⁷³⁾ GOR은 전인치유선교를 시작하면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은 선교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47년 5월 25일에 이너드(Enid)의 대형 교육관을 임대하여 열게 된 최초의 치유집회³⁷⁴⁾를 통해 GOR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한 치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³⁷⁵⁾ 동시에 GOR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복음전파에 대한 꿈을 품고 모임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선교에 발을 내딛었다.³⁷⁶⁾ 다음달, GOR은 치유에 관한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랜 친구인 Wick(Mildred Wick)과 함께 조지아(Georgia)주 뉴난(Newnan)에서 대규모 치유집회를 시작함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다.³⁷⁷⁾ Advocate에 따르면, 당시 GOR의

372) "Oral Roberts, Fiery Preacher, Dies at 91," *The New York Times*, 24 December 2009.

373)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9, No. 3, March 1955, 17.

374) 최초 치유집회 참석인원은 1,200명이었다. 집회 당시 38년 동안 오른손이 휘어졌던 여인의 손이 펴지는 등, 100여명이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았고 치유되었다. 더불어 회복되어 자유로워진 모습을 본 주변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집단개종현상이 일어났다.

375) "Oral Roberts obituary," *The Guardian*. London, 21 December 2009.

376)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81.

377) "Healing Revival in Newnan Church," *Pentecostal Holiness Advocate*, 17 July 1947,

집회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약 5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치유되었고, 성령세례를 받았다. 그의 치유집회는 수백 명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³⁷⁸⁾ 동반하였다.

GOR은 텔사의 작은 교회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개교회 체육관까지 장소와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메시지를 선포하며, 개개인의 안수기도를 통해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사역을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과거 자신들의 죄악 된 생활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작게는 감기부터 각종 불치병을 포함하여 심지어 암까지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 이처럼 치유집회가 갈수록 부흥하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의 전인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통한 영혼구원을 위해 GOR은 대형 천막(Tent Cathedral) 장외집회를³⁷⁹⁾ 결심한다.

1948년, 대형 천막을 사용한 GOR의 치유집회에 대한 영향력은 당시 상황을 잘 알려준 *Healing Waters*에 면밀히 묘사되어 있다.

GOR은 청천벽력같이 임한 능력을 받아 용맹스럽게 연단에서 뛰어 내렸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연단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있는 힘껏 절뚝대는 절름발이들과 길을 더듬는 맹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이 그들의 고통 받고 있는 몸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울고 있는 가운데, 귀머거리들에게 GOR이 손을 대거나 혹은 그들이 GOR에게 손을 대면 들것에서 뛰어내려서 솟구쳐 기도하며, 믿는 사람들의 무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치유의 강물처럼 휘몰아치는 능력은 30분가량 지속되었다. 다음날 아침 남겨진 천막의 사방에는 목발들이 뒹굴고 있었다.³⁸⁰⁾

10-11.

378) 같은 곳.

379) 위의 책, 84; Gordon Linsay, "Visit to Great Roberts Tent Meet at Granite City," *The Voice of Healing*, September 1948, 7. 치유 부흥사였던 고든 린지(Gordon Linsay)는 GOR의 치유집회 계획과 준비에 대하여 *The Voice of Healing*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380) "3.342 Come for Salvation during Roberts Healing Campaign in Durham, N.C.," *Healing Waters*, August 1948, 1; Hurrell, E. David, *Oral Roberts*, 86.

GOR의 치유집회는 의료적 행위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질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집회현장에서 GOR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과거부터 얽매어 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GOR은 기적과 이적의 현상을 보였던 치유집회의 과정과 결과들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왔다고³⁸¹⁾ 고백한다.

치유집회가 있었던 다음날, 집회 장소에는 수 십 가지의 내장신발,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을 비롯하여 치유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필수로 소지해야 했던 물건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현장의 모습은 치유를 통한 회복을 가시화할 수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치유현장의 증거를 통하여 GOR은 대중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³⁸²⁾ 하였다.

세계 전역에 관심을 끌었던 사건³⁸³⁾ 이후로, GOR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음전파와 치유를 위한 도구로 이전 천막의 두 배 이상의 크기인 7,500석 규모의 새로운 대형천막을 재준비한다. 이것이 1950년 10월, 텍사스(Texas)주의 애머릴로(Amarillo)에서 열린 치유집회이다. 매일 저녁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갈망하며 몰려오기도³⁸⁴⁾ 하였다.

특히, 미네소다(Minnesota)주의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대규모 천막집회를 통해 통계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인원은 1,013명으

381) *Abundant Life* Vol. 38, No. 2, February 1984, 7-13.

382) 같은 곳.

383) 집회날, 한밤 중 강한 태풍으로 천막은 날아가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던 GOR이 약 10feet 정도의 높이로 하늘에 빨려 올라가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누가 봐도 대형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명의 부상자로 종결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건 다음날 *Amarillo Daily News*는 이 사건과 6개월 전, 코네티컷(Connecticut)의 하트퍼드(Hartford)에서 서커스를 관람하던 장소를 덮고 있던 천막에 불이 나서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교하여 기사화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미국 전역에 있는 신문사들은 GOR의 집회사고에 대한 보도를 전파하였고, GOR의 치유천막집회는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384) Vinson Synan, "The Pentecostal Roots of Oral Roberts' Healing ministry," 291.

로 이들의 회심에 따라 개종카드의 작성이 이뤄졌다. 이 당시 폐회집회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³⁸⁵⁾ 복음을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1950년에는 GOR의 집회에 1,176,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략 5,000명이 성령세례를³⁸⁶⁾ 받았다. GOR의 11번의 치유집회에서 1,500,0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이중에 66,000명이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안수기도를 받았으며 38,45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³⁸⁷⁾ 결과가 일어났다. GOR의 치유집회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GOR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고 하나님의 치유능력은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GOR의 선교집회를 통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³⁸⁸⁾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결국 GOR은 1953년에 사상 최고의 규모인 1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천막을 통해 치유집회를 연다.

당시 언론들은 GOR의 치유집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너드(Enid)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에서 수백 명이 시내 컨벤션 홀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뉴욕(New York)의 시러큐스(Syracuse)에서는 어느 날 저녁, 그의 설교를 직접 듣기 위해 6,000여명이 “진흙탕을 헤치며 걸어갔다.”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에 헌팅턴(Huntington)에서는 어느 오후에 8,000여 명이 천막에 들어가기 위해 눈보라 속에 서 있었으며, 오하이오(Ohio)주 콜럼버스(Columbus)에서는 2만에서 2만 5천명의 사람들이 주 박람회장에서 있는 거대한 대형 천막에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용기를 냈다.³⁸⁹⁾

385) *Healing Waters*, October 1948, 3.

386) “Over One Million Attend Roberts Meetings the First Nine Months Of 1950,” *Healing Water* Vol. 5, No. 1, December 1950, 4.

387) Oral Roberts, “Summary of Oral Roberts Ministry in 1952,” *Healing Waters* Vol. 7, No. 3, February 1953, 13.

388)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7, No. 12, November 1953, 14.

389) “Evangelist Oral Much Like Billy,”; Doris Miller, “Roberts Draws 8,000 at Close,” *Herald Dispatch*, March 1958, 10; “Over 20,000 Brave Hear to Hear Roberts,” *Columbus(Ohio) Evening News*, 15 July 1957;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107.

특히, 1954년 볼티모어(Baltimore)에서 열린 GOR의 집회를 방문한 윌리엄 화이트빌(S. J. Williams Whiteville. N. C) 목사의 고백은 GOR의 치유집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나는 볼티모어 회의에서 보낸 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서 GOR목사를 통해 영혼을 구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병동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용기 있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대형 천막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GOR의 치유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나는 이 현장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GOR 목사만의 방식으로 더 큰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현장을 직접 본 나는 앞으로 있을 GOR의 치유집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³⁹⁰⁾

더불어 윌버 와이즈(Wilbur E. Weides)의 말은 GOR이 전한 복음이 많은 이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강력한 신뢰를 보여준다.

매일 밤 수백 명이 구원을 위해 대형 천막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몸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치유자로 찾았습니다. GOR의 긍정적인 복음전과 활동은 매일 밤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극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나는 GOR의 오른손인 ‘접촉점’을 온전히 믿진 않았지만,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접촉점에 대한 기대에 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³⁹¹⁾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GOR의 대형 천막집회의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공간이 부족해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천막 밖은 제 2의 기도장소가 될 정도로 GOR의 선교 영향력은 하나

390)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9, August 1954, 9.

391) 위의 책, 14.

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를 갈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오는 사람들의 열정을 일으킬 정도로 파급적이었다. 치유를 통한 천막집회 방식은, GOR이 7,00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기도하였는데 GOR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기 위해 따르는³⁹²⁾ 사람들도 많았다. 한 장소에서 단 한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모였고,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개종이 일어났다.

1960년, GOR은 성령세례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면서 그의 치유선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재조명³⁹³⁾되었다. 그 후로 GOR의 대형천막집회에는 12,500명 이상의 회중들이 모였고, GOR은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메시지에 매진하며 역동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47년에서 1968년 동안 GOR은 전 세계 46개국과 6개 대륙을 다니며 300번 이상의 치유복음집회를 통해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³⁹⁴⁾하였다. 이처럼 GOR의 치유집회를 통한 선교는 1950~60년대에 그를 치유복음전도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명성을 얻게³⁹⁵⁾ 하였다.

GOR의 전인치유선교는 아시아를 향했다. GOR에게 치유사역에 관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 영산은 5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시무하면서 일본에 천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다. 당시 지구상에서 일본은 복음이 가장 낙후된 국가로 조상숭배 풍습으로 1억 2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약 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영산은 일본선교를 향하여 8년간의 기도와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사역을 행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일본을 향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영

392)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9, No. 7, July 1955, 4.

393) Daniel D. Isgrigg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었다.

394) “Oral Roberts Dies,” *Tulsa Today*, 21 December 2009; *Behrens, Zach*, 15 December 2009; “Oral Roberts Dies: Funeral Arrangements Pending for Legendary Evangelist,” *KTUL-TV*, 15 December 2009.

395)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759-60.

산은 GOR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GOR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느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GOR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와 회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사도행전 2장 38절을 근거로 성령을 통한 치유의 능력을 전했다³⁹⁶⁾ 기적과 이적의 치유가 일어났다. GOR의 일본 치유집회에 대해 래리 레아(Larry Lea)는, 일본 역사상 6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오사카에서 3,500명이 수용 가능한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것은 오순절에 대한 엄청난 경험이었다고³⁹⁷⁾ 감탄하였다.

1987년, 40년 만에 GOR은 46개국, 6개 대륙 및 217개 도시에서 군중을 위해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최대 100,000명을 넘는 치유를 통한 선교를 이뤄냈다. 그의 치유집회는³⁹⁸⁾ 정기적으로 12,000석 규모의 학교 대강당을 사람들로 메웠다. 1989년 당시 영산은 600,000명의 성도가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GOR을 초대하였다. 250,000명 이상이 모인 한국의 가장 큰 경기장에서의 개막식 예배에서³⁹⁹⁾ 영산은 GOR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제안하였다. 이 둘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치유력이 강력하게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⁴⁰⁰⁾ 일어났다.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통한 복음전파 대상으로 아시아를 지목했던 GOR은, 아시아를 향한 기독교 TV개척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였고,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부 지도자들과 만나는 아시아 선교를⁴⁰¹⁾ 향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1954년 미국 최초로 대형천막집회를 방영한 TV 미디어사역의 발전과 부흥은⁴⁰²⁾ 가히 놀라웠다. 오순절 교단과 협력하면서 진행된 GOR의 초대형 천막을 통한 치유집회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어우러져 사람들의 직접적인 필

396) *Abundant Life* Vol. 40, No. 6, November and December 1986, 4-7.

397) 위의 책, 8.

398) *Abundant Life* Vol. 41, No. 3, May and June 1987, 5.

399) 약 300여명 목회자의 행진과 600여명의 장로, 2,000개의 성가대, 오케스트라와 전 세계에서 온 8개 신학교의 졸업생들과 독일, 브라질, 미국의 350명의 선교사의 행진이 진행되었다.

400) *Abundant Life* Vol. 43, No. 4, July and August 1989, 12-13.

401) *Abundant Life* Vol. 36, No. 8, August 1982, 8.

402) 김계봉,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오순절 신학의 본산,” 246-54.

요와 갈망을 가시적으로 해결해주는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회개와 구원, 치유를 통한 GOR의 복음전도치유집회는 1967년 마지막 집회까지 오순절 역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폭발적인 에너지와 열정이 넘쳤던 GOR의 대형천막 치유집회는 불신자에게 구주를 영접함으로 영혼구원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였는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사회나, 의학이 해결해주지 못한 온전한 건강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403) 의미에서 극히 성경적인 사역이었다. 그래서 당시 성령의 치유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기성교단의 목회자들에게 GOR의 치유집회가 하나님의 현존을 통한 그들의 고정관념에 일침을 가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면에서 오순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GOR의 방송/전도사역의 방향성과 방식은 오늘날 다문화적이고 빠르게 변해가는 상황과 시대를 향한 선교방안을 고려할 때 매우 필수적일 것이다. GOR은 전인치유선교의 범위를 방송과 집회에서 멈추지 않았다. 선교의 지속성과 유지, 전인의 건강을 위한 선교적 방안으로 교육사역을 행하였다.

D. 문헌/교육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

GOR은 미국 전역을 비롯하여 아시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⁴⁰⁴⁾ 등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치유를 일으켰다. 이러한 그의 선교는 치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개종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GOR은 교회를 시무하였던 목회자이고 다수의 책을 저술하고 신문 및 월간지에 자신을 글을 기고했던 작가이며 강의를 통해 후학을 양성했던 교육자

403) Buchanan, Duncan, 『예수의 상담과 실제』, 15.

404) <https://danieldisgrigg.com/2020/04/17/oral-roberts-the-almost-missionary-to-palestine/>, 2020. 05. 14. 접속.

였다.

GOR의 믿음, 그에 따른 신학이 체계적으로 기반되었던 GOR의 문헌 사역은, 믿음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확신을 보여준다. 그 당시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들이 신학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일 때, GOR은 오순절 교회를 시무하면서도 본인의 차 속에 100여권의 도서를 가지고 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적 삶의 모습은⁴⁰⁵⁾ 그의 학문에 대한 깊이와 열정을 잘 알려준다. 그의 이러한 관심과 열정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지도자들의 학문에 대한 깊이를 우려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면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동기는 1938년에 *Salvation by the Blood*, 1941년에는 *the Drama of the End-Times*를 출판하여 교단의 지도를 세우는 데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GOR이 쇼니(Shawnee)에서 목사로 지낼 때에 교단 논문인 *Pentecostal Holiness Advocate*의 정기기고자로서, 동료 목사들에게 성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글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GOR은 정기적으로 *East Oklahoma Conference News*에서 모든 교회 부흥의 중요성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목회자로서 GOR은 성령을 통한 교회부흥에 관심이 많았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치유 사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저술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던 GOR은 그 후로, 1943년 9월, 집회를 통한 전인치유 사역과 관련하여 문헌 사역도⁴⁰⁶⁾ 활발하게 이루어 갔다. 재능있는 사상가였던 그의 글은 전반적으로 글의 목적을 대중에 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⁴⁰⁷⁾ 쓰였다. GOR은 저작들을 통하여 자신의 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사역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중점을 가했다. 그의 문헌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치

405)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69.

406)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024.

407) R. Samuel Thorpe, "An Overview of the Theology of Oral Roberts," 260.

유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길 원하는 동기로 진행되었다. 이는 1947년에 처음 출판된 자신의 첫 번째 저서 *If You Need Healing-Do These Things*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에 관한 간증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독자들의 믿음 성장에 주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저작 이후로, GOR은 본격적으로 치유, 성령, 씨앗 믿음인 신앙의 원리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1947년 11월, GOR의 월간잡지 *Healing Water*의 창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를 널리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 초기 10,000부의 인쇄로 시작한 *Healing Water*의 보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고, 잡지에 기재된 치유 기사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병을 치유 받는 성령능력 체험의 간증들이 확산하였다. *Healing Water* 기사로 인한 곳곳에서의 치유체험은 GOR의 집회를 더욱 부각시키는 윤회제의 역할을 하여 장외 치유집회에는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모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Healing Water* 독자는 증가하게 되었고 1956년도에 1,000,000부를 돌파하게⁴⁰⁸⁾ 된다. 같은 해에 시작하여 1961년까지 GOR은 치유 집회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치유간증을 담은 “Oral Roberts’ True Stories” 라는 주제로 *comic books*를 발행하였다. 잡지 출판시기 사이에 1952년부터 약 10년간 GOR은 몽고메리(Montgomery)와 함께 많은 저서를⁴⁰⁹⁾ 저술하였다.

1959년, GOR의 칼럼은 674개의 신문에 기재되기 시작하였고⁴¹⁰⁾, 이 해부터 경건생활을 위한 잡지로 발행된 *Daily Blessing*의 고객은 2천 5백만 명을⁴¹¹⁾ 돌파하였다. 그가 발행한 잡지 *Healing Waters*는 1956년에 *America’s Healing Magazine*로, 그 후는 *Abundant Life*⁴¹²⁾로 수정되어 계획된 치유집회에

408)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130.

409)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4.

410)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130.

411) 톰슨 매튜, “오랄 로버츠 목사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치유신학에 대한 비교평가,” 39.

대한 정보, 치유에 대한 간증을 통한 사역 홍보와 후에는 ORU에 관한 내용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 GOR은 월간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전 지역에 알렸고 그 결과, 이 월간 잡지는 GOR의 치유, 성령, 신앙의 근본원리 등 광범위하게 저술한 문헌의 일부로서 백만 권 이상⁴¹³⁾ 발부되었다.

GOR은 50년대부터 방송을 통해 치유사역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1961년, 성령론에 대한 깨우침은 그의 출판물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로 1962년 1월에 *Abundant Life*에서 치유를 통한 성령 안에서의 세례가 이슈가 되었다. *Abundant Life*에서는 GOR의 치유집회에 참여하거나 시청하며 직접적으로 성령세례를 통해 치유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⁴¹⁴⁾ 다루어졌다.

1980년대까지 GOR의 저서는 88권으로 1500만권 이상이 배포되었고, 각지의 후원자로부터 받은 편지는 5백 만 통을⁴¹⁵⁾ 초과하였다. 이는 GOR의 문헌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그의 자서전 *Expect A Miracle: My Life and My Ministry*를 비롯하여 9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한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의 실제 증거자료를 매거진에 기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여 치유운동에 협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에도 수많은 그의 저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세계를 향해 전하려는 후학들의 필수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GOR의 전인치유선교로서 문헌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412)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6-7;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440-1, 713, 950-1, 1024-5. 당시 백만 부 넘게 유통된 월간 잡지이다. 이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GOR은 수많은 주류 교단의 인정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오순절주의자가 되었다.

413) 톰슨 매튜, “오랄 로버츠 목사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치유신학에 대한 비교평가,” 39.

414) “They Testify at the Crusade...,” *Abundant Life* Vol. 16, No. 1, January 1962, 10-11.

415)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024.

GOR은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를 문헌사역으로 단정짓지 않았다. 그는 치유를 일으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미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이에 그는 전인치유선교 사명의 목적이자 치유의 일환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즉 학교설립은 일반 학문의 비전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질적 실행의 방법이자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 6월 GOR은 다음의 메시지를 시발점으로 전인치유를 위한 교육적 방안으로 대학교설립을 계획한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라.
내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도록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그 치유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너의 할 일보다 많을 것이다.
이로써 나는 기뻐 것이다.⁴¹⁶⁾

1965년에 오클라호마(Oklahoma) 주의 털사(Tulsa)에 300명의 남, 여학생으로 시작된 ORU는 카리스마를 선도하는⁴¹⁷⁾ 대학이다. 학교는 1970년대에 약 5,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만큼 성장하였고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의학, 간호학, 치과학, 법학, 경영학, 교육학, 신학의 7개 대학이 추가되어 주요 인증기관이⁴¹⁸⁾ 되었다. 1982년에는 대학의 모든 부서(학부, 대학원 및 전문학부)에서 졸업자들이 나왔는데 ORU는 평균적으로 4,600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노스 센트럴 협회(North Central Association), 신학대학연합회(Association

416)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162; Richard L. Roberts,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Course, "Charismatic Life and The Healing Ministry," On Oral Roberts University Undergraduates,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48. GOR은 이 메시지를 ORU설립이념으로 정하였으며, 실제로 현재 대학 강당인 Mabee Center의 중앙을 비롯하여 기도탑 등 여러 장소에 메시지를 새겨놓았다.

417) Lewis F. Wilson, "Bibles, Institutes, Colleges, Universitie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64.

418)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025.

of Theological Schools), 학교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가 인정한 학교이다. 특히 음악 대학은 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⁴¹⁹⁾할 정도로 뛰어났다. 음악대학의 남다른 발전과 성장은 현대에도 오순절교단의 예배 가운데 음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GOR의 오순절 전통적 신학이 뿌리에 담겨있으리라 생각된다.

학교의 창립목표이자 비전은⁴²⁰⁾ 연구자가 방문했을 당시에 대학 안 곳곳에 적혀있었다. 이는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어디든지 전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설립 이래 많은 재학생이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단기선교, 장기선교를 행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학교의 창립비전으로 삼은 GOR의 의도가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영적 목표에 대하여 그는 “ORU는 순수 교육기관으로만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대한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도구이다.”라며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학자들이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을 반박하며 1974년 Faculty Meeting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시대의 철학자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나는 뿔뿔 뿔친 그들(철학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인간의 영혼과 몸과 마음에 대한 그분의 치유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그들의 주장이 쓰인 글도 가치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이성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얼음처럼 차갑고, 더 이상 인

419) 같은 곳.

420) Orla Roberts, *Expect A Miracle*, 162; Richard L. Roberts,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Course, “Charismatic Life and The Healing Ministry,” On Oral Roberts University Undergraduates,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48. 창립목표이자 비전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라. 내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도록.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그 치유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곳이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너의 할 일보다 많을 것이다. 이로써 나는 기뻐할 것이다.”

간이 아닌, 감정이 없는 많은 학생들로 만들 수 있다.⁴²¹⁾

GOR이 학교에 세운 영적 목표는 일반 고등학문을 통한 지성의 깊이만을 생각하는 대학을 뛰어넘어 한 인간의 전인치유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카리스마 교리에 중점을 둔 전인교육⁴²²⁾을 이루겠다는 그의 계획과 의도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들과는 큰 차별성을 두었다.

GOR의 학교를 향한 영적 목표와 더불어 학문적 비전은, 성령의 힘을 통한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적으로 유능한 지도자(Leader)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비전이 성립되기 위하여 학교는 성령 충만한 치유 공동체가 되며 이 안에서 모든 교수진 및 교직원들은 재학생이 지식, 기술, 지혜, 성품 및 올바른 정신으로 훈련되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준다. 오로지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훈련시키고자 모든 환경이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전인교육을 통하여 준비된 지도자들이 세계 어디든 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펼칠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GOR은 이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언어를 통해 ORU의 교육커리큘럼을 세우고 건축설계를⁴²³⁾ 하였다.

GOR은 성령 중심으로 전인건강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당시 주요 학교에서 성령적인 삶이 배제되어 있는 교육학부들이 존재한다고 알았던 그는, ORU는 “교육적 우수성과 성령지도적인 환경에서 우리 재학생을 위한 전인 교육철학이 이뤄질 것”⁴²⁴⁾ 이라며 삼중으로 이뤄진 교육이념을 세웠다. 삼중교육이념은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성의 함양, 지속적인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단련, 이 둘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영성 확

421) Oral Roberts, *Faculty Chapel Transcript*, 19 August 1974, 16;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200.

422) Vu, Michelle, “Oral Roberts Memorial a Stage for 'Seed Faith' Message,” *The Christian Post*, 22 December 2009.

423)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177-80; <https://oru.edu/about-oru/index.php>, 2020. 3. 18. 접속.

424) Oral Roberts, “Eight Major Goals of the University,” *ORU Witness*, July 1964, 3.

립이 동시에 병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았다.⁴²⁵⁾ 학교의 모든 부분을 성령 위에 세우고 전인의 건강과 교육을 중시한 것이다.

전인교육을 위한 GOR의 비전은 학교의 목적선언문의 목표를 보면 알 수 있다. ORU의 전인교육을 위한 10가지 목표는⁴²⁶⁾ 1) 의사소통 기술 2) 분석 3) 문제 해결 4) 의사 결정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 5) 사회적 상호 작용 6) 세계적 관점 7) 효과적인 시민권 8) 심미적 반응성 9) 영적 성장 10) 신체 발달이다. 이 10가지 목표는 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학의 구성요소가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는 수년에 걸쳐 변경되었지만, ORU의 목적, 사명 및 비전을 기반으로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관련된 10가지 일반적인 목표를 개발한 것이다. 이 목표는 일반 교육 뿐만 아니라 개별 과정, 전공 및 학위와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생을 “영적으로 살아 있고 지적으로 견고하며 신체적으로 훈련된 통합된 사람⁴²⁷⁾”인 전인 교육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도록 설계되었다.

ORU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건물로 외형이 ‘십자가와 가시면류관’과 유사한 기도탑(Prayer Tower)⁴²⁸⁾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기도탑은 GOR의 치유사역이 강조하였던 성령 안에서 의학과 믿음의 기도의 연합 중 믿음의 기도의 의미를⁴²⁹⁾ 품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탑은 대학교의 모든 교육의 중심이 성령

425)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243.

426) Oral Roberts University Catalog 2000-2002 Vol. 21, No. 1, Tulsa: Oral Roberts University, 2000, 33.

427) Richard L. Roberts,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Course, “Charismatic Life and The Healing Ministry,” On Oral Roberts University Undergraduates,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48-49; Oral Roberts, *The Holy Spirit in the Now I*, Tulsa, Oklahoma: Oral Roberts University, 1981; Daniel D. Isgrigg, “Oral Roberts: A Man of The Spirit,” 341. 특히 시대를 앞서 갔던 GOR의 전인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계획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1972년, 영국의 한 사업가가 ORU에 기부를 하였는데 이 기부금으로 1982년까지 10년간 ‘현존하는 성령’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 GOR 강의를 통해 수천 명의 재학생이 기도언어, 성령의 은사 등의 주제로 배움을 넓혀가는 성장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428) Oral Roberts, “Why Build a Prayer Tower?,” *Oral Roberts University Outreach*, Winter 1966, 7-10. 건축가 프랭크 윌리스(Frank Wallace)가 설계했다. 뛰어난 건축설계로, 미래형 십자가 모양으로 디자인된 ‘영원한 불꽃’은 성령세례를 상징한다.

이 될 것이라는⁴³⁰⁾ 의미를 나타낸다. 이 기도탑에는 성령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방들이 존재하는데⁴³¹⁾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기도하며 영적 건강을 유지, 성장, 회복시키도록 돕는다. 기도탑의 건축을 통하여 GOR의 전인치유를 통한 전인건강에 있어서 영의 회복이 얼마나 중심을 이루는지 알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건물은 학업의 성취 속에서도 성령의 기도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GOR의 전인 치유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었던 영적 측면의 건강을 위한 커리큘럼은 모든 재학생을 포함하여 전 직원과 교수진이 매주 있는 예배모임(chapel)으로 세웠다. 예배모임의 교육적 의의는⁴³²⁾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개인의 믿음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예배당이 학교 중앙에 위치한 기도탑 옆에 지어진 것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신앙이 최우선임을⁴³³⁾ 의미한다. 이는 학교가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과 다인종 학생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형 강당에서 이뤄지는 예배모

429) “History of Oral Roberts University,” Archived 21 August 2010, at the Wayback Machine Dingman. com, Tulsa, OK, 8 May 2009.

430) Oral Roberts, *Unleashing the Power of Praying in the Spirit*, Tulsa, Oklahoma: Harrison House, 1993, 87.

431) Oral Roberts, “My Eighteen Hours with God in Miami,” *Abundant Life* Vol. 17, No. 5, May 1963, 7. 기도탑은 어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며 1층에는 GOR의 치유사역 내용, 기도탑과 학교설립에 관한 역사가 기록, 전시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층은 공동체가 기도모임, 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개인이 묵상기도를 할 수 있는 작은 방들로 나뉘어 있다. 연구자가 방문했을 당시, 재학생들이 각 방, 또는 소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며 그 분위기는 경건하고 고요했다.

432) 연구자는 ORU에 직접 방문하여 GOR의 영 건강을 위한 교육커리큘럼인 예배모임을 참석하였다. 예배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ORU의 모든 재학생의 모습은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예배모임이 시작되기 30-40분 전부터 줄을 서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재학생의 모습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의 영적 능력을 잘 알려주었다. 특히 한 한국유학생과의 대화는 다인종이 모인 재학생의 심정을 잘 대변해준다. 그 유학생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외롭고 지치는 마음과 영을 예배모임을 통해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받고 있다며 영적 건강을 교육하는 학교이념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ORU의 예배모임은 과거 GOR의 대형천막집회를 상기시키는 집회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배모임은 3,500석 규모의 미래지향적인 건물인 Christ’s Chapel에서 매주 수, 금요일에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https://oru.edu/chapel/> 에서 볼 수 있다. 2020. 3. 24. 접속.

433) 김계봉,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오순절 신학의 본산,” 참고.

임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롭고 뜨거운 찬양을 시작으로 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재학생에게 영적도움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유명한 지도자들이 매주 특별 손님으로 초청되어⁴³⁴⁾ 복음을 전한다. 영적 건강을 중시함으로 모든 재학생에게 필수인 예배모임의 특별한 프로그램, ‘혼전순결서약’⁴³⁵⁾의 시간은 ORU만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 교육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적 결혼관과 혼전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뤄진 자신의 육체를 올바르게 여기도록 돕는다. 이에 대한 목적은 재학생의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력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전인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이에 재학생의 다짐과 서약은 동시에 실천의 고백으로 이어진다. 이는 ORU의 육과 혼의 건강과 더불어 영의 건강을 지키는 전인교육의 중요한 커리큘럼이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전인교육을 강조한 GOR은 학교 설립 후, 매주 있는 예배모임⁴³⁶⁾을 통해 재학생의 영적 건강을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하였다.

ORU의 육(체)적 측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한 커리큘럼은 실제 운동 강의를 필수로⁴³⁷⁾ 포함되어 있다. GOR은 육체의 건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육체의 치유가 혼과 영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그의 경험과 치유사역 안에서 익히 알아오던 바였다. 인간의 전인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GOR은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학교 설립부터 운동수업을 개설하여 재학생이 육적 건강을 관리하고 성장하는 것을⁴³⁸⁾ 중시

434) “Honor Pledge,” *Oral Roberts University*, 18 September 2009.

435) 같은 곳.

436) “Enter In(formerly ORU Chapel),” *Golden Eagles Broadcasting*, 24 September 2009. <https://www.youtube.com/watch?v=v9DFt2CV1Ts&feature=share>, 2020. 03. 28. 접속. 예배 모임은 TV 방송과 위성으로 생중계를 통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437) <https://oruathletics.com/landing/index>, 2020. 03. 24. 접속.

438) GOR의 육을 위한 교육은 현재 더욱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종 스포츠 및 체육 보건 강좌(HPE)와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두 번, 선택종목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는 실제적 현장학습을 한다. 운동종목은 볼링, 스노클링, 승마, 배드민턴, 테니스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재학생은 필수 신청을 시작으로 매 학기말 필드 테스트(field test)를 통과해야 한다.

하였다. 동시에 GOR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당시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스포츠를 우상시여길 정도로 좋아했다. 이에 GOR은 ORU가 스포츠 세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GOR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기회를 스포츠로 찾아 모든 운동선수와 코치들에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 뛰도록 하였고, 그 외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츠팀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였다. 학교의 첫 농구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처럼 경기를 뛰었다. 중계된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알려져 야구, 테니스, 골프를 비롯한 기타 스포츠가 추가되었다. 그 후로 10년 동안에 ORU의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과 전국 TV방송의 SPORTS PAGES에 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일주일에 1백만 명 이상의 일반 TV프로그램 시청자 수가 늘어났다. GOR은 이 스포츠 사역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씨앗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⁴³⁹⁾ 생각하였다. 이처럼 스포츠를 개인의 육체 건강의 중요성과 더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본 GOR의 커리큘럼은 전인건강을 위한 선교 방식으로 탁월했다.

또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GOR은 세계 어디든 전인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진행하였다. 즉, 성령을 통하여 이뤄지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도가 확실했던 GOR의 치유사역 교육은 기도와 의학의 교차에서 국한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가 말하는 치유는 본질적으로 전체론적인 개념이다. 모든 인간은 재정을 비롯하여 인간관계, 법적문제,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관하여 예외 없이 모든 영역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회복가능하며 누구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치유의 대상이다. 그는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안수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함으로 자신에게 시작된 복음치유의 비전이 재학생에게 그대로 전수되길 바랐다. 그로 인해 치유팀(Healing-Team)이 세계를 향한 치유선

439) *Abundant Life* Vol. 35, No. 2, February 1981, 21.

교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⁴⁴⁰⁾ 믿었다.

1970년대 GOR은 미종족을 향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복음전도를 통한 선교를 행할 수백 개의 치유팀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GOR의 선교를 위한 훈련과 목표실행력을 본 지미 부스커크(Jimmy Buskirk)는 “ORU가 세계 선교에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높게 평가하였다.⁴⁴¹⁾ GOR은 ORU에 속해있는 의학, 교육, 비즈니스, 법률, 사회사업, 신학 및 기타 모든 전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대략 100여 개국에서 모인 재학생과 미국 전역에서 온 재학생으로 구성된 치유팀을 결성하였다. ORU 졸업생은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목사, 기도 동역자, 음악가 및 기타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각 치유팀을 구성하여 약 1만 명의 재학생이 1988년까지 800개의 치유팀, 21세기에는 1,000개의 치유팀이 만들어지기 위한 프로젝트가 세워졌다. 이 프로젝트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사역이 GOR 본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치유팀이 치유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무를 수행⁴⁴²⁾하는 데 있다.

ORU의 치유팀 사역은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보냄을 받아 학교 개척 정신에 부합한 치유사역을 실행하는 것이었는데, 이 치유팀의 비전의 규모와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되면서 GOR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까지 내놓았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의학과 기도를 병합할 믿음의 도시에서 최후까지 훈련하는 의료진들이 치유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유팀에 관한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대하며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치유사역을 유

440) Jim Ernest, Hunter, “Gathering of Sects: Revivalistic Pluralism in Tulsa, Oklahoma, 1945-1985,”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6, 294-317.

441) Kevin Schneider, “A History of ORU Healing Teams,” 227.

442) Lee Braxton, “I Followed Oral Roberts Across America,” *Healing Waters* Vol. 3, No. 1, December 1949, 4; *Abundant Life* Vol. 34, No. 9, October 1980, 18.

지할 수 백 명의 치유팀이 세워지고 전 세계에 파송되려면, 큰 시설과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 분이 다 사용될 때까지 건축에 힘쓸 것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면 모든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이 사역이 온전하게 치유팀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라는 소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훗날 그들이 할 수 있게 됨을 보지 못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⁴⁴³⁾

GOR 자신의 전 재산을 거론하며 동역자의 지원을 요청한 그의 호소는 전 세계에 나가 치유사역을 이룰 치유팀에 대한 계획과 기대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R의 치유팀 선교사역은 1975년 ORU가 중동 지역에 위치한 베르타 스파포드 베스터(Bertha Spafford Vester)⁴⁴⁴⁾ 클리닉을 후원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재학생으로 훈련되어진 치유팀 ‘파일럿(Pilot)’⁴⁴⁵⁾은 스파포드 클리닉 및 기타 협력기관의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건강관리, 사랑과 관심을 통한 전인을 치유하는 복음 선교를 하였다. 이는 곧 선교의 대상을 기관에만 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을 향한 것이었다. 선교의 영향을 지역까지 포괄적으로 본 파일럿의 목적은, 첫 선교대상인 스파포드 클리닉에서 기독교인, 무슬림 및 유대인 간의 화해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스파포드 클리닉은 정치, 종교적으로 가능한 환경에서 치유팀을 위한 학생 훈련을 할 수 있는 의료 기지국이 제공되길 희망하였다. 즉, 파일럿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통한 복음을 전하였고 선교대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문성을 통해 해결해주었다. 결국 각 전문적 기술능력에 맞게 분배하여 협력함으로 주변 환경의 발전을 도왔고 더

443) Oral Roberts, “My Plan for Television,”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2, January 1954, 14.

444) 이 클리닉은 1925년에 베르타 스파포드 베스터(Bertha Spafford Vester)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50년이 채 되지 않아 여성과 어린이가 25,000명에 다다르게 되었고 기존 가정을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445) 당시 ORU의 치유팀 ‘파일럿’은 졸업생 파견 및 장기적 선교비전을 위해 단기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아가 지역을 향해 복음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역을 이룬 것이다. 이와 같은 선교방식은 선교지 자체 내에서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재생산을 이루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GOR의 치유팀을 위한 개발 훈련 프로그램은⁴⁴⁶⁾ 사람과 토지에 대한 지식, 문화적 적응,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유팀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기관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스타일의 건강관리 규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치유팀은 여러 기관과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각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⁴⁴⁷⁾ 수행하였다. 이는 조선을 향해 의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외국선교사들의 선교방식에서 더 나아가 미자립 선교지의 문화적 상황화를 통해 자립, 자선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선교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수천 명의 재학생이 100여 개국에서 교육, 음악 제공, 건물 건축을 비롯하여 발갈이 등의 지역적 상황과 필요에 맞춰 전한 선교 방식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주었다.⁴⁴⁸⁾ GOR을 통한 ORU의 선교사역은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선교와 국제 사회 개발을 통한 연구 및 실천으로 지속되고⁴⁴⁹⁾ 있다.

이처럼 GOR은 믿음의 도시와 협력하여 각 세계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 봉사할 치유팀이 80년대의 위대한 치유력이 될 것을 확신하였다. 치유팀은 전국에서 모인 4,000명 이상의 재학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사랑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이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인류를 향한 강력한 치유

446) "Oklahoma Faith-Healer Draws a Following," *The Christian Century*, 29 June 1955, 749-50.

447) 같은 곳.

448) *Abundant Life* Vol. 36, No. 8, August 1982, 22.

449) 1976년 여름선교프로그램(Summer Missions Program)은 1978년 12개국에서 65명의 학생으로 증가했다. 1982년 여름, 3개국에서 200명에 가까운 재학생이 선교를 위한 치유팀을 이루었다.

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중보와 지원해 주기를 요청한다. 동시에 GOR은 자신의 수년간 사역 경험을 통하여 얻은 전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온전’에 대한 독창적인 개념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일하게 교육하고 있다며⁴⁵⁰⁾ 본인 교육에 대한 신뢰를 주장하였다.

특히 치유팀 개념의 핵심이 되는 교차수분(Cross-Pollination) 방식 교육은 대학 안에서 학제간의 교육과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생의 전문적이고 개인적 관점의 개발과 학습효과의 증가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교육은 전인의 온전한 일치로의 사명을 달성하는 상호 작용의 개념이며, 학업 환경 속에서 대학 전체의 관계를 개발하여 모든 인간 세계에서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⁴⁵¹⁾ 말한다. 학교 내 존재했던 교차수분 프로젝트팀을 통하여 치유팀 개념의 이론적 틀이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팀의 연구에서 교차수분이라는 명칭으로 되어있는 치료과정은 환경분석치료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GOR은 치유팀 프로젝트를 위하여 ORU와 믿음의 도시의 협력을 통한 비전을 함께 세워나갔다. 1981년 미국 전역에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ORU는 새로운 자격을 갖춘 전담 의료 전문가를 졸업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GOR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의료전문가 그룹이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전하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GOR은 하나님의 치유능력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길 원했다.

그 당시는 의사가 의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교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GOR의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기도, 과학적 의학이 결합하는 방법은⁴⁵²⁾ 교육을 포함

450) *Abundant Life* Vol. 34, No. 9, October 1980, 18.

451) Oral Roberts, *The Call: Oral Roberts' Autobiography*, Garden City: Doubleday and Co, 1972, 178-79.

452) Jim Ernest Hunter, “A Gathering of Sects: Revivalistic Pluralism in Tulsa, Oklahoma,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 가운데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OR은 이 교육이 자신의 신학사상이자 삶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도시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연구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기도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먼저 GOR은 ORU의 간호 학생이 최고의 간호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전제하에 이들을 학교 전인철학의 구체화라고 정체성을 확실히 교육하였다. ORU의 모토인 ‘우수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전문가로서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뿌리를 갖도록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의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였고 유능하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 조화 및 회복을 가져오는 전문가들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GOR의 의학생을 위한 교육의 모토와 믿음의 기도와 의학의 협력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선교교육 중심으로 의과대학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외 타인들과 함께 의료적인 일을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기도와 약품을 결합하는 법들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⁴⁵³⁾ 전 세계 의료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였다. 최초 치유팀인 ‘파일렛’ 이후 치유팀에 대한 GOR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학생, 교수 및 행정부는 30년 넘도록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학계의 학장과 교수들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파일렛 치유팀을 결성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치유팀의 현황은 GOR의 전인교육을 통한 전인치유사역이 선교적으로 효율적인 씨앗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치유팀은 2015년 여름, 브라질의 까힐류(Carrilho)로 가기 위해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훈련 계획을 세웠다. 학제 간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전공이 문헌 검토를 하고 브라질 현지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브라질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마케팅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유지 및 발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의료 봉사 활동은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

1945-1985,” 177.

453)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도 포함되지만, 장기적인 지역 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교육도 시도하였다.⁴⁵⁴⁾ 브라질 치유팀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학생은 전문성 향상과 영적 성장 등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다.

2017년에 이뤄진 치유팀의 짐바브웨선교 또한 상황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재학생이 평가를 하고 지역사회 및 학제간의 협력과 연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경제적, 신체적, 영적인 부분의 긴급한 요구와 치유팀의 목적을 위해 개발하여 수행하였다. 치유팀의 복귀 후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⁴⁵⁵⁾은 글로벌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Global Service)를 설립하여 치유팀 비전을 개발하고 구현하였다. 더 나아가 ORU의 세계화 방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체 대학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RU는 대략 100여 개국에서 모인 학생들과 미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이 장소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을 결심한 학생이 하나님, 인간 및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재학생은 학제 간 교차 수분법을 통해 학우, 교수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의 최고의 전통을 카리스마적 관심사로 종합하여 정신, 신체 및 영혼의 전인교육, 즉 영, 혼, 육의 성장에 있어 전체를 강조하고 재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 개발은⁴⁵⁶⁾ 세계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훈련 및 준비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치유팀의 세부적인 훈련 및 활동에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선교적 목적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

454) Kevin Schneider, "A History of ORU Healing Teams," 234.

455) 현 ORU 총장인 윌슨은 본인의 30년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실행함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령 강화 지도자들의 개발을 돕고 있다. 그는 여러 대륙에 글로벌 동맹을 구축하여 GOR의 선교목적대로 "지구의 가장 먼 곳으로"가도록 한다. 오순절 세계 친목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국 복음주의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이사회 회원이자, 저술가인 윌슨은 Mission America Coalition 및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에서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다.

456) Richard L. Roberts,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Course, "Charismatic Life and The Healing Ministry," On Oral Roberts University Undergraduates,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47.

을 통한 교육은 재학생에게 전 세계를 이해하는 깊이를 더해주며 타국, 타인에 대한 올바른 존엄성과 그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GOR의 신학의 중심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은 ORU의 설립이념인 전인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는 데 반드시 공존되어야 했다. 치유사역 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인정함과 동시에 강조했던 GOR의 신학의 연장선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령연구센터(Holy Spirit Research Center)가⁴⁵⁷⁾ 보여준다.

현재 신학대학의 박사학위는⁴⁵⁸⁾ 마원석학장의 공헌으로 2019년 8월부터 개설되어 신학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한 후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 나아갈 학생을 훈련한다. ORU는 현재 약 4,000명 이상의 재학생에게 GOR의 설립비전을 중심으로 전인교육이⁴⁵⁹⁾ 이뤄지고 있다.

카리스마적 학교로서 *U.S. News, World Report*와 *Princeton Review*에서 미국 최고의 지역대학 중 하나로 인정된 ORU는 50년 이상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Leader)를 준비시키고 배출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한 관계 추구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믿음과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는 의미 이상의 공동체 중심으로 폭넓은 신학적 전통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벗삼고 있다. 재학생의 전인교육을 비롯하여 지역봉사, 해외선교활동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전인치유의 능력을 전하는 선교에 최종적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57) <https://oru.libguides.com/library>, 2020. 03. 24. 접속. 성령연구센터는 성령론에 관한 자료를 2만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오순절, 은사주의 신학연구와 성령운동, 쇄신운동 연구를 위한 최다 자료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방문 한다.

458) <https://oru.edu/academics/cotm/graduate/phd-in-theology.php>, 2020. 03. 24. 접속.

459) <http://oruglobal.com/index.php?lang=ko#about-oru>, 2020. 03. 24. 접속.

IV. 오랄 로버츠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

미국 ORU의 신학부학장이자 오순절과 선교의 세계패러다임을 연구하는 마윈석 교수는, GOR이 오순절주의의 아들이자 카리스마 운동의 아버지라는 구조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다고⁴⁶⁰⁾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오클라호마 인디언 계통의 빈곤하고 기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오순절 가정에서 자란 GOR의 생애를 보면, 그의 신학 형성은 고전적 오순절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 세워진다. 부모의 오순절 신학과 영적인 삶을 비롯하여 GOR이 경험한 하나님의 전인치유는 그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의 기반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낙망으로 인한 영향을 받아 오순절은 빈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GOR은 소망을 품고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치유, 구원, 성령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로 복음을 정립시키기 시작했다.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도로서 그의 신학사상은 1947-1960년대 많은 복음전도자들이 세상에 치유 메시지를 가져오는 데 용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를 개신교 안에서 치유교리를 새롭게 강조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러셀 올슨(Russell H. Olson)은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며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GOR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⁴⁶¹⁾라고 하였다. GOR의 전인치유 선교 연구를 위한 신학적 배경으로 성령론적 치유신학, 종말론적 구원신학, 인간론적 희망신학을 알아보는 것은 그의 전인치유선교가 하나님의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구원이라는 기본적 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460) 인터뷰에서 발췌.

461)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9, August 1954, 14.

위함이다.

A. 성령론적 치유신학

GOR의 성령론적 치유신학의 기초는 시편 107편 1절에 근거한 ‘좋은 하나님’으로⁴⁶²⁾ 단순한 성경적 개념이다. 당시에는 혁명적인 사상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은 좋은 분(God is a Good God)’의 개념은, GOR이 삶 속에서 경험한 요한3서 2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작으로 인간 삶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이뤄진다는⁴⁶³⁾ 것을 의미한다.

좋은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삶 속에서 더 나은 방향과 더욱 강력한 힘을 갖길 원하시며, 전인이 온전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⁴⁶⁴⁾하신다. 이 치유를 통해 인간이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며 풍성해질 수 있다. 즉, 인간을 향한 좋은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 회복, 풍요, 치유, 승리⁴⁶⁵⁾를 위한 것이다. 이처럼 좋은 하나님은 인간의 총 공급의 근원이시다.

좋은 하나님과는 반대로 마귀는 악하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도둑이며 포식자이고 파괴자이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고 영적분별력의 균형을 잃은 비참하고 갈 곳 없는 정신병적인⁴⁶⁶⁾ 존재이다. 마귀는 인간의 전인 건강, 돈, 가족,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싶어 한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

462) Oral Roberts, *Miracles of Healing for You Today*,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ociation, 1982, 74.

463) *Abundant Life* Vol. 38, No. 4, April 1984, 15-17.

464) Oral Roberts, *The Healing Stream*, Tulsa: Oral Roberts, 1959, 37-39.

465) *Abundant Life* Vol. 38, No. 2, February 1984, 7-13.

466) Oral Roberts, "Demon,"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8, No. 10, September 1954, 2-3.

서는 마귀를 대면하여 물리치셨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사 용권을 주셨다. 마귀의 파괴적 속성은 인간의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해 드러난 다. 이를테면 육체의 질병을 통해 마귀는 고통의 감정에 안주하게 만든다. 그 러나 GOR은 마태복음 8장 7절, 8장 17절,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근거로 예 수께서 선한 일을 행하여 마귀에게 압제된 모든 사람의 병을 포함한 죄를 치 유하셨다고 주장한다(행10:38). 또한 마귀는 인간의 정체성을 실패자로 인식시 키며 인간이 죄의 용서를 인식하고 회개할 경우 즉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주장한다며 로마서 8장 37절, 12장 3절을 강조한다. 즉 요한 일서 1장 9절에 의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자백을 통하여 용서와 더 불어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이다. 또한 마귀는 인간의 재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묵언하게 만들지만 말라기 3장 10-11절에 근거하여 하 나님께 씨앗믿음(seed-faith)을 통해 행해지는 믿음의 실천을 중요시하였다. 따 라서 잠언 29장 25절, 시편 40편 4절, 이사야 57장 13절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인 인간은 결국 승리⁴⁶⁷⁾할 것이다. 이처럼 GOR의 선하신 하 나님과 악한 마귀를 대조하는 구도는 자칫 이원론적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그가 마귀의 악함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인간 삶의 번영을 위한 하나 님의 치유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GOR은 치유에 있어서 초월성은 신적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개인의 믿음으로 인한 치유와 의사를 통한 치유⁴⁶⁸⁾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의 영역 안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치유는 신성하며 치유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기⁴⁶⁹⁾ 때문이다. GOR의 자연과 초자연의 비 구분 은 그가 언급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네 가지 방법에 잘 드러나 있다. 1) 하나 님은 햇빛, 신선한 공기, 기후, 좋은 음식의 영양소 등 자연의 힘을 통해 치유 하신다. 2) 하나님은 인간을 지지하고 돌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과 이해를

467) *Abundant Life* Vol. 36, No. 9, September 1982 2-5.

468) Oral Roberts, *Better Health and Miracle Living*, United States: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n, Inc, 1976, 182.

469) 같은 곳.

통해 치유하신다. 3) 하나님은 의사의 기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신다.
4) 하나님은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신다.

GOR 치유신학의 두 가지 중심은 확신과 주권⁴⁷⁰⁾이다. 그는 어느 한쪽을 수용하기 보다는 중립적 자세를 취했다. 가시적으로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치유되지 않은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동시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한 치유는 인간의 변영과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⁴⁷¹⁾ 달려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으로 치유 능력이 임하여 건강과 회복이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도와 기대라는 한정된 생각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육적 회복이 더디거나,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이때 GOR은 가시적인 결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지 않음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주장했다. 즉 그는 어느 한쪽을 수용하기 보다는 중립적 자세를 취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GOR의 신학에 잘 드러난다. GOR은⁴⁷²⁾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변영하고 전인건강이 유지되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변영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충분한 건강과 영적 힘을 얻지 못했다고 보았다. 변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씨앗믿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치유를 체험하지 못한다는⁴⁷³⁾ 것이다. 치유의 중점적 문제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표현되는 핵심과정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 이 핵심과정은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될 때를 가리키며 치유 접촉점(Point of Contact)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치유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GOR의 치유를 향한 6단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70)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2.

471) 위의 책, 3.

472) Brown, Candy Gunther, *Global Pentecostal and Charismatic Healing*,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1.

473)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177.

1.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을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2. 치유는 인간의 내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죄로 인한 정죄를 인정한다면 믿음은 힘을 잃는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요일3:21, 사59:2). 육체와 정신은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의 두려움과 약점은 육체와 정신적 병을 일으킨다.
3. 당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접촉점을 사용하라. 이 접촉점은 도움의 수단이 되고 치유의 열쇠이기도 하다.
4. 당신의 믿음을 표출해야 한다.
5. 승리를 위한 실재에 가까워야 한다.
6.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⁴⁷⁴⁾

이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특히 이 믿음은 치유에 있어서 두 진영의 대결인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마귀의 파괴하는 힘에 대하여 믿음이 핵심적인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장벽을 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⁴⁷⁵⁾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말씀을 통해 쓸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빌4:19), 받은 것을 거저 주며(눅6:38), 치유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막11:24).

GOR의 성령론적 치유신학은 인간론적 희망 신학에 연관이 되어 뿌리를 두고 있다. 기적을 기대하는 낙관적인 치유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이므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신학은 기대 이상의 가능성을 뛰어 넘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삶과 일에 개입하시며 그 개입이 치유를 의미한다는 확신은 성령이 인간에게 자연적, 초자연적인 치유로 이끄는 과정을 기대하게 만든다. 인간은 풍성한 삶을 얻길⁴⁷⁶⁾ 희망할

474) Oral Roberts, *Better Health and Miracle Living*, 11-19.

475)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116.

476) Stephen Jackson Pullum, "A Rhetorical Profile of Pentecostal Televangelists: Accounting for The Mass Appeal of Oral Roberts Jimmy Swaggart, Kenneth Copeland. And Ernest Angley," *Indiana University*, May 1988, 77.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희망과 기대를 하는 신학이다. 이는 GOR의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대중성을 띤 슬로건이 되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온전한 삶을 위해 개입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의 공급자요, 근원되신다. 그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한 구원을⁴⁷⁷⁾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간의 풍성한 삶을 위한 번영을 위하여 성령을 통한 자연적, 초자연적 개입으로 전인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곧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임하는 전인구원이다. 모든 인간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세워 전인치유의 대상이 되며 전인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병마와 마귀와 두려움과 가난과 여러 가지 파괴적인 힘을 몰아내려는 지칠 줄 모르는 의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또한 보통 때 느끼던 연민을 천배 이상으로 느꼈으며, 사람들을 사탄의 고통에서 구하려는 긴박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⁴⁷⁸⁾

GOR은 인간의 약함과 무력함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측면을⁴⁷⁹⁾ 강조했다. GOR의 설교, 복음메시지, 강의를 포함한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GOR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신성한 치유 가운데 현재 임하는 성령으로 이루

477) R, Samuel Thorpe, “An Overview of the Theology of Oral Roberts,” 263.

478) Oral Roberts, 『기적을 기대하라』, 168-69.

479) R, Samuel Thorpe, “An Overview of the Theology of Oral Roberts,” 265.

어져 있다. 특히 그의 치유신학의 주요 정점은 인간의 삶에 자연적,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존재로서의 성령이다. GOR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성령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성령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며 성령의 도움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삶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무기력함에 빠진다. 이때 성령은 인간의 필요와 더불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신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GOR은 인간이 영적 존재의 영역 속에 임할 것을⁴⁸⁰⁾ 권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⁴⁸¹⁾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사역을 하며 인간의 한계를 전제로 GOR은, 치유의 능력의 주체는 본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기시켰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복음 4장 14절, 5장 17절을 근거로 모든 치유 능력의 권세는 성령에 있으며,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를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함께 치유사역을 위임하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능력 부여로⁴⁸²⁾ 인함이다.

이처럼 GOR의 전인치유사역 가운데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GOR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으며 성령의 은사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을⁴⁸³⁾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하도록 부름을⁴⁸⁴⁾ 받았다. 오순절주의 지도자인 로즈웰 플라워(J. Roswell Flower)는 성령이 인간 마음에 들어오실

480) 같은 곳.

481) Oral Roberts, *Unleashing the Power of Praying in the Spirit*, 7-8.

482) Howard M. Ervin, *Spirit Baptism: A Biblical Investigation*, 순신대 신학연구소 역, 『성령세례』, 경기: 순신대학교, 1996, 77.

483) Oral Roberts, *Speech at the Seminary Transcript*, 9 February 1979, 11;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456.

484)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320.

때에 선교사의 정신도 함께 들어온다며 성령과 선교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보았다. 성령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⁴⁸⁵⁾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 체험이 동반⁴⁸⁶⁾되어야 한다. 따라서 GOR은 자신의 성령론에 입각하여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도, 선교의 삶을 산 것이다. 사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한 것은 당시 오순절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한 요인 중 하나로 뽑히는 이유⁴⁸⁷⁾이기도 하다.

오순절주의의 성령이해를 가졌던 GOR은 1961년, 성령세례를 통해 그의 출판물의 핵심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위인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⁴⁸⁸⁾ 성령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자, 같은 속성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성령의⁴⁸⁹⁾ 존재와 능력에 강력한 신뢰와 의지가 있던 GOR은, 과거 고전적 오순절주의의 환경으로 성령의 세례 증거로서 방언 교리 속에서⁴⁹⁰⁾ 자라왔다. 그러나 사역 초반에만 해도 정작 본인은 방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1961년에 성령으로 인한 방언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연구한 결과,⁴⁹¹⁾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부 안에서 정상적인 경험이 된다⁴⁹²⁾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경험과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오순절주의인 GOR은 성령침례로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받아들였고, 방언을 ‘성령의 언어’의 개념으로

485) Pentecost 1:1, *Indianapolis*, August 1908, 4

486) Allan Anderson, 『땅끝까지』, 346.

487) 위의 책, 345.

488) http://ag.org/top/Beliefs/Statement_of_Fundamental_Truths/sft_full.cfm, 2020. 03. 24. 접속.

489) Richard L. Roberts,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Course, “Charismatic Life and The Healing Ministry,” On Oral Roberts University Undergraduates,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21.

490)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0, 20-21.

491) Oral Roberts,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Value of Speaking in Tongues Today*, Tulsa, Oklahoma: Oral Roberts, 1964, 37.

492) 위의 책, 19.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개인기도 언어’⁴⁹³⁾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 개인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 연결의 역할을 하는데⁴⁹⁴⁾ GOR은 이 기도의 빈도와 사역에 끼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치유사역 안에서 많은 능력과 자제력, 해방을 가져다주는⁴⁹⁵⁾ 능력을 강조하였다.

당시 방언을 성령세례의 강력한 증거로 본 오순절의 주요 비판점 중에 하나는 감성주의적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GOR은 방언이 개인의 의지와 통제 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방언에 대하여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 스스로의 의지를 거론한 것이 전통적 오순절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 다른 비판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이 없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GOR은 성경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뜻보다 더 좋은 방법과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다른 응답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입장에서 본 무응답의 성령기도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⁴⁹⁶⁾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복음으로서의 성령을 인정한 GOR은 성령은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⁴⁹⁷⁾ 전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치유의 은사를 가장 강조하였다. 그렇기에 GOR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인 치유를 통한 성령세례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의 성령론은 한마디로 ‘우리는 순복음이 마음과 삶의 성결함, 육신의 치유, 성령께서 주시는 첫 증거인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세(침)례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믿는다.’⁴⁹⁸⁾는 북아메리카 오순절주

493)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465.

494) *Abundant Life* Vol. 38, No. 2, February 1984, 7-13.

495) Oral Roberts,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Value of Speaking in Tongues Today*, 37.

496) Oral Roberts, *If You Need Healing Do These Things*, Tulsa, Oklahoma: Oral Roberts Ministries, 2002, 30-33.

497) 김동수, “성령의 은사의 본질,” 『피어선 신학논단』 Vol. 1, No. 1, 2012, 8. 김동수는 “성령의 은사의 본질”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으로 구분지어 본질에 대해 연구하였다.

498)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354-5; Robert P. Menzies, *Empowered for Witness: the Spirit in Luke-Acts*, New York: T

의/은사주의 교회의 신앙선언문과 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GOR은 자신의 성령세례를 종말론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세상을 청결하게 하는 또 다른 영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대한 영이시다. 그분은 지구를 둘러싸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휴거, 어린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준비하도록 도우신다.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⁴⁹⁹⁾

인간이 사는 시대에 성령의 중요성과 그 후까지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의 힘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은 종말론적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동적이고 상황화(contextualized)된 성경적 계시의 현현인 GOR의 성령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는 하나님(divine involvement)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성령을 말한다.

이 성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며 예언과 방언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을 갖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⁵⁰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인간에게 성령을 통한 치유력을 주신 것과 동시에 성령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은 GOR의 전인치유를 가능하게 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B. 종말론적 구원신학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신학은 기초적인 배경이 된다. GOR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천막 치유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초교파적으로 신자들이 몰려들었던 것⁵⁰¹⁾은 성령을 통한 치유의 현장

and T Clark International, 2004, 233.

499) Oral Roberts, *The Drama of the End-Time*, Tulsa, Oklahoma: n. p, 1963, 36.

500) Allan Anderson, 『땅끝까지』, 331-32.

이 GOR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구원론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꺼려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백 번 이상의 대형천막집회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질병에서도 놓임을 받는다 고 외쳤던⁵⁰²⁾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구원, 치유, 기적에 따른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GOR의 치유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로부터 시작된다. GOR은 성경의 예수가 인간의 질병과 약함을 도려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와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사야 53장⁵⁰³⁾에 근거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질 때 질병도 그로 말미암아 치유된다고 말한다. 이는 토마스 오덴(Thomas Oden)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과 그 의미를 함께 한다(마20:28; 고후5:21; 갈2:20; 벰전3:18).⁵⁰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짐으로써 죄는 용서받았고 인간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었다. 즉, 하나님과 세계, 자연, 인간 사이에 화해의 다리 역할을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인 인간의 믿음으로 승리⁵⁰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GOR의 설교, 치유사역에 중요한 요소⁵⁰⁶⁾이다. 이러한 구원의 척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⁵⁰⁷⁾ 수 있다.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을 치유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501) David E. Harrell, *All Things Are Possible: The Healing and Charismatic Revivals in Modern Ame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5, 225-38.

502) 김신호, 『오순절교회의 역사와 신학』, 239.

503) Oral Roberts, *Holy Bible: With My Personal Commentary*,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ociation, 1981, 64.

504) Thomas Oden, *The Word of Life: Systematic Theology* Vol. 2, Harper San Francisco, 1992, 380.

505) Oral Roberts, *Holy Bible: With My Personal Commentary*, 64.

506)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86.

507) Oral Roberts, *Holy Bible: With My Personal Commentary*, 64.

시대에도 전인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한다. 살아 있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치유를 위해 잔인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 후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과 성령을 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⁵⁰⁸⁾ 되신다. 이와 같은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⁵⁰⁹⁾이 있다.

GOR의 신학은 요한삼서 1장 2절을 기반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전인 구원의 개념은 GOR이 행하는 치유사역의 새로운 전환점⁵¹⁰⁾을 만들어주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GOR은⁵¹¹⁾ 이 구원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에 있어서 전인구원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질병, 가난 등의 고통을 주는 압도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포함한 악한 영으로부터의 구원은 복음의 본질 중 일부라는 점⁵¹²⁾에서 GOR의 구원론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수의 속죄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필요를 공급한다. 인간 필요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며, 좋으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곧 전인구원은 모든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⁵¹³⁾ 준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Saviour),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는 치료자(Healer), 마귀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해주는 구조자(Deliverer)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의 복음은 포스퀘어(Foursquare)복음의 의미와⁵¹⁴⁾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GOR에게 있어서 구원은 치유의 차원인

508) *Abundant Life* Vol. 45, No. 3, May and June 1991, 3.

509) Oral Roberts, *Holy Bible: With My Personal Commentary*, 64.

510) Oral Roberts, 『기적을 기대하라』, 119-23.

511)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9, No. 9, september 1955, 15.

512) Allan Anderson, 『땅끝까지』, 388-89.

513) 위의 책, 380.

514) 위의 책, 391.

모든 형태의 고통에 대해 그리스도의 승리, 곧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적 구원을⁵¹⁵⁾ 의미한다.

GOR의 종말론⁵¹⁶⁾은 그의 신학과 전인치유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는 실제로 일어날 것인데, 개개인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는 각자의 영혼을 통해 존재의 핵심으로 급증하는 주요 문제가⁵¹⁷⁾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GOR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근거하여 인간의 죽음을 신적 약속이라 보고, 이 죽음에 대해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여겼다. GOR은 죽음을 인간 삶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여 오는 적이 아닌, 죽어가는 상황 속 과정에서 고통과 질병에 대한 전인치유를 통해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전3:2)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해야⁵¹⁸⁾ 한다. 왜냐하면 사도 행전 17장 31절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 각각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⁵¹⁹⁾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GOR의 종말론은 그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GOR의 다수의 저작 중 종말에 대한 책들은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시작된다. 그는 반복해서 선언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안다면, 우리 모두 오늘밤에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믿는다.”⁵²⁰⁾ 그는 베트남전

515) John Wimber, Kevin Springer, *Power Healing*,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37.

516)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447-48. 1941년에 출판된 GOR의 첫 번째 종말론 책, *Drama of the End-Time*부터 같은 주제에 대해 1984년에 ABC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방송된 그의 마지막 작품 ‘The Day After’까지, GOR은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GOR의 삶과 사역에 대해 연구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단, 해럴(Harrell)만이 GOR의 전기에서 이 문제를 간략히 다루었을 뿐이다.

517) *Abundant Life* Vol. 45, No. 2, March and April 1991, 2-5.

518) Oral Roberts, *Better Health and Miracle Living*, 188.

519) *Abundant Life* Vol. 45, No. 2, March and April 1991, 2-5.

520) Oral Roberts, *Crusade Transcript*, 12 June 1957, 20;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447.

쟁, 히피, 폭동, 동성애를 포함하여 날로 확산되는 부도덕, 낙태, 물질주의, 핵 무기의 위협,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스라엘 귀환, 오순절운동의 확산 등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기⁵²¹⁾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의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

GOR의 종말론의 특징은 환란 전 휴거설의 강조이다. 환란 전 휴거설은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신부는 대환란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 나는 구속 받은 자들이 그것의 실제적 공포를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신성모독적인 폭도들과 결코 대면하지 않을 것이다. 휴거는 미리 구원 받는 것과 대환란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⁵²²⁾

언뜻, GOR이 언급한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인류에 안 좋아질 것이라는 관점으로 종말론을 보면, GOR은 이 시대를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의 고백은 GOR을 비관론자라는 인식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이 시대의 끝에 접근하고 있다. 이 시대는 세상의 악한 요소 때문에 혼란, 절망, 파멸 속에 끝날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더 가까울수록, 이 시대는 더 나빠질 것이다.”⁵²³⁾ 그러나 시대를 향한 그의 시각을 여기서 한정한다면 GOR의 신학적 해석을 통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GOR은 자신의 종말론과 성령론을 연관 짓는 과정을 통해 실용적이며 낙관적인 요소를 분명히 밝혔다. 다음 GOR의 말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대환란 직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의 종말론을 표현해 준다.

세상을 청결하게 하는 또 다른 영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대한 영이다. 그분은 지구를 둘러싸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휴거, 어린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준비하도록 도우신다. 천년왕국

521) Oral Roberts, *The Drama of the End Time*, 5-20.

522) 위의 책, 23.

523) 위의 책, 6.

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⁵²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원을 믿는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전인치유를 통한 번영을 원하시고, 이에 따라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C. 인간론적 희망신학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 회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GOR은 히브리적 사고 가운데 인간을 전인으로 이해하였다. 동시에 인간의 영, 혼, 육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였다. 즉, GOR은 인간의 세 부분, 영, 혼, 육의 분리된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전인이해를 가짐으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치유사역을 하였다.

GOR은 인간을 죄인이자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았다. 그의 인간론은 자칫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깊이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믿음이 있다는 것과 번영의 개념에서 기대하고 희망하는 신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마땅히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보충하고 정복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동산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의 전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이다. 사탄과의 대화가운데 인간은 승리할 수 없었다. 인간의 모든 상황과 순간에는 사탄의 접근이 항상 따른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감각적 욕망을 잘 아는 사

524) 위의 책, 23.

탄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 이처럼 인간은 사탄과의 관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인식⁵²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인류의 죄의 본질에 대하여 세인트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약해졌다. 죄는 죄인이 현재보다 더 높은 영적 진리와 생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⁵²⁶⁾ 라고 하였다. 죄인인 인간에게 사탄은 죽음과 멸망을 준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같은 피와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다며,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 GOR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적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심판의 자리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는데, 이는 사도행전 17장 30절을 통해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⁵²⁷⁾이라고 하였다. 인간을 건강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간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GOR은 치유사역자로서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과 함께 기도하였다.

모든 인간에게 믿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GOR은, 전인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로부터(눅8:48;10:17-24;8:13;15:28) 해방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공통된 인간의 속성을 말했다. 이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좋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온전치 못한 전인 고통과 아픔으로 조화와 균형이 깨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는⁵²⁸⁾ 좋은 소식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이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전인치유를 통하여 인간의 삶은 풍성하고 번성하게 된다. 역으로 인간의 삶이

525) *Abundant Life* Vol. 40, No. 2, March and April 1986, 3-6.

526) Alistair Edgar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UK: Blackwell, 1994.

527) *Abundant Life* Vol. 45, No. 2, March and April 1991, 2-5.

528)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3-4.

변영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인생은 전인의 치유가 시작된다. GOR이 말한 변영의 삶은 선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곧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하는 존재⁵²⁹⁾임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인간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수만 명의 악한 영을 내쫓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에덴동산에서의 타락을 통하여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근거로 고통과 질병에 관한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믿음을 주셨고 이에 따라 각각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⁵³⁰⁾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을 붙여넣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작용하기⁵³¹⁾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통하여 전인치유의 기적을 기대⁵³²⁾할 수 있다.

529)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107.

530) 계12:11 참고; *Abundant Life*, Vol. 43, No. 1, January and February 1989, 4-7.

531)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 7, No. 12, November 1953, 2-3.

532) Oral Roberts, *Miracles of Healing for You Today*.

V. 오랄 로버츠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

GOR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전인적 번영을 소망하며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체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인치유능력을 체험한 GOR이 영혼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한 전인치유선교를 이루는데 중심이 된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GOR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재한 채로 죄에 가득한 세대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전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가 되길⁵³³⁾ 원했다. 이러한 바람으로 사회,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한 구원을 소개하고, 돕고, 이뤄지길 기도하며 고민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고민과 사고는 GOR이 세계적으로 전인치유사역과 선교를 하게 된 원천이 되었다. GOR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혼전도⁵³⁴⁾였다. 왜냐하면 GOR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세례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인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⁵³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그의 선교사상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고 있다.

GOR은 요한삼서 2절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업으로 생각했다. 하나님

533) *Abundant Life* Vol. 45, No. 2, March and April 1991, 2-5.

534) Vinson Synan, "The Pentecostal Roots of Oral Roberts' Healing ministry," 290.

535) *Abundant Life* Vol. 38, No. 2, February 1984, 7-13.

의 복음인 성경의 탄탄한 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들이, 재생산의 부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GOR의 사역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세 부분의 선교사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의 통전적 선교사상, 믿음 선교사상, 종속화합을 통한 협력선교사상은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본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중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된다.

A. 통전적 선교사상

현대 선교신학에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공통적인 주장은 통전적 선교이다. 그러나 각 진영에서 말하는 통전적 선교는 그 정의에 차이를 둬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논쟁 가운데, 한국 선교신학자 1세대인 이광순은 선교의 실제 현장과 관련 깊은 통전적 선교의 개념 틀을 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우선, 이 통전적 선교의 유래를 시작으로 이광순의 통전적 선교의 개념과 정의를 통해 GOR의 선교사상을 유추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협의(狹義)의 기독교론에서 구원은 그 대상을 영혼으로 보았고, 이 구원은 교회에서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선교가 협의의 복음화에 국한되었고 교회와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대가 지나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시대 이후가 되면서, 정당화되어 흘러오던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와 권위는 비판적 대상⁵³⁶⁾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던 사람들의 인식에서 알 수 있다. 그 당시 산업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되었지만 이에 따라오는 현실은 그리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 가시적으로 심한 빈부격차와 빈곤이 대두되면서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사람들

536) 이광순, 『한국 교회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272.

의 인식은 인간의 영혼에만 한정하며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론에 반발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구원의 개념은 전과 다르게 주장되었다. 즉, 구원은 영혼을 포함한 육체까지의 확대를 말하며 이는 곧 모든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⁵³⁷⁾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전적 선교 개념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910년에 열린 에딘버러 대회⁵³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확장된 선교개념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계 선교를 통해 이 세대에 건설된 것으로, 기존의 이방인 전도에만 국한되어 있던 복음화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1928년 예루살렘 대회에서 세계 선교대회는 에큐메니칼적인 세계교회협의회(WCC), 복음전파에 따른 선교를 강조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로 분리되었다.⁵³⁹⁾ 1938년 탐바람 대회에서는 교회의 복음전도 책임이 강조되었고, 1947년 휘트비 대회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장인 교회들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1952년 빌링겐 대회를 통해 ‘교회중심 선교’는 흔들리게 되고⁵⁴⁰⁾ ‘하나님 중심 선교’가⁵⁴¹⁾ 강조되었다. 이는 선교의 주체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1968년 읍살라 대회에서 일어난 선교의 목적에 대하여 복음화와 인간화 간의 대립은⁵⁴²⁾ 통전적 선교와 관련된 격렬한 논쟁이었다. 이 대회

537) 이광순, “한국 장로교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제8집, 2001, 157.

538) Rodger C. Bassham, “Seeking a Theological Basis for Mission: 1910-1961,”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9, 15. 이 대회는 협력과 일치를 주장하는 낙관적인 대회였으나 선교 정의에 이의가 제기되면서 주목되었다.

539) Harvey T. Hoekstr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Demise of Evangelism*,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1979, 31.

540) Johannes C. Hoekendijk, “The Call to Evangelism,” *The Conciliar-Evangelical 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64-1978*, edited by Donald A. McGavra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7, 46-49. ‘교회중심선교’는 선교사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선교를 말한다.

541) 이광순, “한국 장로교 선교의 방향,” 159. ‘하나님 중심 선교’에서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펼치심을 주장한다.

542) Rodger C. Bassham,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104-105; David Bosch,

에서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화에 대한 비판 내용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주장이었다. 교회는 인간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억압받고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화는 복음화와 반대의 입장으로 교회의 사회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인간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1970년 프랑크푸르트 대회는 복음주의 진영의 주장이 에큐메니칼 진영에 힘을 가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복음화는 복음 전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⁵⁴³⁾는 주장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렇게 두 진영의 대립은 선교개념의 확대를 불러왔다.

1973년 방콕대회의 주제는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으로 선교와 구원의 개념이 사회, 인간의 육신, 현세에 초점을⁵⁴⁴⁾ 맞추게 되었다. 이를테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영혼구원을 외치는 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니기에 영혼구원보다 필요에 대한 관심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세계선교대회의 주장은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소리로 중심을 이루었지만, 때마다 선교대회의 결론을 내릴 정도로 힘을 가진 주장들은 결국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 문제와 선교는 그 맥을 함께 이루며 가야함을 알 수 있다. 복음주의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은 각각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와 나이로비 대회로 이어졌다. 이 나이로비 대회의 주제는 ‘예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William Carey Library, 1979, 388-89.

543) Donald A. McGavran, “1970: The Frankfurt Declaration on Mission,” edited by Donald A. McGavran, *Eye of the Storm: The Great Debate in Mission*, Waco, Texas: Word, 1972, 283-86.

544) Rodger C. Bassham, “Seeking a Theological Basis for Mission: 1910-1961,”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9, 97.

수 그리스도는 자유와 연합'이었다. 이는 결국 통전적 선교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⁵⁴⁵⁾되고 있다.

1989년에 열린 제2차 로잔 대회 of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은) 세계에!’⁵⁴⁶⁾(Proclaim Christ Until He Come: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였다. 이 또한 선교의 통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은 교회 중심의 복음전도를, 에큐메니칼 진영은 하나님 중심의 선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⁵⁴⁷⁾ 있다. 이 둘의 논쟁을 통해 통전적 선교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자들을⁵⁴⁸⁾ 통하여도 각각의 통전적인 선교의 개념을 세웠다. 그러나 한쪽에 치우친 선교는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는 복음 전파와 사회봉사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전인을 위한 사역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서 복음 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것을 통합하여⁵⁴⁹⁾ 사역하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 방향을 찾고자 고뇌하는 선교학자 안승오는 통전적 선교신학이 복음화와 인간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복음화의 악화를 불러 온다⁵⁵⁰⁾고 하였다. 그러나 이광순은 전인적이고

545) Harvey T. Hoekstr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Demise of Evangelism*,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1979, 106.

546) C. Rene. Padilla, *Mission Integral*, 홍인식 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259-73.

547) James M. Phillips and Robert T. Coote, edited, *Toward the 21st Century in Christian Miss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93, 50.

548) 이광순, 『한국 교회 성장과 저성장』, 278. 이광순 연구에 의하면 통전적 선교의 종합적인 정의는 “복음과 사회봉사, 전도와 사회봉사의 통합, 기독교 사회 변혁과 발전, 통합적 개발, 다양한 선교의 사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 전인적인 사역” 등이다.

549) A. Scot Moreau General Editor, Harold Netland and Charles Van Engen Associate Editors,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2000, 448.

550) 안승오, “통전적 선교신학의 태동 배경과 전망,” 『복음과 선교』 제15집, 2011,

완성적인 면을 부각하면서⁵⁵¹⁾ 통전적 선교의 개념을 다르게 보았다. 다음은 이광순이 말하는 통전성의 개념이다.

‘통전’이란 개념의 어원은 헬라어 홀로스($\delta\lambda\omicron\varsigma$)이다. 성경에서 홀로스는 ‘전체의’, ‘모든’, ‘완전한’, ‘모두’, ‘함께’, ‘전부’, ‘전체’, ‘완전히’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통합은 전체를 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들을 하나로 완전하게 묶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분 요소들을 전체로 합쳐서 완전한 것으로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부분 요소들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통합해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경우에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통전’ 또는 ‘통전적’은 전체를 가리키면서도 부분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되며, 부분 요소가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전체로 결합되어 완전한 완성, 곧 조화되고 균형 잡힌 전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서 매우 복잡적이면서도 미묘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⁵⁵²⁾

이광순은 통전성의 개념을 기초로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을 통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반 한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본다. 이와 같은 선교를 통전적 선교라고 할 때, 전인적(全人的) 구원을 말하며 인간 전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을 포함한다. 이 같은 통전적 선교가 이뤄지면 전체적인 사회와 인간사 전반의 발전은 결과로⁵⁵³⁾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광순은 현대선교 신학에서 통전적 선교에 중요한 논거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해 예수사역의 통전성을⁵⁵⁴⁾ 이해하였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재된 예수의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친 행적이 통전적 선교의 개념정의에 포함된 교육, 복음전파, 봉사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선교의 통전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선교신학에서 통전적 선교 개념의 중요한 뼈대를 이룬다고⁵⁵⁵⁾ 보았다. 그러나 이광순은 마태복음 4

184.

551) 이광순, 『한국 교회 성장과 저성장』, 296.

552) 위의 책, 271-72.

553)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0

554) 이광순, 『한국 교회 성장과 저성장』, 280.

555)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7, New

장 23절은 분석하면서 예수의 통전적 선교가 현대 선교신학에서 가리키는 통전적 선교와 동일하지 않다고 밝힌다. 이를테면 현대 선교신학에서 말하는 통전적 선교의 시각에서 예수의 선교 사역은, 인간의 무지와 미신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 깨어나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의료봉사를 통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광순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통한 예수의 선교의 핵심사상은 예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선포함으로⁵⁵⁶⁾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 가지 행적에 모든 초점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맞춰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아임을 가르치시고, 메시아임을 확증시켜주기 위해 병을 고치신 그의 행적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의 전파이다. 즉, 다른 모든 행적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는 복음전파를 위한 방법들인 것이다. 결국, 현대 선교신학의 통전적 선교개념으로 예수의 선교를 분석하고 비교하기에는 예수의 선교개념은 그 완전성과 완성도에 있어서 완벽하다.

앞서 야기된 세계 선교 대화의 논쟁들을 통하여 선교는 복음화와 인간화를 함께 포괄한다는 점이 주장되었다. 즉, 현대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선교는 인간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도움으로 해결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인간화는 약한 자를 돌보는 봉사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 억압과 저항을 불사하는 것이다. 인간화와 복음화를 통합한 통전적 선교개념은 GOR의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사역에서 발견된다. GOR은 복음전파를 위하여 전인치유사역을 하였지만 전인치유의 개념과 의미자체가 통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GOR이 인식했던 전인적인 인간을 향한 시각과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사역을 통해 GOR의 선교와 이광순이 말한 예수의 사역가운데 통전성과의 관계, 현대선교신학에서 보는 통전적 선교와의 비교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York: Harper and Brothers, 1937, 243-44, 259-61, 265-67.
⁵⁵⁶⁾ 이광순, 『한국 교회 성장과 저성장』, 283.

“지금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⁵⁵⁷⁾ GOR은 모든 사람을 전인치유의 대상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아픔이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충격을 통한 트라우마(trauma)⁵⁵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적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깨뜨린다. 즉 문제로 인한 인간의 부조화는 육체의 병, 정신적 우울증에 포함되는 각종 정신병, 전반적인 삶의 후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한 영역의 문제는 곧 전체에 영향을 미쳐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지도록 한다. 이는 곧 인간의 영, 혼, 육의 측면은 서로 깊게 얽혀 있으며 인간생활의 각 측면은 다른 모든 측면과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GOR은 전인적인 조화와 균형을⁵⁵⁹⁾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맹인, 귀머거리, 절름발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렸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1947년 이후 GOR은 치유집회를 열어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함으로 복음전도를 하였다. 그의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모여들었다. 이에 GOR의 치유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GOR은 사람들이 가진 어려움과 곤경에 관심을 가졌고, 현실적 고통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에 GOR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2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것처럼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본인의 사역에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⁵⁶⁰⁾ 여겼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초는 표징과 불가사의 그 자체이며

557) *Abundant Life* Vol. 39, No. 1, January 1985, 2-4.

558) 질병, 깨어진 인간관계, 재정적 어려움 등은 인간 누구에게나 삶 속에서 겪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영적 우울증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취하지 못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실망하고, 결혼생활이나 직장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느낌으로써 포기 감정이 생기는 것과 비정상적인 신체적 아픔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559) *Abundant Life* Vol. 40, No. 3, May/June 1986, 9-1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초자연적인 부활을 통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표징과 기사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자 구주,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는⁵⁶¹⁾ 것이다. 이러한 그의 치유신학적 이해는 인간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단지 죄인 된 인간의 죄만 담당한다는 영향력을 더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전인치유를 구속의 차원⁵⁶²⁾에서 이해한 GOR은 인간의 전인구원을 통한 복음전도 선교를 한 것이다. GOR의 복음전도 선교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에 있어서 치유 사역은 곧 예수의 명령⁵⁶³⁾이며 GOR은 그 가운데 이뤄지는 전인치유가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⁵⁶⁴⁾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복음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선교적 행위라고 보았고, GOR에게 있어서 전인치유가 바로 선교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방법이었다.

GOR의 전인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그에게서 통전적 선교사상을 이루는 기본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을 향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유사역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육체적 치유가 사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GOR이 오로지 육체치유가 목적인 사역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전인은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면에서 이해되는 것이 맞다. GOR은 육체적 치유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 외에도 종종 사람이 재정적, 사회적 또는 영적, 삶의 모든 측면에서

560) *Abundant Life* Vol. 36, No. 7, July 1982, 4.

561) *Abundant Life* Vol. 45, No. 2, March/April 1991, 2-5.

562)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 흐름』, 서울: 대한기독교성회, 1998, 127; 이용규, 『한국 교회와 신유운동』, 61.

563) 조용기, 『성령론』, 서울: 서울말씀사, 1999, 245-46. 막16:15-18 참고.

564) William Menzies, *Anointed to Serve: The Story of the Assemblies of God*, Springfield: Gospel Publishing House, 1971, 389.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성회 교단 신조에 나타나 있다.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인간의 영적 필요의 충족과 육체, 정신의 충족이 서로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관계로 한 부분의 치유가 전체 치유에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며⁵⁶⁵⁾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전인치유의 개념이 통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OR의 전인치유는 육체에 대한 치유로 제한하지 않고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비롯하여 건강한 태도, 관계, 습관까지도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음으로써⁵⁶⁶⁾ 치유의 전체성이자 통전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인치유 능력, 즉 넓은 의미로 구원을 통한 영혼의 치유, 기적의 구원을 통한 육체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 자연의 힘을 통한 치유의⁵⁶⁷⁾ 사역인 것이다.

낙관적이고 기적을 기대하는 GOR의 희망치유신학의 기본은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루는 권위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존재함으로 현재진행형의 성격을 이룬다. 모든 인간의 질병으로 자유와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서 GOR이 전인치유를 주장했던 이유는,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치유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에 있어서 전인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중요시 여긴 것이다. 그래서 GOR은 시편 107편 1절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통한 변화와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GOR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래서 GOR은 자신의 수많은 설교, 저작 등을 통해 치유에 따른 처방과 실천 및 이해를 도왔다. 이를 테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과 유지하는 방법, 삶의 번영을 가져오는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방법 등을 통하여 전인치유의 중요성과 유지, 반복성을 강조한 것이다.

GOR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인치유를 위한 인간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565) *Abundant Life* Vol. 35, No. 9, September 1981, 6.

566)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

567) *Abundant Life* Vol. 43, No. 1, January and February 1989, 4-7.

개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행동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임을 말한다. 또 한 방법은⁵⁶⁸⁾ 믿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치유를 이루신다. GOR은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으로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막16:18)이고, 둘째,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다(약5:14). 셋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약5:15)과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치유를 기대하는 것(약5:15)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유이며(시107:20) 여섯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장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잠17:22), 마지막으로 일곱째, 성만찬이 하나님의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집착점(고전11:23-30)이 된다. 이상 7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치유와 전인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이다.

이처럼 GOR은 하나님의 전인치유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이 복음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성립하여 하나님의 전인치유의 능력을 통한 온전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길 기대했다. 동시에 GOR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인치유의 도구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전인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광범위하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치유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하는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매번 동일하지 않다는 것⁵⁶⁹⁾을 설명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치유방법에 대한 결과와 삶의 열매에 대하여 주체적인 주권이 없다. 그래서 GOR은 자신이 자란 종교 교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님의 치유과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치유를 통해 인간의 전인치유를 이루심에 있어 현대의학에서 의사와 같이 숙련된 전문가를⁵⁷⁰⁾ 포함한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568)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170.

569) *Abundant Life* Vol. 40, No. 3, May/June 1986, 9-12.

570) David Yonggi Cho, *How Can I Be Healed?* Seoul: Seoul Logos Co, Inc., 1999, 96.

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힘써 책임을 다해야⁵⁷¹⁾ 하며 전인치유가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GOR은 인간의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선교사역을 해오면서 영혼구원을 향한 실천신학의 깊이를 더하였다. 그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많아지길 소망하였고, 치유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건강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GOR의 통전적 선교사상은 집회를 통한 선교사역 이후 ORU, 믿음의 도시 의학연구센터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향한 큰 포부는 ORU의 교육이념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대학은 ‘전인(whole person)’을 위한 교육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ORU의 교육이념은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며, 둘째는 지속적인 에어로빅 운동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체력단련이며, 셋째는 이 두 가지 정신과 몸보다 영혼을 더 우선으로 하는 영성 확립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하나가 되어 병행되었으며, 이것은 이 대학의 설립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였습니다.⁵⁷²⁾

GOR의 전인이해는 통전적이다. GOR은 모든 인간의 전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는 전인치유사역 가운데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필요를 알게 되었다. 그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복음 선교를 위한 통합적인 훈련⁵⁷³⁾을 시도한다. GOR은 인간을 전체성에 근거하여 전인으로 이해하였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영, 혼, 육의 측면에 따른 커리큘럼을 다루어 온전한 건강을 교육하였다. 이를 테면 육의 측면에서의 교육은 학교 내에 국제적인 규격의 수영장, 헬스장, 운동센터를 비롯하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매학기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스포츠강의(승마, 볼링, 스노클링,

571) *Abundant Life* Vol. 36, No. 6, June 1982, 2-3.

572)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243.

573) 연구자가 ORU를 직접 방문하였을 당시, GOR의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한 전인교육이 재학생에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테니스 등)를 개설하여 수강함으로 재학생의 육체 건강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육체 건강을 위한 교육 목표는 육체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게 위함이다. 그 목적은 또 다른 제 3 국가를 향하여 전인치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혼(정신)의 측면에서 교육은 지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기본적 틀을 가지고 있다. 경영대학부터 시작하여 음악대학, 신학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하여 서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선교사역의 실행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GOR은 지적 영역의 성장, 발전을 통해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세상에 가져가는 데 효과적이라고⁵⁷⁴⁾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적 측면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모든 교수를 비롯하여 재학생, 직원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예배모임을 갖도록 한다. 이는 모든 지식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OR의 전인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에는 그의 전인치유신학과 통전적 선교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GOR의 환경 여건과 재정 상황의 조건으로 인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설립은 또 다른 통전적인 전인치유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였다. GOR은 기도와 의학을 하나님의 치유의 한 방법⁵⁷⁵⁾으로 생각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기도와 의학을 접목하는 시스템 구축하였다. 의과대학과 ORU의 협력 가운데 특히 치유팀의 선교는, 세계 제 3국가의 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인치유가 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의 공유를 통해 선교지의 자립과 자족의 환경을 열어줌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복음전도를 하였다. GOR의 통전적 선교사상에 근거한 선교사역에 대한 파급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실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

574) Oral Roberts, *The Ultimate*, 169.

575) 위의 책, 168.

람들이 또 다른 세계의 복음을 전할 준비와 훈련을 하게 되는 선교의 재생산성을 일으킨 것이다.

인간의 전체성과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함으로 전인치유를 통한 복음전도를 이루었던 GOR의 선교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재된 예수의 사역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사역의 통전성에 근거하여 교육과 복음전과, 봉사를 전인치유를 통하여 이룬 GOR의 선교는 통전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광순은 예수가 사역하던 당시의 상황과 사역대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수의 행적을 연구함으로 선교 신학적 통전적 선교와의 차이⁵⁷⁶⁾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복음전과라는 동일한 목적을 둔 것에 대하여 GOR선교의 통전성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 예수는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GOR 역시 전인치유를 바탕으로 교육과 의학을 포함하여 사역한 것은, 그의 선교가 복음전과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는 복음전도를 우선시 하고 복음전도를 위한 모든 사역과 행위가 곧 인간화와 관련된 요소들⁵⁷⁷⁾이라고 본 현대 선교신학의 통전적 선교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B. 믿음 선교(Fiath Mission) 사상

선교역사학자 루스 터커(Ruth Tucker)는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에 대해 평가하기를, 기독교 역사상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적인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 이후로 19세기 광활한 지역에 복음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라고⁵⁷⁸⁾ 보았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영적 거장이자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⁵⁷⁹⁾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의 체험이었다.

576) 이광순, 『한국 교회 성장과 저성장』, 282-83.

577) 위의 책, 296.

578)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0, 218.

579) 위의 책, 239-40.

그의 선교의 기반이 되었던 체험적 신앙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선교는 실패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체험을 중요시⁵⁸⁰⁾하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종의 자비량 선교를 하였던 그는, 1865년 자신의 선교경험과 성격이 반영된 독창적인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 CIM)⁵⁸¹⁾를 창설하였다. 어느 교과에도 속하지 않았던 CIM은 선교의 극대화를 이루었다. CIM의 특징을 보면 테일러는 절대적인 지도력을 행사함으로 선교사들의 필요에 민감하였지만, 재정지원과 개인후원의 문제는 정규적인 봉급을 약속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금에 호소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돈을 빌리거나 부채를 거절하는 것⁵⁸²⁾은 당연한 원칙이었다. 이는 인간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테일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때론 고통도 따랐지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믿음 선교’(Faith Mission)의 특징이기도 하다. CIM은 ‘믿음 선교’를 실천함으로 선교정책의 한 모형이 되었다고⁵⁸³⁾ 볼 수 있다. 이 ‘믿음 선교’는 테일러 자신의 중국선교 경험과 영국에서 유년시절에 체험한 신앙에 기초를 두었고,⁵⁸⁴⁾ 다음의 세 가지 원리⁵⁸⁵⁾에 입각한다. 첫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만 구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원리(no solicitation), 둘째는 돈이 모자라도 빚을 내지 않는 원리(no borrowing), 마지막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필요를 나누는 원리(sharing)이다.

580) 노윤식,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와 사역,” 『국내학술지』 제30권, 2001, 189-90.

581) 중국내지선교회(CIM: China Inland Mission)는 문화혁명으로 인해 해체되었다가 1964년에 명칭이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로 변경되었다.

582) 汤清, 『中国基督教百年史』, 香港: 道声出版社, 1987, 473.

583) Hudson Taylor, 김지홍 역, 『허드슨 테일러: 중국대륙을 복음으로 정복한 선교사』,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171.

584) Howard Taylor, *Hudson Taylor's Spiritual Secret*, 오진관 역,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115-17, 유년시절의 체험에 관한 내용은 27-62참고, 중국경험은 63-163을 참고하라.

585) 양창삼, 『하나님의 사람들』,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8, 131.

이 ‘믿음 선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사역/선교)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이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이 ‘믿음 선교’의 의미는 테일러가 새롭게 창출해 낸 선교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믿음 선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약속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 선교’를 가장 잘 적용하였던 대표적인 선교사, 테일러는 하나님에 대한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절대 믿음 소유를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으며 기도를 통해 선교비를 조달하였고, 특히 CIM은 정책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빚을 저 본 일이 없다.

이 ‘믿음 선교’ 운동은 과거 교회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교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 바탕에는 선교를 최우선이자 최대의 사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믿음 선교’ 운동의 영향력과 그 열매는 교회사에 세계 선교를 향한 시각을 다시금 세우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테일러의 ‘믿음 선교’가 자기 자신의 유년시절 경험과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체험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GOR의 선교사상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 말 그대로 어린 시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렸던 GOR의 사역을 보면 테일러의 ‘믿음 선교’의 개념이 적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와 GOR의 ‘믿음 선교’적인 공통점은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테일러는 거대한 중국 땅에서 수많

은 문제가 닦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 또한 이 CIM을 비롯하여 19세기 수많은 믿음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생겨났다는 점에서 선교사역의 확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GOR 역시 유년시절 하나님의 전인치유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 ‘믿음 선교’ 정책에는 신앙적 헌신과 체험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선교열정은 존재하였으나 신학적 훈련과 그에 따른 지식이 빈약하다는 비판의 소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CIM 선교사들의 자질이 낮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게 한 이유로도 보인다. 즉, 신학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하는 경향은⁵⁸⁶⁾ ‘믿음 선교’가 가진 아쉬운 점이다. 왜냐하면 신학적 훈련과 지식부족의 문제는 선교에서 중요한 협력과 일치의 부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지 사역자를 훈련시켜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대한 소홀함이다. CIM의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동안 중국 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인을 고용하여 복음을 위한 조력자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매우 미약하였다.⁵⁸⁷⁾ 이러한 문제는 지속성과 유지, 발전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선교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 해외선교에서 현지의 사역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은수는 이 문제와 한국의 해외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들과 겪는 갈등문제를 같은 맥락으로⁵⁸⁸⁾ 이해한다. 선교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적절한 후임자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선교를 목적으로 둔 선교지의 교회나 선교회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586) Ruth Tucker, 『선교사 열전』, 226-29.

587) 위의 책, 239.

588) 김은수, “한국교회 해외선교정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8집, 2008, 16.

GOR은 테일러의 ‘믿음 선교’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는 선교사역을 펼쳤다. 선교사역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중심으로 GOR은 ‘치유 접촉점’과 ‘씨앗 믿음’을 통해 ‘믿음 선교’를 행하였고 더 나아가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갔다.

1. 치유 접촉점(Point of Contact)

모든 인간에게는 죄, 질병, 두려움, 재정적 욕구, 정서적 교란 및 위협이 따른다. GOR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문제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⁵⁸⁹⁾ 분이다. GOR은 그 방법으로 치유 접촉점을 강조하였다. GOR은 접촉점을 인간이 믿음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가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GOR이 생각한 믿음은 로마서 12장 3절에 근거하여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각기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모두에게 각기 다르게 주어진 믿음은 소유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⁵⁹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치유능력으로 회복된다. 그러므로 인간 누구나 치유를 통한 풍성한 삶을 희망⁵⁹¹⁾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과 뜻과 영을 주셨다. 이 영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능동적인 마음의 결단을 포함해 실천하기를 기대하신다. 이 기대는⁵⁹²⁾ 곧 각각의 치유 접촉점을 찾아서 행동하길 원하신다는 것이다(롬12:3). 단, 이 행동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단순하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동반하는 것

589) *Abundant Life* Vol. 36, No. 6, June 1982, 3-4.

590)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and David Yonggi Cho: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ir Theologies of Healing,” 289.

591) Stephen Jackson Pullum, *Indiana University*, May 1988, 77.

592) *Abundant Life* Vol. 36, No. 7, July 1982, 5.

을 말한다.

GOR은 치유 접촉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접촉점은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수단이다. 이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며 이를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진다.”⁵⁹³⁾ 다시 말해, 인간에게 각기 주어진 믿음에 기반하여 행동하는 치유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GOR이 강조한 치유 접촉점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에서 믿음을 향한 접촉점과 치유에 대한 기대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다윗의 물맷돌(삼상17:40), 모세의 지팡이(민20:11), 엘리야의 겹옷(왕상19:19), 일곱 번 몸을 담근 요단강(왕하5:14), 실로암 저수지(요9:7), 대제사장에게 신체를 보여주는 것(눅17:14),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만졌던 예수의 옷자락(막5:27-28) 등이 치유 접촉점을 알려준다. 이 외에도 어떤 특수한 말을 하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 등이 모두 믿음 접촉점이다. 단 구별해야 할 것은 GOR의 치유 접촉점은 가시적으로 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전적인 믿음의 실현에 대한 구체화이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그의 치유방법은 믿음을 통한 접촉점을 사용한 것이었다. GOR은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치유될 것(막16:18)"이라고 하신 예수의 접촉점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기름부음이라 확신하였다. 이 치유 접촉점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능력은 GOR의 집회와 모든 사역에서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GOR이 고통과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댈 때마다 치유가 일어났다. 이 접촉점을 통한 치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당사자의 삶에 또 다른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을⁵⁹⁴⁾ 기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치유 접촉점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GOR의 전인치유사역 가운데 강력하게⁵⁹⁵⁾ 나타났다. 동시에 GOR은 치유의 발생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모든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

593) Oral Roberts, *How To Find Your Point of Contact With God*, Tulsa: Oral Roberts, 1966, 7.

594) *Abundant Life* Vol.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14-15.

595) 같은 곳.

신한 GOR은 자신이 무능력한 인간임을 인정하였고,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였다. 이는 GOR이 ‘믿음 선교’를 행했다는 증거의 고백이 된다.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케 하기 위한 접촉점으로서 GOR의 기도와 손은, 치유에 대해 기대하는 당사자의 믿음을 표현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믿음이 세워지면 질병, 빈곤, 염려를 포함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걱정의 방패가 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이 긍정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강력한 도구로서의 힘을 발휘하여⁵⁹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즉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GOR이 주장한 치유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 GOR은 명백한 믿음의 행동으로 개인의 믿음까지 세워주고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접촉점으로 성찬식을 주장하였다. 모든 의심을 버리고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치유능력을 주신다는⁵⁹⁷⁾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믿음 선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었다.

일평생 GOR은 선교사역 가운데 누구든지 치유 접촉점을 통하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자연적, 초자연적인 치유 기적을 경험⁵⁹⁸⁾하길 힘썼다. GOR은 하나님의 치유도구이자 치유 접촉점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경험하도록 앞장섰다. 더불어 치유 접촉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믿음 성장을 도왔다.

2. 씨앗믿음(Seed-Faith)

GOR의 믿음 선교에서 지속적인 전인의 치유와 믿음 성장을 위해 강

596) Oral Roberts, *How to Live a Successful Christian Life*,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oc. Inc, 1982, 19-21; Stephen Jackson Pullum, *Indiana University*, May 1988, 78, 79.

597) *Abundant Life* Vol. 37, No. 6, June 1983, 6-7.

598)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9.

조하였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씨앗믿음’⁵⁹⁹⁾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고, 모든 백성의 삶이 치유를 통해 번영하길 원하셨다. 그런 그분의 뜻을 잘 아는 GOR이 강조했던 씨앗믿음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씨앗믿음의 개념은 1954년 GOR이 발전시킨 ‘축복의 협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에세이 ‘번영을 위한 성서수식’과 누가복음 6장 38절을 근거로 한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과 GOR이 과거 플로리다에서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였고 이와 함께 동역자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고⁶⁰⁰⁾ 독려한 것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 선교’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축복을 전제하여⁶⁰¹⁾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믿음으로 전인건강의 기근을 비롯하여 재정, 식량, 도덕을 포함한 모든 기근과 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멸망시키는 죄, 질병, 두려움, 가난으로부터 치유를 통해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씨앗믿음의 역할이다.⁶⁰²⁾ 그래서 GOR의 씨앗믿음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 고통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는 비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한층 더 풍성해진다⁶⁰³⁾는 것이 씨앗믿음의 핵심인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각자 과거에 구속되어 있는 각기 다른 문제를 호소하고⁶⁰⁴⁾ 있었다. 그러나 GOR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씨앗믿음을 통해 하

599) Oral Roberts, *A Daily Guide to Miracles and Successful Living Through Seed-Faith*, Tulsa: Pinoak Pub, 1974, 228-31.

600) Stanley M. Burgess, Eduard M. Van Der Ma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138.

601) 마17:20, 갈6:7, 고전9:10에 근거한다.

602) *Abundant Life* Vol. 35, No. 7, July 1981, 8.

603) Stephen Jackson Pullum, *Indiana University*, May 1988, 84.

나님의 근원되심과 축복을 기대했다. 이러한 믿음의 장소에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니었다.

GOR은 사역에서 성경을 강조하였는데, 모든 사람의 번영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제, 어떻게 씨앗믿음을 심을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수확에 관하여 알려주시므로⁶⁰⁵⁾ 말씀에 근거하여 삶 속에서 실제로 씨앗믿음의 원리를 구현하길⁶⁰⁶⁾ 원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근거한 GOR의 씨앗믿음의 세 가지 핵심원리⁶⁰⁷⁾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총 공급의 근원이시다(빌4:19). 무한한 자원, 무한한 지혜, 무한한 이해, 무한한 방법,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발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헌신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므로 처음 열매를 주셨다. 즉 이 원리는 에베소서 4장 15-16절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군가의 씨앗의 수확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다. 2) 믿음의 씨앗으로 드리라. 누구든지 받은 것을 그대로 주어야 한다(눅6:38).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형의 씨앗은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기적을 기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 수확을 지속적으로 기대해야 한다(시81:10, 막11:24). 이 원리는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받을 것을 계획하고 의도하는 등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확 즉, 씨앗의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씨앗믿음의 세 가지 원리의 순서는 공식이 아니며 진리로서 이 핵심원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604) 위의 글, 85.

605) *Abundant Life* Vol. 38, No. 4, April 1984, 15-17.

606) *Abundant Life* Vol. 35, No. 4, April 1981, 4.

607) Oral Roberts, *Miracles of Healing for You Today*, 166; Richard L. Roberts,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Course, "Charismatic Life and The Healing Ministry," On Oral Roberts University Undergraduates,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10.

GOR은 씨앗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근거로 타인을 향한 사랑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을 받는다⁶⁰⁸⁾고 말했다. 그러나 GOR은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사랑의 씨앗에 관하여 누가복음 6장 27-38절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인 상대를 향하여 계산적 논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베품과 섬김을 명하신 것과 이에 순복하여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의미한다. GOR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경험과 여전히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다.

씨앗믿음의 결실은⁶⁰⁹⁾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30배, 100배, 심지어 수천 배로 증가시킨다. 가장 큰 씨를 뿌린 예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뇌를 견뎌내셨다. 비로소 그가 뿌린 씨는 인류를 향한 치유, 기적, 구원, 평화, 번영의⁶¹⁰⁾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씨앗믿음의 결실을 위해서 지속성과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GOR은 70년을 갈라디아서 6장 7-10절을 기반으로 씨앗믿음의 기한에 관한 원리를 접목하며 살았다. 이를테면 35년 동안 7개 대륙을 여행하면서 개인 또는 대규모 군중에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전파하고 전 세계에 라디오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1954년 이래 TV 방송을 통해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나쁜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1977년 후반 GOR은 질병의 치유를 위한 방법으로 의학과 기도의 협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에 따른 씨앗믿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어

608) 예를 들면, 질병으로 고통 받던 욥을 통해서도 씨앗믿음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욥은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었지만 자신을 비판하던 타인을 위해 기도하였다. 욥은 용서와 치유를 위한 기도 형태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음으로(욥 42:10) 고약한 질병 가운데 치유가 임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재정적, 영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배가로 축복하셨다.

609) *Abundant Life* Vol. 36, No. 2, Special; February 1982, 3-4.

610) *Abundant Life* Vol. 35, No. 7, July 1981, 9.

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씨앗믿음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씨앗믿음을 가르치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서⁶¹¹⁾ 치유의 기적을 보았다.

모든 인간은 여러 유형의 고난, 사고, 사건으로 인해 전인의 질병을 앓게 된다. 이런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를 통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은 씨앗믿음에서 나온다. GOR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씨앗믿음이 전인 치유의 기적을 포함하여 이 기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접촉점에 이르게 한다면 서, 큰 번영과 기적의 수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씨앗믿음을 심도록 전했다.⁶¹²⁾ GOR은 개인의 신앙적 굴복을 통해 씨앗믿음을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서는 이 씨앗을 번성시킬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⁶¹³⁾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전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강박하게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더불어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힘이였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에 힘썼던 GOR은 자신이 행했던 선교의 중심이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하나님의 현현에 의한 능력 체험이 이루어진 것도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발견된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테일러와의 차이가 있다면, GOR은 선교 사역 가운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후원의 강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역자이자 협력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GOR의 ‘믿음 선교’는 더 광대한 치유사역을 하도록 이끌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하여 의학센터와 학교를 설립한 것은, 앞서 거론했듯이 체험 신앙만이 강조됨으로 지적능력이 낮다는 선교에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

611) Oral Roberts, *The Ultimate Voice*, 175-76.

612) *Abundant Life* Vol. 36, No. 2, February 1982, 3.

613) *Abundant Life* Vol. 36, No. 2, Special; February 1982, 3-4.

하였다. 또한 이와 연장선상에서 학교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훈련을 함으로 선교 전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GOR의 믿음 선교사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기반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하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둔 후원자이자, 동역자로 보았다. GOR은 동역자들을 향해 후원을 강조하였고, 이로써 모아진 후원을 필요와 길을 열어 물질적,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뜻의 일환으로 보았다. 더불어 교육을 통해 선교를 다방면에서 준비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후학들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후원과 동역으로 이루어진 학교와 의학센터의 설립, 수많은 저작과 방송매체의 활용은 체험신앙만의 강조로 인한 지적능력의 저하라는 선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GOR의 믿음선교는 광대한 전인치유선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종족화합을 통한 협력선교사상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자이크라고 불린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교사이자 교회성장 전문가인 와그너(Peter C. Wagner)의 대표적 저서, *Our Kind of People*에서 그가 지적한 바를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약 9천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집단들은 미국이라는 전체성을 띄는 모자이크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종적인 차이 가운데 교육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미국 모자이크의 각 부분들을 이루고 있다⁶¹⁴⁾는 것이다. 모자이크인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신교 선교 운동에서 미

614) Donald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박보경,최동규,이대현 역, 『교회성장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90-106.

전도 종족시대를 이끈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이 1974년 세계전도국제대회에서 한 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독교 신앙은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는 잘 전달되지만 언어와 인종의 장벽 앞에서는 중단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회중들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인종적 단위 그리고 빈번히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제한되어 있다.⁶¹⁵⁾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과 인종, 언어, 계층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이러한 사고를 인정하며 모자이크 한부분이 되는 집단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모자이크 부분을 이루는 종족을 향한 복음전도의 중요성과 긴급함은 20세기 세계선교에 큰 공헌을 한 선교학자 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선언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세계복음화국제대회에서 “전 세계에는 가까운 이웃사람의 전도에 의해 전도할 수 있는 비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과 유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3억이 있다. 그러나 약 24억의 인구는 선교사에 의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⁶¹⁶⁾라고 하였다. 선교의 시작을 다시 새롭게 알리는 그의 선언은 모자이크 종족을 향한 복음전도 선교의 시각과 그에 따른 전략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맥가브란은 동일종족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겼지만 윈터는 맥가브란의 주장을 지지하되, 세계에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s)에 초점을 두었다고⁶¹⁷⁾ 할 수 있다. 윈터는 미전도종족인 모자이크로 구성된 인류를 향한 세계전도를 고민하여 전도의 종류를 E-0, E-1, E-2, E-3⁶¹⁸⁾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615) 위의 책, 109.

616) 위의 책, 229-30.

617) R. D. Winter, “My Pilgrimage in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9, Issue 2, 1995, 60.

618) R. D. Winter, *Frontiers in Mission: Discovering and Surmounting Barriers to the Missio Dei*, Pasadena, C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2008, 155.

기존의 기독교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 문화, 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두는 비 기독교인들의 복음전도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 적다는 것이다. 윈터 조사에 따르면,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상은 본인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수많은 비기독교인은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본의 아니게 이들은 인류라는 전체 그림 안에서 또 다른 모자이크의 조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윈터는 24억의 비 기독교인을 향한 전도를 위해선 각기의 문화, 언어, 인종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타문화와 타 언어, 타 인종에 대한 개방성이 부합된 선교사가 필요하다⁶¹⁹⁾ 말한다. 더불어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 해외선교 뿐 아니라 본국 선교의 중요성을⁶²⁰⁾ 주장하였다.

인류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자이크 조각들의 발견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들을 연구하게 한다. 선교와 전도에서 창조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조지 헌터(George Hunter)는 윈터의 전도방법에서 E-1과 E-2간의 선택적 물음에 대해 효과적인 대답을 해준다. 즉, 헌터는 E-1-A, E-1-B, E-1-C, E-1-D라는 전도 하위 범위를⁶²¹⁾ 구분하였다. E-1-A는 전도자의 하위문화 또는 동일한 문화를 가진 친척,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고 E-1-B는 E-1-A와 조건은 동일하나 대상이 친지가 아닌 타인이다. E-1-C는 전도자와 다른 지역 안에서 하위 문화권에 속한 타인을 전도하는 것, 마지막 E-1-D전도는 이중적, 민족적 특성을 지닌 타인을 대상으로 한다. E-2는 타 국가, 타 문화나 동일한 대륙에 속한 타인

E-0는 기존 기독교인의 재 회심을 위한 전도가 목적이다. E-1는 기독교인과 유사한 언어와 관습을 가진 비기독교인과 가까운 이웃이 되는 기독교인의 전도이다. E-2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인종, 언어, 문화의 차이와 간격이 크지 않은 조건에서의 전도이며, E-3는 E-2와 반대로 인종, 언어, 문화 차이와 간격이 큰 조건에서의 전도이다. 윈터는 해마다 증가하는 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는 E-2, E-3의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전도 실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문화적(通文化的)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619) Donald McGavran, 『교회성장이해』, 114.

620) 정승현, “랄프 윈터의 선교학 재탐구,” 『복음과 선교』 제25집, 2014, 210.

621) Donald McGavran, 『교회성장이해』, 119-21.

을 전도하는 것, E-3는 타 문화, 타 대륙에 살고 있는 타인을 전도하는 것이다.

맥가브란은 복음전도의 대상을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인류 속 ‘숨겨진 종족(Hidden Peoples)’⁶²²이라고 일컫는다. 숨겨진 종족을 인류의 모자이크 한 부분이라고 할 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인류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오순절주의 역사학자인 다니엘 이스그리그(Daniel D. Isgrigg)는 GOR을 1950년대 인종적 통합의 선구자로⁶²³ 지목하였다. 앞서 연구된 GOR의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배경은 모든 인종을 동일시한다는 전제를 탄탄하게 세워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치유를 통하여 인종 화합을 이끄는 탁월한 선교를 하였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 미비하게 들리는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응답이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의 실천이었다.

우선, GOR의 종족화합을 위한 협력 선교사상을 연구하기에 앞서 당시의 인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사회,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인종을 바라보는 GOR 시선의 배경은 선교사상을 통한 선교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07년까지만 해도 오클라호마 주는 다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당시 인디언계 미국인(American indian)⁶²⁴과 아프리카계 미국인(African American)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매우 관용적이었다. 그러나 석유붐(The oil boom)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은 관용과 관대의 판을 뒤

622) 맥가브란, 교회성장이해, 125. 맥가브란은 세계의 숨겨진 민족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자신과 다른 언어,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과 함께 대도시나 여러 지방에 거주하는 민족들이다. 사실 이들은 사회적, 인종적 간격의 차가 크기 때문에 복음자체에 접하지 못한 종족들이다.

623) Daniel D. Isgrigg, “Healing for All Race: Oral Roberts’ Legacy of Racial Reconciliation in a Divided Cit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4, No. 2, 2019, 227.

624) 도착인디언을 칭한다.

집은 불쏘시개가 되었다. 1920년대의 경제적 번영은 그린우드(Greenwood) 지역을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디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상업 지구 중 하나라는 명성을 가져다준과 동시에⁶²⁵⁾ 미국인의 비판과 시기도 가져왔다. 결국 인디언계 미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긴장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 학살을⁶²⁶⁾ 불러 일으켰다. 『뉴욕 타임즈』 *The New York Times*와 『월스트리트저널』 *The Wall Street Journal*의 기자로 스포츠, 인종, 미국 문화에 관한 글을 쓴, 작가 제임스 허쉬(James Hirsch)는 당시 인종 학살에 대하여 “그린우드의 폐허는 인종적 증오를 진지하게 보여준다. 이 폭동은 두 그룹 사이의 적대감의 표현일 뿐 아니라 각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 느꼈던 고립과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⁶²⁷⁾라고 분석하였다. 허쉬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와 도시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던 인종 학살은 허쉬의 분석과 함께 유추해 볼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한(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이 같은 미국 인종학살의 역사에 의한 잔해의 현실은 종족화합을 위한 GOR의 선교사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었다.

GOR의 종족화합을 위한 선교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을 볼 때 어린 시절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백인의 아버지와 인디언계 체로키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GOR은 십대 때 미국 원주민이 걸렸던 결핵에 걸림으로 자신이 전통 백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⁶²⁸⁾ 자

625) Mary E. Jones Parrish, *Events of the Tulsa Disaster: An Eye-witness Account of the 1921 Tulsa Race Riot*, Tulsa, Oklahoma: Out on a Limb Publishing, 1998. 1920년대 당시 그린우드 지역은 블랙월스트리트(Black Wall Street)로 백인들에게 ‘작은 아프리카’로 지칭되었다.

626) Jame S. Hirsch, *Riot and Remembrance: The Tulsa Race War and Its Legacy*, Houghton Mifflin, 2002, 118-19.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에서 각종 폭행, 폭도, 약탈로 인해 하루 250명까지 사망했고 그 지역의 30블럭 전체가 소각되어 블랙 털사가 되었다. 총 피해액은 18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627) 같은 곳.

628) Timothy Hatcher, “The Spirit of Immense Struggle: Oral Roberts’ Native American Ancestry,” 177-98; Oral Roberts, *Expect a Miracle*, 32; Daniel D. Isgrigg, Vinson Synan, “An Early Account of Oral Roberts’ Healing Testimon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169-76.

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다. 다음 GOR의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과 구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통해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 서로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차별적 요소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창조할 것을 결정하셨다.⁶²⁹⁾

백인 전통의 오순절 성결 교회 목사였던 GOR의 아버지는 종종 아이다(Ada)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다.⁶³⁰⁾ GOR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의 목회를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성은 종족화합을 위한 사랑의 씨앗이 심기는 배경이 되었다. 즉,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GOR의 남다른 인종인식은 그들과 더불어 자신과 동질성을 느끼면서 인종 차별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갖게 하였고, 스스로를 ‘잊혀진 사람들’의 선교사로⁶³¹⁾ 생각하게 하였다.

1947년 그린우드의 오순절 성결목사인 스티브 프링글(Steve Pringle)에 의해 GOR의 첫 집회가 열렸고, 이는 과거 1929년 3,000명 인디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극사건 뒤로 문을 닫았던 베노 홀(Beno Hall)⁶³²⁾이 가정 교회의 시작임을⁶³³⁾ 알렸다. 이 집회의 부흥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인종차별

629) *Abundant Life* Vol. 45, No. 2, March and April 1991, 2-5.

630) Oral Roberts, “With God There Is No Color Line,” *Charisma and Christian Life*, September 1990, 132-35.

631) “Missionary to American Indians,” *Abundant Life* Vol. 13, No. 11, November 1959, 7-9.

632) Steve Gerkin, “Beno Hall: Tulsa’s Den of Terror,” This Land Press, 3 September 2011; <http://thislandpress.com/2011/09/03/beno-hall-tulsas-den-of-terror/>, 2020. 03. 24. 접속.

633) Dan Beller, “Evangelistic Temple Church, Tulsa, Oklahoma,” a paper presented to Church Growth I,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1, Holy Spirit Research Center, Oral

의 공간을 되찾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GOR은 이것을 계기로 소홀하게 여겨진 아프리카계 미국인공동체를 대변하며 그들을 위한 치유집회를 시작하였다. 각 지역에서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GOR의 치유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몰려왔다. 그러나 인종 차별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분은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입장금지를 행하였고, 한정된 공간만이 허락되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를 본 GOR은 다인종을 향한 동정을 느꼈고⁶³⁴⁾ 모든 인종이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저에게는 모든 인디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사랑하고 백인을 미워하거나 모든 백인을 사랑하고 모든 인디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미워하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것을 넣어 주셨습니다. 연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⁶³⁵⁾

이와 함께 GOR의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GOR은 “나는 세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내 사역에 새로운 것을 도입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나는 내 사역에 모든 인종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피부색의 차이를 극복할 것입니다.”⁶³⁶⁾라고 외치며 자신의 치유집회는 모든 교회와 모든 인종에 대하여 평등하다⁶³⁷⁾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GOR은 짐 크로법(Jim Crow laws)⁶³⁸⁾

Roberts University.

634) Oral Roberts, “Highlights of Healing,” *Healing Waters*, January/February 1948, 1, 7.

635) Oral Roberts, “How to Lift Your Level of Living,” *Abundant Life* Vol. 21, No. 7, July 1967, 5.

636) Oral Roberts, *Oral Roberts' Best Sermons and Stories*, Tulsa: Oral Roberts, 1956, 50.

637) “Oral Roberts Answers Your Questions,” *Healing Waters*, December 1956, 11.

638) 분리 평등 정책(Separate but equal)은 법적 원칙으로서, 186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인종 분리 정책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던 미국의 주법이다.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간의 분리를 위해 세워진 원칙으로 학교,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같은 대우 안

이 존재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입장권 발부와 좌석지정을 주장하였고, 이 조건이 성사될 때만이 집회를 열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상황적, 역사적 조건의 경계를 모두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GOR의 집회를 통해 억눌려있던 수많은 인디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인종이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국 지도자들이 인종주의에 맞서면서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적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이를 테면 인디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향한 미국인의 군림적 태도와 이로부터 인종간의 증오가 난무한 상황이 된 것이다. GOR은 여기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죄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치유 기도를 외쳤다. GOR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움, 증오 문제에 대한 해독제로서, 인종화합을 위한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할 때에 일어나는 것임을 확신했다.⁶³⁹⁾ 결국 인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집단 간의 동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동정심은 치유행위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GOR은 집회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짐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⁶⁴⁰⁾ 즉, GOR의 치유 집회는 각 인종의 내적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그에 따른 실천적 방안을 복음으로 선포함으로써 인종편견문제의 해결점이 되었다. GOR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인 치유가 이뤄졌듯이 인종화합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일부로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 GOR은 집회에서만이 아니라 TV방송사

에서 분리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각각의 서비스 질의 차이는 컸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639) Oral Roberts, "Hate, Love and the Christian," *Abundant Life* Vol. 22, No. 3, March 1968, 12.

640) 위의 책, 11.

역에서도 미국 전국민을 향하여 인종화합을 위한 치유와 화해의 자세를 강조했다. GOR은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신의 방송 중 최고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복음가수 잭슨(Mahalia Jackson)⁶⁴¹⁾을 초대하여 첫 시작 프로그램으로 함께 진행하였다.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협력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대중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보여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더 나아가 GOR의 인종화합의 선교사상은 교육을 통하여 그 실현을 발전시켰다. 1965년 GOR은 ORU의 설립을 통해 단순히 기독교 남성과 여성을 교육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대학에서 이루는 포부를 가졌다. 학교의 우선순위를 국제적, 초교파적, 다인종으로 정한 것을 보면, GOR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⁶⁴²⁾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학교 우선순위를 보고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 사랑, 화해의 능력으로 여러 인종, 배경, 교단 출신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선택”하였다. GOR은 다인종의 내면속으로 들어가 동질적 감정을 가졌던 것이다. 당시 교육계의 현실을 보면, 일반 학교 등록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디언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이 학업기회에서 차별받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불공평한 교육 시스템에서 야기된 단점에 대하여 GOR은 ORU를 통하여 다인종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모든 교수진들과 협력하였고, 인종화합에 대한 진취적인 노

641) Oral Roberts, “Yes, We’re Back on Television,” *Abundant Life*, March 1969, 1-3; “Mahalia Jackson, Gospel Singer And a Civil Rights Symbol, Dies,” *The New York Times*, 28 January 1972, 1. 잭슨(Mahalia Jackson)은 이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복음가수 중 한 사람이었으며 가수 및 시민권 운동가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백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분열시키는 증오, 두려움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랐다. 당시 잭슨과 함께 클라라 워드(Clara Ward)와 워드 자매(Ward Sisters), 델라리스(Della Reese), 조니 매티스(Johnny Mathis), 루 롤스(Lou Rawls), 나탈리 콜(Natalie Cole) 등이 출현하였다.

642) Oral Roberts, “God Doesn’t Look at Skin Color,” ORU Chapel Transcript, 26 September 1989;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8/>, 2020. 03. 22. 접속.

력을 가했다.

또한 GOR은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주택을 임대해주지 않아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다인종 재학생의 학교 밖 상황⁶⁴³⁾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학생에게 동등한 접근기회를 주는 등 현실적 해결방안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GOR의 인종화합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의 존재하는 인종차별 상황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의 뿌리가 깊었다⁶⁴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 GOR의 인종적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학생들 간의 차별적 교제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GOR은 인종화합을 위한 선교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든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였다. 복음을 전한 방법의 예로, 1971년 GOR은 인종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도와 준 아프리카인 시몬을 통해 하나님 왕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자리를 알려주는 설교를⁶⁴⁵⁾ 한 것이다. 이에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의 다음과 같은 의견은 인종화합을 위한 선교사상이 인간의 정체성을 치유하여 전인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일환임을 잘 나타낸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자신의 형상을 진실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⁶⁴⁶⁾고 고백하였다.

인종차별이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GOR의 입장은 분명했다.

643) “Going Beyond Reconciliation to Restitution,” *Kingdom Lifeline*, January and February 1987, 9.

644) “Racial Brotherhood Chapel 10-15-1969,” 13. 캠퍼스 채플린 밥 스탬프(Campus Chaplain Bob Stamps)는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학생이 학교의 인종적 분위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포럼을 열었다. 포럼 개최를 통해 GOR의 인종 화합적 대안과 실질적 방안에 대한 관심, 실행에 대한 의견이 교내외적으로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645) “Black Heritage Week 2-17-1971,” Transcript, 17 February 1971, Oral Roberts University;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14/>, 2020. 03. 22. 접속.

646) ORU Chapel Transcript, 18 February 1972, 6;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1/>, 2020. 03. 22. 접속.

인종화합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였던 GOR은 학교 내 다문화 행사를 통해 모든 인종이 연합할 수 있는 장을 열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실시된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문화를 축하하는 ‘Soul Festival’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행사⁶⁴⁷⁾라는 점에서 GOR의 인종화합을 위한 전략은 시대가 지나도 유의미하고 현실상황에서도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1986년 GOR은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학생이 학교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John L. Mears Restitution Fund’ 설립을 발표하였다. 선교를 위한 교육의 의의를 ORU에서 신학, 영성을 담당하는 학장이었던 래리 레아(Larry Le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고 친숙한 새로운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⁶⁴⁸⁾ 이 같은 래리 레아의 발언은 GOR의 인종화합을 위한 학교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회에서 활성화되는 것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ORU는 재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다문화 재학생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교육에 힘썼다. GOR은 다인종 재학생의 전인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세계 제 3국가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곳에 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믿음의 도시의료센터에 있는 의료진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 능력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GOR은 교육받은 모든 재학생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각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질⁶⁴⁹⁾ 최고의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치유사역 초기부터 인종에 구분 없이 치유집회를 개방한 것,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인종에 대한 정의를 외쳤던 것, 리틀록(Little Rock)의 중앙고등학교에서 인종통합을 결정했던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을

647) 과거에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는 전통에 이어 현재 학교 캠퍼스의 글로벌 문화를 강조하는 행사가 되었다.

648) “Going Beyond Reconciliation to Restitution,” *Kingdom Lifeline*, January/February 1987, 10.

649) *Abundant Life* Vol. 35, No. 5, May 1981, 16-17.

지지했을 뿐 아니라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밀집지역에서 그들의 곤경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⁶⁵⁰), TV사역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현을 도전했던 것 등 인종화합을 위한 GOR의 노력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적 선교방법이었다. 국가와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종평등을 주장하며,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손과 발, 입이 되어 주었던 GOR의 인종화합을 향한 교육선교는 시대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다. 그는 ORU의 입학절차부터 모든 환경과 프로그램에서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옹호하였다. 동시에 전 세계 인종과 타국가의 학생을 허용함으로 받아들임으로 포용하는 실천을 보여주었고, 실질적으로 선교적 인종화합을 위한 학교의 다양한 협조와 교육커리큘럼을 통해 1980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록 비율이 4.1%에서 1992년 24.3% 증가하는 가시적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의 도표자료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Oral Roberts University Overall Diversity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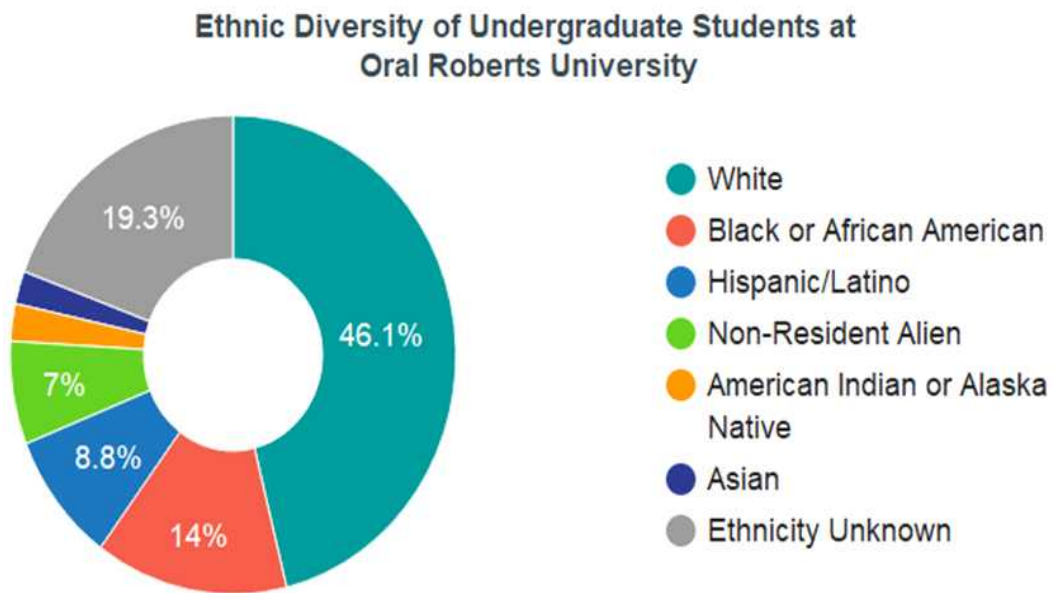
[도표 2] ORU 전체 다양성 점수⁶⁵¹⁾

650) David E. Harrell, *Oral Roberts*, 446.

위의 도표는 현재 ‘College Factual’ 조사를 나타낸 것으로 통계 측정 항목은 인종, 성별, 연령 및 지리적 다양성으로 나눈 집계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학교 중 ORU는 전체 다양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표 3]의 재학생 본 거주지에 대한 조사에서 지리적 다양성과 [도표 4]의 재학생의 인종 다양성 비율은 ORU의 인종화합을 중시한 학교 커리큘럼의 우수한 실행과 결과로 볼 수 있다.



[도표 3] ORU 학생거주지 분포도⁶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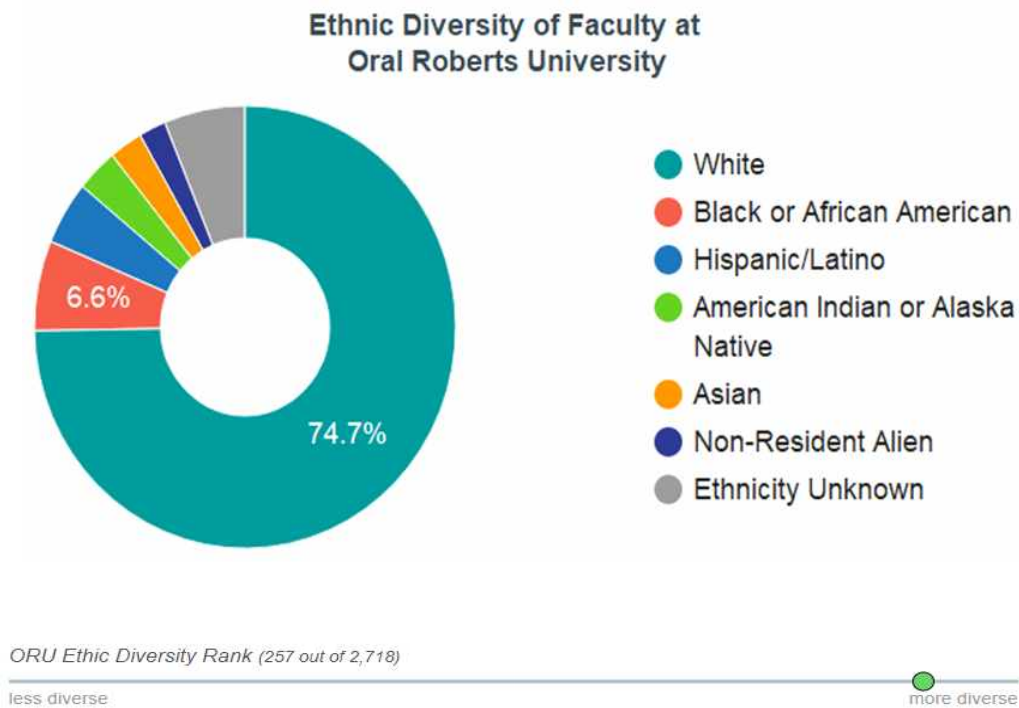
[도표 4] ORU 학생의 인종 다양성⁶⁵³⁾

651) <https://www.collegefactual.com/colleges/oral-roberts-university/student-life/>, 2020.03. 25. 접속.

652) 같은 곳.

653) 같은 곳.

재학생을 향한 학교의 인종화합을 위한 선교교육은 학교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재학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교육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진들의 인종 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주목해 볼 만하다. ORU 교수진의 인종의 다양성은 다음 [도표 5]에 나타나있다.



[도표 5] ORU 교수진의 인종 다양성⁶⁵⁴⁾

위 도표를 보면 ORU 교수진의 인종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ORU 재학생이 다른 인종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학교의 전반적인 화합적 교육 분위기와 다양한 인종의 학생을 위한 공감, 이해관계에 힘쓰고 있는 화합선교의 교육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자는 헌터의 E-1-D 전도와 GOR의 종족화합을 위한 협력 선교사⁶⁵⁴⁾ 같은 곳.

상이 매우 부합하다고 본다. 우선, 맥가브란이 헌터의 E-1-D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든 예는 연구자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지난 300년 동안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많은 상이한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미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폴란드계 미국인, 쿠바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등 다른 인종 출신의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자이크이다. 그들의 자아의식과 집단 의식 또한 이중적이다. 즉 미국적인 동시에 출신 인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차를 구입하고, 그들과 경쟁하는 등 “미국인”처럼 되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전의 문화적 정체 의식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믿으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사회적으로도 주로 “그들의 동족”과 상호 교제를 나눈다. ...전도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그들의 필요, 그들과의 접촉점, 적절한 반응양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 면접 및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⁶⁵⁵⁾

또한 헌터가 말한 E-3은 GOR의 아시아 선교를 향한 방법이다. 다른 문화와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GOR은 집회를 포함한 방송사역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헌터가 E-1-D의 결과로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 연구자는 GOR의 선교 사역을 통한 E-1-D와 E-3의 결과인 다음 내용을 인정한다. 복음전도를 실행하면서 전도자들이 문화적 장벽을 깨고 요구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필요전제조건이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의 모자이크에 속한 개종자가 본인의 동족을 전도하고 회중으로 인도하는 일이 시작되면 맥가브란이 말한 ‘동족 복음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맥가브란이 말한 동족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 GOR은 미국에서 숨겨진 이중적 민족들인 인종적 소수자를 향한 선교를 행했던 것이다. 이런 점은 맥가브란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복음주의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 족속운동⁶⁵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655) Donald McGavran, 『교회성장이해』, 121.

656) Donald McGavran,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 서울: 한국장로교, 1993, 114.

즉, GOR은 맥가브란이 종족운동의 주안점을 개종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문화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안적 선교를⁶⁵⁷⁾ 하였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는 인종차별이요, 그들만의 문화 둘레 안에서만 이뤄지는 복음전파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전인치유를 통한 서로의 이해와 용서, 긍휼로 인한 선교를 한 것이다.

GOR은 인류의 모자이크인 이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일생을 바쳤다. 아프리카계, 인디언계 미국인들의 현실 상황을 이해함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여겼다. 이를 위한 선교로서 GOR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를 행하였다. 이것이 그의 전도방법이자, 선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의 개인구원을 위한 기도로 복음을 통한 전인구원이자 집단구원을 이룬 선교를 행한 것이다. 맥가브란은 동질적 집단 안에서 복음전도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실적인 실천 대안으로서 김종성⁶⁵⁸⁾은 동질성을 내포한 선교를 하기 위해선 대상이 되는 집단의 내면적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존재론적 동질성을 이뤄야 한다고⁶⁵⁹⁾ 하였다. 로스엔젤레스의 템플 뱍티스트(Templ Baptist)교회의 목사 코크린(James Conklin)은 동질성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선교사의 어려움은 인정하였지만, GOR은 자신의 반쪽인 이중적 존재인식을 통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인디언계 미국인들의 내면적 부분과 동질성을 확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종족운동이 한 종족의 부정적인 형태의 모습에 따라 다른 종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⁶⁶⁰⁾ 낳을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진정한 회

657) 정승현, “교회성장학의 태동: 도날드 맥가브란의 인도선교 연구,” 『미션네트워크 4』 2014, 84.

658) 주안대학원대학교 김종성 교수는 IED총회신학교에서 부총장, 예장 통합 선교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로잔중앙위원, PCKMK사역위원의 서기, GMCC 대표, Beraca 연구소 대표이다. 김종성은 선교에 비전을 둔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선교학자이자 도미니카공화국에서 20년 이상 현지사역한 선교사이다.

659) 김종성, “동일화, ‘동질성 원리’ 관점에서 분석한 ‘선교사의 현지인 목회’에 대한 비평적 고찰,” 『복음과 선교』 제46집, 2019, 174.

660) Donald McGavran, *The Satnami Story: A Thrilling Drama of Religious Change*,

심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맥가브란은 개종자들이 능력대결을 통해서라도 공적인 회심이 따라야 한다면 반론하였지만⁶⁶¹⁾ GOR은 치유 집회를 통한 능력대결과 더불어 전인교육의 장을 새로운 전략으로 삼았다. 이런 GOR의 전인교육선교 전략은 맥가브란이 언급한 동질 집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강조⁶⁶²⁾한 것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다시 말해 GOR은 전인치유를 통한 집회에서, 가시적 치유, 개종에서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져 선교해야 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선교에 힘썼다. 이는 역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고 연구하기 위한 후학들을 모이게 함으로 선교의 재생산적 효율성을 확립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모두 GOR이 종족화합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전함으로 비로소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였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선교로 부름 받은 자들을 지지(support)해줌으로 그들이 협력함으로 역사, 인종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계승하기 위함이었다.

Pasadena, California: William Carey Library, 1990, 7.

661) Donald McGavran, *The Clash Between Christianity and Cultures*, 이재완 역, 『기독교와 문화의 충돌』, 서울: CLC, 2007, 72.

662) Donald A. McGavran, Peter Wagner,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0, 73.

V. 나가는 글

A. 요약

본 연구자는 서론에서 21세기 최첨단 과학, 의학의 고도 발달로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 사회 환경의 성장과는 달리 전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적 관계에 있는 교회의 저성장과 관련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교회의 저성장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자는 소외받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관심과 봉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결부지었다. 이와 연속선상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신뢰도가 높은 문제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한 대안의 시급성을 인지하였다. 이와는 달리 지구 반대편인 제 3세계에서는 오순절/은사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연구자는 이러한 교회 상황을 도전(소망)삼아 제시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를 근거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치유가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에 연구자는 20세기 부흥사이자 복음치유사역의 권위자인 GOR을 지목하였다. 그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며 현 시대와 앞으로의 다가올 선교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 2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했던 한국교회와 선교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의 전인에 관심을 가지는 전인치유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전제 작업으로 인간, 전인, 치유의 기독교적, 일반적 이해를 제시하

였다.

우선,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삼분법적 이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전인으로서의 인간이해는 성경에 근거한 GOR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인간을 네페쉬로서의 조건적 통일성에 근거하여 이해함으로써 영, 혼, 육의 존재를 인정하되 이들은 모두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하나의 전체적인 시각으로 전인이라 하며 각 측면에서 부분의 기능적 차이는 인정하되 유기적 연관성을 내포한 통전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인간이해임을 밝혔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측면, 혼(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에서의 전인치유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전인으로서 인간의 한 부분의 질병에 따른 아픔은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밝혔다.

다시 말해, 인간의 육의 질병은 각종 자연, 생식적 요인들과 내적요인, 영적요인을 비롯한 그 외의 요소들과 유기적 연관이 있다. 이 육의 치유는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인간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혼(정신, 마음)의 질병은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기 때문에, 이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물로서 인간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된다. 그리고 영의 존재인 모든 인간은 영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영은 세계관, 건강 체계 등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육과 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영의 치유이다. 특별히 의학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도를 통해 전인치유가 일어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위한 전인치유는 모든 측면에 속해있고 의학적인 치료와 처치를 포함하여 죄인인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 간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치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치유는 현대에 시작된 갑작스런 신비현상이 아니었다. 초대 교회 이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개입하셨고

육의 질병부터 시작하여 영의 질병까지 전인의 치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며 이루어 왔다. 고대 교부시대에서부터 중세시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핍박과 소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인치유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능력에 대한 불신과 냉소적 시각을 전적인 치유로 단번에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인간의 전인치유는 시대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전인치유는 하루아침에 생긴 소설 같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전인치유는 성령의 주체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오순절가운데 전인치유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전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이었던 것이다.

제 3장에서는 20세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사역으로서 복음전도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GOR의 선교사역을 알아보았다. 오순절 성령치유사역의 선구자인 GOR의 전인치유선교가 이뤄지기까지 그의 생애와 가정환경의 영향이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웨일스 백인인 아버지와 체로키 인디언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GOR은 말을 더듬는 어눌증과 폐병 때문에 주변 상황으로부터 겪었던 낮은 자존감의 질병,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겪은 현실에 대한 정체성의 질병인 혼적 질병, 이에 따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로서 영적 질병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전인의 질병을 앓던 어린 시절의 GOR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전인치유를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전인치유를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 내용은 본 장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기반으로 GOR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의미상 세 부분, 의료사역, 방송/전도사역, 문헌/교육사역으로 세분화하여 보았다. GOR은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의학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의학을 연합하여 믿음의 도시

의료센터를 설립하고 당시 최고의 기술인 의학과 강력한 영적 기도로 의료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를 이루었다. 또한 그의 방송사역은 라디오와 TV를 활용하여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사역을 이루었다. 더불어 목회자이자 부흥사로서 GOR의 교회모회를 비롯하여 수 백 만명이 모이는 대형천막복음집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인 치유를 통한 회심, 개종이 일어났다. 그의 전인치유선교는 인종, 지역, 국가를 벗어나 비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마지막으로 GOR의 문헌사역에서는 저술한 다수의 책과 신문, 월간지를 통해 전인치유를 알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GOR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전할 다음세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ORU를 설립하여 전문적 지식을 수양하고 전인건강을 위한 전인교육을 통해 재학생을 세계 선교사로 훈련하는 교육선교사역을 펼쳤다. 연구자는 GOR의 교육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하나는 GOR이 믿음의 도시의학센터와 연계하여 의학적 선교를 지향하였던 것에 주목했고, 다른 하나는 재학생이 전공으로 배울 기술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미약하게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선교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GOR의 교육사역의 일환인 ORU의 전인교육을 토대로 한 커리큘럼과 시스템, 더 나아가 직접 학교를 방문한 연구자의 체험을 보태어 사실성, 전문성, 현실성을 가미함으로 도서에서 접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GOR의 전인치유선교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의 선교전략이었던 저서, 신문, 월간지, 라디오, TV, 대형천막 그리고 병원과 학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문화 혁명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를 개발하여 사용한 GOR의 방법론적 시각은 문화적이고 상황적이었다. 더욱이 GOR의 믿음의 도시 의학센터와 ORU는 훗날 복음을 통한 전인치유를 세계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선교의 재생산을 이루는 탁월한 장소였다. 300번 이상의 대형천막을 이용한 GOR의 전인치유집회는 미국을 비롯하여 아시아까지 GOR 한 명의 개인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복음을 통한 회개, 구원, 회

심, 개종을 포함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다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탁월한 선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제 3장을 통해 GOR의 광범위한 사역 가운데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의료, 방송, 전도, 문헌, 교육사역을 통한 전인치유선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인건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사역을 통해 GOR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를 일으켰고 더 나아가 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실질적인 전인치유선교였음을 알게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3장의 GOR의 전인치유선교 사역을 기반으로 그가 전인치유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배경이 된 신학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GOR의 신학은 그의 어린 시절의 오순절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고, 전인치유체험이 신학범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선교를 이룬 신학적 배경이 성령론적 치유신학, 종말론적 구원신학, 인간론적 희망신학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GOR의 신학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세례, 치유, 재림, 종말을 강조하는 오순절성결교단은 근본적 배경의 전제가 된다. GOR에게 죄인인 인간은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인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번영을 원하시기에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다. GOR에게 구원은 치유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온전한 구원인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 삼위인 성령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력은 방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인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며, 하나님의 개입으로 삶의 번영과 기적을 기대한다는 그의 신학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희망신학이다.

마지막 제 5장은 앞서 정리된 GOR의 연구를 토대로 전인치유선교의 신학적 특성과 의미를 연구하였다. GOR의 전인치유선교는 복음화와 인간화를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사상이 연구되었다. 또한 믿음 선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사상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요소는 ‘치유 접촉점’과 ‘씨앗믿음’이다. GOR의 전인치유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의 기적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능동적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치유 접촉점’이었다. 즉, 이 접촉점으로 인해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며 삶 속에서 ‘접촉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씨앗믿음’은 성경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관계 및 표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심음으로써 지속적인 인내와 끈기로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GOR은 자신의 삶에 씨앗믿음을 적용하며 살았고, GOR의 씨앗믿음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삶의 기대를 주었으며, 이는 곧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GOR의 전인치유선교는 인종차별해결에 따른 종족화합적 협력선교사상을 이루고 있다. 그의 인간론적 희망신학을 토대로 GOR의 종족화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당시 인종 차별이 난무했던 사회 상황을 복음의 치유능력으로 강력하게 화합시켰다. 소외를 비롯하여 과거 아픔과 상처로 인한 민족의 한에 대해 GOR은, 직접 상황 속으로 뛰어 들어가 집회참석의 자유, 거주지의 자유, 교육적 평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통한 치유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GOR의 종족화합적 협력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인디언인 GOR 자신의 정체성을 시작으로 인종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한 공훈과 각 대립적 구도에 있는 상대들을 향한 동정심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곧 치유로 연결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GOR의 수많은 과거 1차 자료를 통해 그의 종족화합을 위한 사역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GOR의 인종화합을 위한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교내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전반적

시각이 즉각 수정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GOR의 인종화합을 위한 학교 계획과 실천 사항들이 ORU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술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GOR의 종족화합을 통한 선교사상은 학교 졸업생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성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그 영향력은 교내의 인디안계,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를 위한 축제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인종을 넘어서 각 글로벌 문화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승(傳承)의 결과로 입증할 수 있다.

현재, ORU는 GOR의 종족화합을 통한 선교사상을 접목하여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인종 재학생이 전인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할 또 다른 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GOR의 종족화합을 통한 선교사상이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선교의 씨앗이 되어 재생산의 비전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GOR의 전인치유선교에서 맥가브란이 의미를 두었던 종족화합의 선교사상이 있음을 밝힘으로 연구가 마무리되었다.

끝으로 연구자는, GOR의 전반적인 사역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였는데 요약에 덧붙이도록 하겠다. 하나는 믿음의 도시의학센터의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믿음과 의학의 연합에 결정적 역할을 한 GOR의 믿음의 도시의학센터 설립은 역사상 비 의료인이 당시 전 인류에게 의학에 의한 시각을 밝혀줌으로 미국 내에서 건강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의 건강을, 비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의 건강을 소개함으로, 그의 선교는 전인건강을 위한 치유의 개념인 전인치유의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당시 은사주의 운동과 더불어 수많은 의료진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많은 의료진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자신들의 의학에 기도, 사랑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과학적인 의학과 믿음의 거리가 현실적으로 좁혀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80만 여명이 거주하던 작은 소도시에서 1000만 여명이 거주하는 곳에 설립될 규모의 병원이 자리 잡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축이었다. 만약 인구분포도를 포함하여 지역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병원 규모가 지지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 GOR의 의학과 믿음의 연합을 주장한 획기적인 전인치유 사상이 더욱 많은 영향력을 전파하며 믿음의 도시의학센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평가해본다. 그러나 병원폐쇄에도 불구하고 ORU 의과 대학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재학생이 치유 전도자가 되어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졸업 후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전인치유선교를 수행했다⁶⁶³)는 점, 인간의 총체적인 의학을 통한 돌봄이 전체 의학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볼 때 GOR의 의료를 통한 선교가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겠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GOR의 부실했던 자녀교육에 관한 점이다. GOR의 장남인 로날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과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한 그의 모습과는 의아할 정도로 부합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전인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인정했던 GOR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은 그의 치부가 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ORU의 세습은 자녀교육과 리더십의 실패라는 평가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재학생의 전인교육을 책임졌던 ORU는 GOR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리차드 로버츠에게 교육적, 경영적 책임이 이어졌다. 그러나 리차드의 개인적 문제로 인하여 ORU의 책임자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는 GOR 뿐만 아니라 리차드의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의 소리까지 만들어냈다. 사고와 자살로 인한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학교의 책임이 리차드에게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을 테지만 과연 ORU의 경영권을 굳이 아들에게 넘겼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은 그의 전반적인 선교사역을 보며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GOR의 수많은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 전인치유선교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전문적인 전인교육을 통해 하나

663) Thomson K. Mathew,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318. 전직 '믿음의 도시' 의사인 존 크라우치(Dr. John Crouch)는 동료와 함께 Image Family Practice Residency 설립하여 '믿음의 도시'가 폐쇄한 후에도 치유, 선교적 차원 가운데 Image Residency Program을 통하여 전인의학을 연구하였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털사 전 지역에서 소외된 인구를 위한 봉사를 실행하였다.

님의 치유 능력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ORU의 재학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은 잠시 놓아두고 GOR의 전인치유선교는 통전적 선교사상과 믿음 선교사상, 종족화합을 통한 선교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잊혀진 한 명의 선교사를 발견하게 해 주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통전적이고 믿음중심적이며 화합적인 전인치유선교는 현시대에도 적합한 효율적인 전략임을 알게 하였다.

B. 제언

연구자의 본 논문 이후로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전략에 관하여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불어 연령별, 성별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전략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나오길 바란다. 왜냐하면 전인치유의 대상을 좀 더 세분화시킴으로 다방면에서 시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선교전략의 연구들이 활성화된다면 성령의 역사로서의 전인치유가 더욱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인치유로 선교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례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에 따른 전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성경적 전인치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따라야 할 것이다. 즉, 한국 내에서 오순절 성령치유와 조용기를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본인들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역이라던가, 역사의 전유물로 여기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전인치유사역을 이단시하는 시선에 반하여 전통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성령의 전인치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에 그 경계가 흐릿할 정도의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곳들이 존재한다. 애매한 경계와 구분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오해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전인치유에 대하여 깊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시도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

해 일생을 바칠 각오에 서 있는 지도자들의 선교현장에 GOR의 전인치유사역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영, 혼, 육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선교의 재생산이 이뤄지길 바란다.

미국 역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 지도자로 빌리 그래함, GOR, 교황 요한 23세이다.⁶⁶⁴⁾ GOR의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력을 넘어서 GOR 사역의 재발견이 일어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심도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GOR의 수많은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GOR의 저서는 약 100권 가까이 있으며 전부는 아닐지라도 수십 권의 저서가 미국에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는 10권이 채 되지 않는다. 연구자가 논문 리서치를 위하여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에 위치한 ORU를 방문하였을 때 구내서점에 많은 도서 가운데 GOR의 저서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모습은 개교 50주년이 지난 현재에도 GOR의 신학과 사상을 여전히 존중하며 중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구내서점에서는 GOR의 저서를 여전히 인쇄함으로 학교 재학생이 그의 저서를 통해 신앙 유지와 믿음 성장을 위한 묵상을 생활화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GOR의 자서전을 비롯하여 설교집, 매일의 묵상집 등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의 사역 및 사상을 실상에 접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치유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한국에서도 GOR 저서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20세기 미국의 치유전도자이자 치유사역의 권위자로서 GOR의 사역과 설교, 복음전과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 역사의 소개가 잘 이루어져 이로부터 성령치유의 역사의 강력한 바람이 한국개신교에 다시한번 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GOR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인치유 연구와 이에 따른 현대적 선교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며 더욱 깊이 있는 학문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본다.

664) 김계봉,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오순절 신학의 본산,” 참고.

현실적인 상황의 제언으로는 2020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로 인한 피해의 언급으로 시작을 열고 싶다. 과거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나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와 같은 바이러스와는 그 전염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되면 폐를 비롯한 기관지에 이상이 생기고 심하게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전염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도 전염되어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는 물론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모든 곳이 2주간 폐쇄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시나 도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장소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폐쇄조치가 시행되었다. 모든 예배는 영상예배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의 위기가 수많은 국민들의 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된 것이다. 한국역사 이래 최초로 환경에 의한 영상예배를 진행하는 목회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우울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헌금의 문제이다. 헌금주머니에 준비해온 헌금을 직접 손으로 내며 신앙의 고백을 했던 전통방식과는 달리 계좌이체라는 전자식 헌금방식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 연령 높은 성도들은 방법을 따라가질 못하고 그 외 성도들의 헌금은 점점 줄다보니 재정적 압박과 손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⁶⁶⁵⁾ 개척교회를 비롯한 중, 소형교회들은 임대료와 교역자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대형교회는 한주, 한주가 지날 때마다 1년 예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GOR은 라디오, TV를 포함한 미디어를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보고 적절하고도 파격적인 시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적합하게 활용하였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만을 진행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시대와 시기, 조건에 맞는 전인치유를 통한 영상예배를 연구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665)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Vol. 52, 2020, 174-5 참고.

더 나아가 영상, 음성, 각종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선교전략의 구체적인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제언은 전인치유를 위한 상담소의 활성화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에 전염된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에 직접적인 위협에 따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에 따르면 삶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신체활동의 금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극도의 불안과 공황,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며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위축, 무기력증, 트라우마, 정신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⁶⁶⁶⁾ 이런 피해상황은 한국 뿐 만 아니라 이란⁶⁶⁷⁾, 중국⁶⁶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겪는 실정이 되었다. 전염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곧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졌다.⁶⁶⁹⁾ 더불어 의료진의 정신적 고통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인 것이 밝혀졌다.⁶⁷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쪽에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⁶⁷¹⁾ 전화로

666) https://science.ytn.co.kr/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20&key=202003041728282868, 2020. 03. 24. 접속;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27>, 2020. 03. 24. 접속. 사만다 브룩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King's College London) 심리학부 교수 연구팀은 감염병 방역 조치로 격리된 사람들의 심리적 증상을 연구한 논문 24건을 분석한 리뷰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인해 격리조치를 겪은 이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분노,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을 보였다. 또한 기분 저하는 73%, 과민 증세는 57%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는 성인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격리된 이들은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기침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6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50600025&code=970209, 2020. 03. 24. 접속.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인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66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0501071039345001>, 2020. 03. 24. 접속. 중국과학원 등이 중국 내 학술논문의 사전출판 시스템(ChinaXiv)에 게재한 ‘고연령 성인의 조현병(정신분열병) 발병 위험을 높인 코로나19’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 내 조현병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월 중 외래환자 1만 3873건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 동기간 대비 조현병(schizophrenia)의 발생이 25%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669)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4655>, 2020. 03. 24. 접속.

670)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4848>, 2020. 03. 24. 접속.

진행되는 상담은 끊이지 않는 내담자의 호소로 인하여 24시간 풀가동을 하여도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전염병으로 정신적 호소를 하는 내담자들의 상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황 종식 후에도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기 때문에 육체적 치료의 종결로 끝이 아닌 정신적 치유가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²⁾ 안타깝게도 국가지원의 상담프로그램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에 와 닿았다.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과 이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장기적인 치료에 대한 현실적 무모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상담을 위해 대구에서 24시간 상담소의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건강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결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 질병과 그에 따른 회복에 대한 끝나지 않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방으로 약을 권하는데 이 약의 기능은 뇌의 균형을 돕는 필요, 필수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밥과 반찬을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 밥과 같은 존재요. 반찬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정신적 회복은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는 받지만 병원 문밖을 나가는 동시에 다시 정신적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달 뒤 방문하면 처음 내원하였을 때보다 더 심한 상태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신적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참 한탄스러운 현실입니다.⁶⁷³⁾

671)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27>, 2020. 03. 24. 접속.

672)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4848>, 2020. 03. 24. 접속.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 연구팀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감염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중 약 53.8%가 만성피로증후군(36.5%)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27%), 우울증(15%), 불면증(15%), 불안증(5.8%) 등 정신적인 문제를 한 가지 이상 겪고 있었다. 그리고 약 1.9%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연구팀은 "감염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종식된 뒤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전염병 감염자들 중 고 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를 받고 바이러스는 제거했지만 이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전염병에 의한 정신적 트라우마의 회복은 사회적 종결상황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지 않으며 장기간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정신질병은 의학적 약품 처방이 동반되지만 좀처럼 회복의 온전한 치유의 가능성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현직 의료진의 설명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통한 정신적 질병의 장기적 성격과 정신질병의 회복이 더딘 현실 의학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그 본질이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선교를 위하여 치유를 통한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GOR의 선교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 문제였던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를 GOR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치유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자국민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과거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 전인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지역은 도시가 통제되고 수 백만의 인구가 통제된 암흑적인 현실에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연구자는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 국민을 향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상담 방안을 실행한다면 선교전략의 상황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는 전염병치료에 의한 도움의 도구로서 상담소의 개념을 넘어 선교 대상인 한 인간의 혼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춤으로 영의 치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인치유선교의 일환으로 상담소운영의 활성화를 제안하고 싶다. 더불어 상담소가 단회적인 상담이 아닌 영, 혼, 육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지속적인

673) <https://www.gnuh.co.kr/gnuh/treat/docInfo.do?rbsIdx=55&code=NP&dno=117006>, 2020. 03. 21. 접속.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와의 인터뷰 발췌. 정신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 청소년우울증, ADHD, 발달장애가 전문진료분야이다.

전인건강을 비롯하여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21세기 시대, 상황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로부터 영혼의 질병을 통한 아픔과 고통에 성령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한 확실한 선교방법이 될 것임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전인치유선교 전략으로서 21세기 4차 산업시대를 포용할 수 있는 오순절적 교육의 전문적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여 그동안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GOR의 어린 시절 경험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환경과 상황이 훗날 GOR의 신학과 선교 사상에 크나큰 영향력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개신교의 성장, 세계의 발전은 다음세대에게 달려있다. 다음세대는 기독교선교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하여 이들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교들 가운데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몇몇의 학교들이 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전인격적 인성을 교육하고 잠재력을 발견, 실현하여 실력을 갖추고자 교육하는 학교를 예로 들고자 한다. 예로 든 학교들은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기준을 두었고, 5차원 전면교육을 실행하고, 현재 초등 교사들이 연수로 교육받는 곳들이다. 세인고등학교와 벨 국제학교는 한 사람이 헤드마스터로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다. 디아글로벌학교⁶⁷⁴), 세인고등학교, 벨 국제학교, 그레이스기독교학교⁶⁷⁵)는 영성, 지성, 인성의 전인격적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기독교 인재를 기르는 것을 공통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을 교육적 토대로 삼는 샘물학교⁶⁷⁶)는 기

674) 세인고등학교(<http://seine.hs.kr/>), 벨 국제학교(<http://bellschool.or.kr/>), 디아글로벌학교(<http://dgacademy.kr/>)는 5차원전면교육(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을 통하여 학생의 창조적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을 목표삼고 있다. 중국, 몽골에 학교를 세워 기독교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675) 그레이스기독교학교(<http://www.beautifulgrace.kr/>)는 21세기형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교육과 전문화되고 집중화된 교육, 세상의 안목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어학연수와 비전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676) <http://www.smcs.or.kr/>, 2020. 03. 24. 접속.

독교 공동체의식을 강조함으로 삶에 접목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음 세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고 비전을 품은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은 한국선교의 패러다임 가운데 그 발전의 기회가 오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대안학교 형식으로 이뤄진 기독교학교, 그 중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의 수는 일반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을 보인다.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는 다음 세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와 교사를 말한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 보통아이들과 조금 다른 아이들,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사랑과 그에 따른 이해가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겠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대안의 대상은. 정신병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대안이에요.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굴해 자신들의 열정을 찾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교가 무척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⁶⁷⁷⁾

현실적으로 영성, 인성, 지성과 더불어 전인적 치유가 함께 교육되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자는 과감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영성, 인성, 지성의 세계적인(Global) 인재를 교육하는 학교의 이념 및 목표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전인치유를 접목한 학교가 설립되어 교육받은 이들이 또 다른 제3국가의 선교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교육이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전인치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한 인간의 신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모들을 향한 선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즉 이제는 문화가 다른 다음세대와 이들의 삶에 방향성과 틀을 제공하는 부모가 우리의 선교대상인 것이다. 학교 재학생의 전인건강을 위한 교육과

677)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재원교수 인터뷰 발췌.

종으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기대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커리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의 역사가 존재하는 학교,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와 연계하여 부모의 전인 건강교육과, 부모의 자리가 아닌 한 인간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아픔과 고통이 성령을 통한 전인치유로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실행되길 바란다. 이에 따르는 결과는 치유를 통한 영혼육의 건강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곧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행동, 표정, 언어 등 삶을 통한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고 한 GOR의 선교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들이 또 다른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선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커리큘럼의 활성화는 치유신학과 선교신학의 올바른 정립이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상, 선교의 대상인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의 전적인 개입과 후원은 21세기 오순절적 전인치유를 통한 선교로서 탁월한 전략임을 밝히며 제안해본다.

21세기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에 있어서 성령을 통한 전인치유는 더 이상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전인 건강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존재로서 당연히 요구되며, 종으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성령을 통하여 전적으로 도우신다. 이제 우리는 전인이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경미하게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 그리될 때 민족치유에서 세상변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치유능력을 통한 전인치유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

다시한번 20세기에 일어났던 강력한 하나님의 전인치유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전인치유에 목말라 있는 선교현장에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권수영 외, 『목회상담이론입문』, 서울: 학지사, 2009.
-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 서울: 목양, 2010.
- 김광채, 『근/현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II』, 서울: 연세대학교, 1999.
- 김남수,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사역』, 서울: 서로사랑, 2006.
- 김신호, 『오순절교회의 역사와 신학: 오순절 운동에서 신사도 운동까지』, 서울: 서로사랑, 2018.
- 김영준, 『전인치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김영한,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 1998.
-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김진, 『정신병인가 귀신들림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 김춘경 공저, 『상담학사전 이상심리편』, 서울: 학지사, 2016.
- 김하태, 『현대인과 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김현오, 『현대인의 인성』, 서울: 홍익재, 1990.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김호환, 『카리스마와 영성』,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6.
- 노영상, 『하나님의 세븐게이트』,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한국교회의 위기와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 류기종, 『기독교 영성』, 서울: 은성, 1997.
- 류대영,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서울: 푸른역사, 2009.
- 박명수, 『근대 복음주의의 주요 흐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박행렬, 『기독인을 위한 전인치유사역』, 서울: 나임, 1999.
-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치유, 1994.
- 배본철, 『성령, 일치, 선교 세계교회사』, 서울: 영성네트워크, 2009.
- 백종국,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발표세미나』,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 성종현, 『신약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91.
- 안도현, 『우울증, 죽음으로 향하는 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안 석, 『정신분석과 기독교상담』, 서울: 인간회극, 2010.
- 양창삼, 『하나님의 사람들』,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8.
- 여의도순복음교회50년사 편찬위원회, 『위대한 소명: 희망목회 50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2008.
- 오성춘, 『신학 영성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옥수영, 『갈등해소를 위한 성장리더십』, 서울: 은혜, 2007.
- 이광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 1993.
- 이명수, 박행렬, 『치유선교론』, 서울: 나임, 1993.
- 이용규, 『한국교회와 신유운동』, 서울: 쿤란, 2006.
- 이우주, 『이우주 의학사전』, 경기: 군자, 2012.
- 이원규,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서울: KMC, 2012.

- _____,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_____,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2009.
- 이재범, 『성령운동의 역사』, 서울: 보이스사, 1993.
-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블루피쉬, 2009.
- 이훈구, 『성경적 치유사역』, 서울: 백함미디어, 2003.
- 장요한, 『기도치유의 정석 I』, 대전: 힐링, 2010.
- 전우섭, 『정신장애와 귀신쫓음』, 서울: 코리아엠마오, 2007.
- 전재규, 『통전적 치유와 건강』, 서울: 보문, 2001.
-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 요단, 1999.
- 정인석,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 서울: 콤파스, 2004.
- 조용기,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서울: 서울말씀사, 2017.
- _____, 『성령론』, 서울: 서울말씀사, 1999.
- _____, 『설교예화1』, 경기: 서울서적, 1996.
- _____, 『신유론』, 서울: 서울말씀사, 2001.
- _____, 『천국의 증인』, 서울: 서울말씀사, 2005.
- 조용기, 김선도,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I』, 서울: 한국교회사학연구원, 2000.
- 조용기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논총집 간행위원회, 『영산 조용기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논총: 성령과 교회』, 서울: 서울말씀사, 1997.
- 주광석, 이준남, 『21세기 전인치유사역』, 서울: 침례신문사, 2001.
- 최귀석, 『그 아픔 내 안에도 있어요』, 서울: CTS, 2014.

- 최홍석, 『인간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5.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한국교회 성장 둔화분석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1998.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30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 한세대학교순복음신학연구소, 『21세기 신학적 패러다임을 위한 조용기 목사의 신학』 군포: 한세대학교, 2003.
- 한춘기, 『한국교회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6.
- 황수관, 『예수 건강 영생의 길』, 서울: 너와나미디어, 2003.
- Korean Association of Mission 제9분과,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2010한국대회논문집: 9권 선교와 연합』, 서울: 미션아카데미, 2011.
- KWMF,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 서울:예영 B&P, 2015.
- Aaronson, N. K, and Beckmann, J., *The quality of life cancer patients*, New York: Raven, 1987.
- Alexander, Estrela, *Black Fire: One Hundred Years of African American Pentecostalism*,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5.
- Anderson, Gerald H., *Toward the 21st Century in Christian Missio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1993.
- Anderson, Allan Heaton, *African Reformation: African Initiated Christianity in the 20th Century*, Trenton, New Jersey: Africa World, 2001.
- _____,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Cambridge University, 2013.
- Aquinas, Thomas, *The Summa Theologica*,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52.
- Armstrong, Ben, *The Electric Church*, Nashville: Thomas Nelson, 1979.
- Bassham, Rodger C., *MISSION THEOLOGY: 1948-1975 Years of Worldwide Creative Tension Ecumenical, Evangelical, and Roman Catholic*, Pasadena,

- California: William Carey Library, 1979.
- Bakken, Kenneth L., Hofeller, Kathleen H., *The Journey Toward Wholeness: a Christ-centered approach to health and healing*, New York: Crossroad, 1988.
- Baxter, J. Sidlow, *Divine Healing of The Body*, Grand Rapids: Zondervan, 1979.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53.
- Blumhofer, Edith L.,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1993.
- Bonhoeffer, Dietrich, *Creation and Fall; temptation: two biblical studies*, New York: MacMillan, 1976.
-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William Carey Library, 1979,
- Brown, Candy Gunther, *Global Pentecostal and Charismatic Healing*, New York: University, 2011.
- Bruner, Frederick Dal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0.
- Burgess, Stanley M., Lewis, Paul W., *A Light to the Nations: Explorations in Ecumenism, Missions, and Pentecostalism*, Eugene, Oregon: Pickwick Pubns, 2017.
- Bultmann, Rudolf,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Scribner, 1951.
- Calvin, John, *I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8.
- Cho, David Yonggi, *How Can I Be Healad?* Seoul: Seoul Logos Co, Inc, 1999.
- Clark, Charles Allen, *Religions of Old Korea*, England: Routledge, 2019.
- Corvin, R. O., *Religiou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in the Founding of Oral Roberts University*, Norman, Oklahoma, 1967.
- Cox, Harvey,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5.

Dicks, Russell Leslie, *Toward Health and Wholeness*, New York: Macmillan, 1960.

Edmunds, Vincent, Scorer, C. Gordon, *Some Thoughts on Faith Healing*, London: The Tyndale, 1956.

Ervin, Howard M, *Healing: sign of the Kingdom*,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2.

_____, *Spirit Baptism: A Biblical Investigat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7.

Eskelin, Neil, *The New ORU Empowered for The 21st Century*, Tulsa: Oral Roberts University, 2018.

Frost, Evelyn, *Christian Healing: a Consideration of the Place of Spiritual Healing in the Church of Today in the Light of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the Ante0Nicene Church*, London: Mowbray, 1954.

Gordon, A. J, *The Ministry of Healing: Miracles of cure in all ages*, Pensilvania: Christia Pub, 1961.

_____, *The Ministry of Healing: Testimonies of Scripture, Church Theology and Christian Missions*, Morrisville: LULU, 2019.

Harrell, David Edwin, *All Things Are Possible: The Healing and Charismatic Revivals in Modern Ame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1975.

_____, *Oral Roberts: An american Life*, Indiana University, 1985.

_____, *White Sects and Black Men in the Recent South*, Nashville, Tennessee: Vanderbilt University, 1971.

Heidel, W.A., *Hippocratic medicine : its spirit and metho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41.

Hill, Stephen, *Healing is Yours*, Harrison: New Leaf, 1965.

- Hirsch, Jame S, *Riot and Remembrance: The Tulsa Race War and Its Legacy*, Boston: Houghton Mifflin, 2002.
- Hollenweger, Walter J, *The Pentecostals*, London: SCM, 2015.
-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The Pentecostal Holiness Church Manual*, Okla: Church, General Headquarters, 1989.
- Kärkkäinen, Veli-Matti, *Pneumatology: The Holy Spirit in Ecumenical, International, and Contextual Perspective*,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2.
- Kelsey, Morton, *Encounter with God: A Theology of Christian Experience*, Minnesota: Bethany Fellowship Inc, 1972.
- _____, *Healing and Christianity: in ancient thought and modern times*,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7*,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5.
- Ma wonsuk, Julie C. Ma, *Mission in the Spirit Towards a Pentecostal/Charismatic Missiology*, Wipf & Stock Publishers, 2015.
- Martin, David,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Oxford, UK: Blackwell, 1993.
- Matthey Jacques, *Come Holy Spirit, Heal and Reconcile: Report of the WCC Conference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Athens, Greece, May 9-16, 2005 Geneva: WCC Publications, 2008.
- McGra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UK: Blackwell, 1994.
- McGavran, Donald A, *Crucial Issues in Missions Tomorrow*, Chicago: Moody, 1972.
- _____, *Eye of the Storm: The Great Debate in Mission*, Waco, Texas: Word, 1972.
- _____,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New York: Friendship, 1975.

- _____, *The Satnami Story: A Thrilling Drama of Religious Change*, California: William Carey Library, 1990.
- _____,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0.
- Menzies, Robert P, *Empowered for witness: the Spirit in Luke-Acts*,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Menzies, William W, *Anointed to Serve: The Story of the Assemblies of God*, Springfield: Gospel Publishing House, 1971.
- Morris, James, *The Preachers*, New York: St. Martin's, 1973.
- Parrish, Mary E. Jones, *Events of the Tulsa Disaster: An Eye-witness Account of the 1921 Tulsa Race Riot*, Tulsa, OK: Out on a Limb Publishing, 1998.
- Quebedeaux, Richard, *The New Charismatics II*,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3.
- Roberts, Oral, 3. *Most Important Steps to Your Better Health and Miracle Living*,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n, 1976.
- _____, *A Daily Guide to Miracles: and Successful Living Through Seed-Faith*, Tulsa: Pinoak Pub, 1974.
- _____, *Better Health and Miracle Living*, United States: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n, Inc, 1976.
- _____, *Christ in every book of the Bible*,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n, 1975.
- _____, *Como Hacer Lo Imposible*,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2003.
- _____, *Christ Near You*, Literary Licensing, LLC, 2011.
- _____, *Daily blessing: A guide to seed-faith living*, G. K. Hall, 1979.
- _____, *Deliverance from fear and from sickness*, Literary Licensing, LLC, 2011.
- _____, *Exactly: How You May Receive Your Healing Through Faith, Including A Heart-To-Heart Talk On Your Salvation*, Kessinger, LLC, 2010.

- _____, *Expect A Miracle: My Life and Ministr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5.
- _____, *Faith Against Life's Storms*, Literary Licensing, LLC, 2011.
- _____, *Flood tide: Opening the windows of heaven*, Harrison House, 1981.
- _____, *God's formula for success and prosperity*, Abundant Life Publication, 1966.
- _____, *Holy Bible: With My Personal Commentary*,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ociation, 1981.
- _____, *How I Learned Jesus Was Not Poor*, Creation House, 1989.
- _____, *How to Live a Successful Christian Life*,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oc. Inc, 1982.
- _____, *How To Find Your Point of Contact With God*, Tulsa, Oklahoma: Oral Roberts, 1966.
- _____, *If You Need Healing Do These Things*, Tulsa, Oklahoma: Oral Roberts Ministries, 2002.
- _____, *Master key to healing*, Roberts, 1959.
- _____, *Miracles Never Cease!*, Christian Life Books, 1992.
- _____, *Miracles of Healing for You Today*, Tulsa, Oklahoma: Oral Roberts Evangelistic Association, 1982.
- _____, *My Story*, Literary Licensing, LLC, 2011.
- _____, *Oral Roberts' Best Sermons and Stories*, Tulsa Oklahoma: American's Healing Magazine, 1956.
- _____, *Oral Roberts Life Story, as Told By Himself*, Country Life, 1955.
- _____, *Seven Divine Aids For Your Health*, Literary Licensing, LLC, 2011.
- _____,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Choose the Imperishable*,

- See the Invisible, Do the Impossible*, Albury, 1996.
- _____,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Value of Speaking in Tongues Today*, Tulsa, Oklahoma: Oral Roberts, 1964.
- _____, *The Call: autobiography*, Garden City: Doubleday& Co, 1972.
- _____, *The Drama of the End Time*, Tulsa, Oklahoma: n. p, 1963.
- _____, *The Healing Stream*, Tulsa, Oklahoma: Oral Roberts, 1959.
- _____, *The Holy Spirit in the Now I*, Tulsa, Oklahoma: Oral Roberts University, 1981.
- _____, *The Miracle of seed-faith*, Fleming H. Revell Company, 1977.
- _____, *The second coming of Jesus: Sooner than you think*, Oral Roberts, 1995.
- _____, *The Ultimate Voice: God's Still Small Voice, the Clearest and Loudest Voice You'll Ever Hear*, Pengold Garrett, Assoc, 2008.
- _____, *This Is Your Abundant Life In Jesus Christ: Bible Studies In Abundant Life*, Literary Licensing, LLC, 2011.
- _____, *Unleashing the Power of Praying in the Spirit*, Tulsa, Oklahoma: Harrison House, 1993.
- _____, *When You See the Invisible, You Can Do the Impossible*, Destiny Image Pubs, 2005.
- Robinson, H. Wheeler, *Hebrew Psychology*, Oxford: Clarendon, 1925.
- Scherer, James A, *Gospel, Church, Kingdom*, Augsburg Pub. House: 1987.
- Scherzer, Carl J, *The Church and Heal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50.
- Sholes, Jerry, *Give me that prime-time religion*, Oklahoma: Book Publishing, 1979.
- Stephen, Hill, *Healing is Yours*, Harrison: New Leaf, 1975.
- _____, *The century of the Holy Spirit: 100 years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 renewal, 1901-2001*,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_____, *The Old Time Power: A History of the Pentecostal Holiness Church*, Franklin Springs, Georgia: Advocate, 1973.
- T. Hoekstra, Harve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Demise of Evangelism*,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s, 1979.
- Thimell, Daniel P, *Charismatic Faith and Ministry*. Acton, MA: Copley Custom Publishing Group, 2001.
- Thompson, Francis, *Health & Holiness; A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Brother Ass, the Body, and His Rider, the Soul*, Read Books, 2008.
- Thomas, Oden, *The Word of Life: Systematic Theology*, Vol. 2, Harper San Francisco, 1992.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7.
- Watson, Robert Irving, *The Great Psychologists: from Aristotle to Freud*, New York: Lippincott, 1963.
- Wilson, Jim, *Healing Through the Power of Christ*, Cambridge: James Clarke, Company, 1946.
- Wimber, John, *A Brief Sketch Of Signs and Wonders through out the Church Age*,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 1984.
- _____, John, Springer, Kevin, *Power Healing*,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 Wink, Walter, *Unmasking the powers: the invisible forces that determine human existence*, Philadelphia: Fortress, 1986.
- Winter, Ralph D, *Frontiers in Mission: Discovering and Surmounting Barriers to the Missio Dei*, Californi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200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IV. 4th ed*, 이근후 외 14 역,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서울: 하나, 1995.

- Anderson, Allan Heato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유근재, 조규형 역, 『땅끝까지: 21세기 오순절 개론』,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2019.
- Augustine, Saint, *THE CITY OF GOD*, 조호연, 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 서울: 은성, 2007.
- Bevans Stephen B. and Schroeder, Roger P, *Constants in context: a theology of Mission for today*, 김영동 역, 『예언자적 대화의 선교』,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7.
- Brad, Long, R., Strickler, Cindy, *Let Jesus heal your hidden wounds: cooperating with the Holy Spirit in healing ministry*, 전현주 역, 『마음의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서울: 세복, 2005.
- Bruner, Frederick Dal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김명용 역, 『성령신학』, 서울: 나눔사, 1989.
- Bucanan, Duncan, *The Counselling of Jesus*, 천정웅 역, 『예수의 상담과 실제』, 서울: 아가페, 1987.
- Bosch, David Jacobus, *Transforming mission : paradigm shifts theology of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CLC, 200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기독교강요 II』,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 Chadwick, Samuel, *The Way to Pentecost*, 한모길 역, 『성령체험』, 서울: 소망사, 1990.
- Clinebell, Howard John, *Well being: a personal plan for exploring and enriching the seven dimensions of life: mind, body, spirit, love, work, play, the earth*, 이종현 오성춘 역, 『전인건강:7가지 풍성한 삶의 차원 개발지침』, 서울: 한국장로교성장상담연구소, 1995.
- Cox, Harvey, *Fire from Heaven*, 유지황 역 『영성, 음악, 여성: 21세기 종교와 성령운동』, 서울: 동연, 1996.
- Crabb, Lawrence J,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2011.
- Dearing, Norma, *The Healing Touch*, 박홍래 역, 『힐링터치』, 서울: 서로사랑,

2003.

Duewel, Wesley, *Revival Fire*, 안보현 역,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현재규 역, 『복음주의조직신학(중): 인간론』, 경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2.

Ervin, Howard M, *Spirit Baptism: A Biblical Investigation*, 순신대신학연구소 역, 『성령세례』, 경기: 순신대학교, 1996.

Ewert, Merrill, *A new agenda for medical missions*, 오상백, 변창욱 역, 『의료선교를 위한 새로운 전략: 의료선교의 과제와 전망』, 서울: 예본, 1999.

Folta, Ruth H, *Spiritual Nursing Care*, 정정숙 역, 『영적간호: 기독의료인, 기독간호사의 역할』, 서울: 현문사, 1995.

Foster Richard J, *Streams of Living Water*, 박조앤 역, 『생수의 강』, 서울: 두란노, 2000.

Fountain, Daniel E, *Health, the Bible and the Church*, 김창용, 강경미 역, 『전인치유의 하나님: 건강, 성경, 공동체』, 서울: 조이선교회, 1999.

Friedlein, Curt,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영계 역, 『서양철학사』, 서울: 서광사, 1990.

Hagin, Kenneth E., *Seven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divine healing*, 김진호 역, 『당신이 알아야 하는 신유에 관한 일곱 가지 원리』, 서울: 믿음의 말씀사, 2000.

Harper, Michael, *The Healing of Jesus*, 고재봉 역, 『예수의 치유』, 서울: 요단, 1988.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3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1996.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Hudnut, Robert K., *Church growth is not the point*, 이광순 역, 『성장제일주의 비판: 교회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서울: 한국장로교, 1996.

- Jones, Martyn Lloyd, *Healing and medicine*, 정득실 역, 『의학과 치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 Kane J. Herbert,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서울: 두란노, 1986.
- Kelsey, Morton T., *Healing and Christianity: A Classic Study*, 배상길 역, 『치유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 Liardon, Roberts, *God's generals: why they succeeded and why some failed*, 박미가 역, 『치유사역의 거장들』, 서울: 은혜, 2012.
- Macnutt, Francis, *Deliverance from evil spirits*, 이선협 역,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서울: 은혜, 2000.
- _____, *Healing*, 변진석 역, 『치유』, 서울: 무실, 1992.
- _____, *The Power to Heal*, 조원길 역, 『치유의 능력』, 서울: 전망사, 1979.
- Marshall, Tom, *Free indeed*, 예수전도단 역, 『자유케 된 자아』, 서울: 예수전도단, 2018.
- Matin, George, *Healing: reflections on the Gospel*, 이재범 역, 『예수님의 치유』, 서울: 보이스사, 1995.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고원용 역, 『교회성장학: 선교학 실천신학』, 서울: 보이스사, 1974.
- _____, *Understanding Church Growth*, 박보경, 최동규, 이대헌 역, 『교회성장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_____, *The Bridges of God: A Study in the Strategy of Missions*,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 서울: 한국장로교, 1993.
- _____, *The Clash Between Christianity and Cultures*, 이재완 역, 『기독교와 문화의 충돌』, 서울: CLC, 2007.
- McMinn, Mark R, Phillips, Timothy R,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 전요섭 외 11인 역, 『영혼 돌봄의 상담학: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위한 탐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06.

- McQuilkin J, Robertson, *Measuring the church growth movement*, 김보원 역, 『교회 성장 평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Menzies, William W, Menzies, Robert P, *Spirit and power: Foundations of pentecostal experience*, 배현성 역, 『오순절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성령과 능력』, 경기: 한세대학교, 2005.
- Miller, Donald E, 테쓰나오, 야마모리, *Global pentecostalism : the new face of Christian social engagement*, 김성건, 정종현 역,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 Moltmann, Jürgen, *Human*, 편집부 역, 『인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Murray, Andrew, *Divine healing*, 장진욱 역, 『하나님의 치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Essentials of Ministry*, 이기춘 역, 『목회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Padilla, C. Rene, *Mision Integral*, 홍인식 역, 『통전적 선교』, 서울: 나눔사, 1994.
- Roberts, Oral, *Expect a miracle*, 전형철 역, 『기적을 기대하라』, 서울: 서울말씀사, 1998.
- Solomon, Charles R, *Spirituotherapy*, 김우생 역, 『영적치유의 핵심』, 서울: 나침반, 2001.
- Stanger, Frank Bateman, *God's Healing Community*, 배상길 역, 『위대한 의사 예수』, 서울: 나단, 1995.
- Taylor, Howard, *Hudson Taylor's Spiritual Secret*, 오진관 역,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Taylor, Hudson, *Men Of Faith: Hudson Taylor*, 김지홍 역, 『허드슨 테일러(중국대륙을 복음으로 정복한 선교사)』,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Thiessen, Henry C, *Lectures in Systematic Theology*, 권혁봉 역, 『조직신학 강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Thurneysen, Eduard,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 에

- 드워드 투르나이젠』,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3.
- _____, *Seelsorge im Vollzug*, 박근원 역, 『목회학실천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7.
- Tournier, Paul, *Bible et m'edecine*, 마경일 역, 『성서와 의학』, 서울: 다산글방, 2004.
- Tucker, Ruth A,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A Biographical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0.
- Turner, John,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치유하는 교회: 영육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회의 비결』, 서울: 광림, 1984.
- Twelftree, Graham H, *Jesus the exorcist: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이성하 역, 『귀신 축출자 예수: 역사적 예수 연구를 위한 기고』, 대전: 대장간, 2013.
- Wagner, C. Peter, *How to have a healing ministry without making your church sick*, 정운교 역, 『(피터 와그너의) 제3의 바람』, 서울: 하늘기획, 1990.
- _____, *Prayer shield*, 명성훈 역, 『방패기도』, 서울: 나눔터, 1995.
- Weber, Otto, *Karl Barth's Kirchliche Dogmatic*, 김광식 역,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대한기독교서회, 1976.
- Weil, Andrew, *Spontaneous Healing*, 김옥분 역, 『자연치유』, 서울: 정신세계사, 2005.
- Wesley, John, *The journal of John Wesley*, 김영운 역, 『존 웨슬리의 일기』, 경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19.
- Williams, J. Rodman, *Renewal Theology: The Church, the kingdom, and Last Things*, 박정렬 역, 『오순절 조직신학 제3권』, 경기: 한세대학교, 1995.
- Wilkinson, John, *The Bible and Healing*, 김태수 역, 『성서와 치유: 치유에 관한 의학적 신학적 주석』,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Wimber, John&Kevin, Springer, *Power healing*, 이재범역, 『능력치유』, 서울: 나단, 2003.

- Weber, Otto,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김광식 역,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서울: 대한기독교, 1976.
- Wolff, Hans Walter,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문희석 역, 『舊約聖書の人間學』, 서울: 분도, 1976.
- Young, Edward J, *Isaiah fifty-three: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윤영탁 역,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주해』,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06.
- 곽선희, “한국 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3. 선교신학적 접근,” 『한국 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제10집, 통권16호, 1998, 95-137.
- 기독교의료위원회(WCC), “건강, 치유, 온전함,” 『기독교사상』 제383호, 1990, 180-197.
- 김계봉, “말씀과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진 오순절 신학의 본산,” 『목회와 신학』 통권75호, 1995, 246-254.
- 김교현, “전인적 건강과 시스템 이론,” 『사회과학연구』 Vol. 10, 1999, 55-68.
- 김광성,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예장통합) 미래선교를 위한 선교구조 개혁과제 연구: 본부중심 구조에서 현장중심 구조로의 전환 모색,” 『복음과 선교』 제40집, 2017, 15-48.
- 김남식, “치유에 대한 신학적 이해,” 『상담과 선교』 Vol. 3, No. 4, 1995, 6-33.
- 김동수, “성령의 은사의 본질,” 『피어선 신학논단』 Vol. 1, No. 1, 2012, 5-25.
- 김성건, “*Korean Protestant Christianity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Neoliberalism and the Pentecostalization of Korean Churches*,” 『Korea Journal』 Vol. 47, No. 4, 2007, 147-146.
- 김성환, “통합적 전인치유모델에 관한 연구-하나님나라와의 연관성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Vol. 21, No. 2, 35-60.
- 김승호, “한국교회성장을 위한 일곱 가지의 원리에 대한 고찰,”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제3권, 2008, 2월호.
- 김은수, “한국교회 해외선교정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8집, 2008, 5-37.

- 김종성, “동일화, ‘동질성 원리’ 관점에서 분석한 ‘선교사의 현지인 목회’에 대한 비평적 고찰,” 『복음과 선교』 제46집, 2019, 159-197.
- 김태수, “기독교적 전인치유의 의미와 방법,” 『복음과 상담』 통권1호, 2003, 169-189.
- 김관호, “오순절주의 전인치유신학의 근거와 전망,” 『오순절신학논단』 Vol. 5, No. 0, 2007, 53-86.
- 김한성, “21세기 지구촌 기독교의 선교적 특징들,” 『선교신학』 Vol. 27, No. 27, 2011, 97-124.
- 김현진, “공동체와 선교: 균형 잡힌 선교 방식의 필요성,” 『한국개혁신학』 Vol. 39, 2013, 8-55.
- _____, “온전한 복음과 온전한 교회 개혁의 방향성,” 『복음과 선교』 Vol. 42, 2018, 13-61.
- _____, “성령세례 논쟁과 그 해결점에 대한 연구,” 『영산신학』 Vol. 33, 2015, 37-70.
- 마원석,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역사: 한국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제6회 국제신학학술세미나, 서울: 국제신학연구원, 1997, 141-155.
- 민소영, “암환자의 영적건강 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Health & Nursing』 Vol. 7, No. 0, 1995, 127-142.
- 박광철,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가,” 『목회와 신학』 제121호, 1999, 76-82.
- 박기백, “폴튜니어의 치유 방법론,” 『폴빛 목회』 제11월호, 1987.
- 박상은, “생명선교의 의학적, 기독교적 고찰,” 『선교와 신학』 제22집, 2008, 83-116.
- 박정진, “치유와 선교: 의료선교의 근본문제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8집, 2005, 143-173.
- 박행렬, “의과학적 관점에서 본 영성과 치유,” 『치유와 선교』 제3호, 2011.
- 박행렬, “전인치유사역의 현장과 실제,” 『목회와 신학』, 제12월호, 1993.

- 박형렬, “총체적 치유목회, 왜 필요한가,” 『상담과 선교』 Vol. 3, No. 4, 1995, 34-57.
- 배덕만, “미국교회 종말론의 다양성과 그 역사적 흐름,” 『오순절신학논단』 Vol. 0, No. 11, 2013, 39-82.
- 아모스 용, “구원, 사회, 그리고 성령: 클리블랜드에서 버밍햄으로, 스프링필드에서 서울로 이르는 오순절적 상황화와 정치신학,” 『영산신학저널』 Vol. 17, 2009, 35-64.
- 안승오, “통전적 선교신학의 태동 배경과 전망,” 『복음과 선교』 제15집, 2011, 165-192.
- 유근재, “21세기 오순절/은사주의운동의 선교학적 접근과 전망: 그들은 세계 기독교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선교신학』 제41집, 2016, 221-262.
- 유영권, “전인치유의 총체적 모델,” 『신학논단』 Vol. 28, 2000, 323-348.
- 이광순, “2. 교회 성장론적 접근,”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0권, 0호, 1998, 59-94.
- _____, “한국 장로교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제8집, 2001, 153-165.
- 이기춘, “기독교 치유와 영성,” 『기독교사상』 제352호, 1988, 76-77.
- 이명수, “전인치유 개념,” 『의료와 선교』 여름호, 1994,
- 이영훈, “오순절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오순절신학논단』 제1호, 1998, 81-127.
- 이재범, “치유목회의 현장론,” 『목회와 신학』 제4월호, 1993,
- 이충웅, “조용기 목사의 능력대결,” 『영산신학저널』 Vol. 38, 2016, 235-272.
- 이한수, “한국교회의 성장정체와 그 윤리적 대안,” 『신학지남』 Vol. 65, No. 3, 1998.
- 이훈구, “예수님의 선교전략으로서의 치유사역,” 『복음과 선교』 Vol. 5, 2005, 365-399.

- 임열수, “Oral Roberts목사의 신유운동과 오순절 운동,” 『오순절신학논단』 Vol. 2, No. 0, 1999, 62-100.
- 전세일, “건강과 질병, 그리고 전인치유,” 『세계평화교수협의회』 Vol. 212, 2000, 70-78.
- _____, “전인치유,” 『21세기 총체적 치유전략 제5차 치유 심포지엄』 제3호, 2002.
- 정낙준, “성경적 상담과 치유상담,” 『성경과 상담』 제15권, 2016, 116-149.
- 정승현, “교회성장학의 태동: 도날드 맥가브란의 인도선교 연구,” 『미션네트워크』 제4집, 2014, 75-104.
- _____, “랄프 윈터(Ralph D. Winter)의 선교학 재탐구,” 『복음과 선교』 제25집, 2014, 195-225.
- 정일웅, “신학적 관점에서 본 원인 분석과 대안: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목회와 신학』 제2월호, 2007, 134.
- 정재식, “한국 종교전통의 연속과 변혁,” 『한국사 시민강좌』 Vol. 26, 2000, 72-94.
- 정태기, “기독교 치유목회의 흐름에 관한 연구,” 『신학연구』 Vol. 38, 1997, 413-449.
- 조홍윤, “한국무속의 세계와 성격,” 『한국의 기층문화』 한길역사강좌 4, 1987.
- 최동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 『활천』 Vol. 734, No. 1, 2015, 20-25.
- _____, “박정희 시대의 교회성장,” 『성결교회와 신학』 Vol. 25, 2011, 61-87.
- _____, “동질집단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 『영산신학저널』 Vol. 50, 2019, 125-153.
- _____, “현장 지향적 신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Vol. 47, 2015, 213-249.
- _____,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Vol.

52, 2020, 171-200.

한국일, “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 『선교와 신학』 Vol. 14, 2004, 109-142.

한춘기, “한국교회의 성장방안 모색-교회교육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Vol. 26, 2011, 129-151.

Anderson, Allan, “Toward a Pentecostal Missiology for the Majority World,”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Vol. 8, No. 1, 2005, 29-47.

Asamoah-Gyadu, J. Kwabena, “Your Miracle is on the Way': Oral Roberts and Mediated Pentecostalism in Africa,”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1, 2018, 5-26.

Bloesch, Donald G., “Evangelicalism,”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Vol. 47, Issue. 1, 2008, 16-20.

Crouch, John R., Jr, M.D, “Healing through Prayer and Medicine: How Oral Roberts’ Healing Vision Was-and Continues to Be-Fulfilled,”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4, No. 2, 2019, 191-203.

Hatcher Timothy, “The Spirit of Immense Struggle: Oral Roberts’ Native American Ance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177-198.

Hoekendijk, Johannes C, “The Call to Evangelism,” *The Conciliar-Evangelical 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64-1978*, 1977, 46-49.

Hungelmann, John, et al, “Spiritual Well-being in older adults; Harmonious interconnectednes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Vol. 24, No. 2, 1985, 147-153.

Hunter, Jim Ernest, “Where My Voice Is Heard Small: The Development of Oral Roberts’ Television Mini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39-257.

_____, "A Gathering of Sects: Revivalistic Pluralism in Tulsa, Oklahoma, 1945-1985,"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6, 294-317.

_____, “Where My Voice Is Heard Small: The Development of Oral Roberts’

- Television Mini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39-258.
- Isgrigg, Daniel D, “Oral Roberts: A Man of the Spirit,”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325-350.
- _____, “Healing for All Race: Oral Roberts’ Legacy of Racial Reconciliation in a Divided Cit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4, No. 2, 2019.
- _____, and Synan Vinson, “An Early Account of Oral Roberts’ Healing Testimon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169-177.
- Ma, Wonsuk, “Theological and Missional Formation in the Context of New Christianity,” *World Council of Churches*, Vol. 66, No. 1, 2014, 53-64.
- _____, “Why Oral Roberts Studies?,”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157-167.
- _____, “The Holy Spirit in Pentecostal Mission: The Shaping of Mission Awareness and Practice,”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Vol. 41, No. 3, 2017, 227-238.
- Mathew, Thomson K, “Oral Roberts’ Theology of Healing: A Journey from Pentecostal “Divine Healing” to Charismatic “Signs and Wonders” to Spirit-empowered “Whole Person Healing,””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303-323.
- _____, “Oral Roberts and David Yonggi Cho: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ir Theologies of Healing,”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간행물』 No. 5, 2008, 285-310.
- Miller, “Pentecostalism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 Azusa Street Revival and Its Legacy*, 2006, 338-339.
- Roberts, Oral, “With God There Is No Color Line,” *Charisma and Christian Life*, September, 1990, 132-135.
- Roetzel, Calvin J,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V, 3.
- Schneider, Kevin, “A History of ORU Healing Team,”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21-238.

- Sundernneier, Theo, “구원과 치유,” 『선교신학』, Vol. 5, No. 2002, 303-321.
- Synan, Vinson, “A Healer in the hous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healing in the pentecostal/charismatic tradition,” *Asian Journal of Pentecostal Studies*, Vol. 3, Issue. 2, Jul 2000, 189-201.
- _____, “Oral Roberts: Son of Pentecostalism, Father of the Charismatic Movement,” *Spiritus: ORU Journal fo Theology*, Vol. 2, No. 1, 2017, 5-21.
- _____, “The Pentecostal Roots of Oral Roberts’ Healing ministr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87-302.
- _____, “영산 조용기 목사의 치유신학의 뿌리,” 『영산신학저널』, Vol. 3, No. 2, 2006, 38-69.
- Thorpe, R. Samuel, “An Overview of The Theology of Oral Roberts,” *Si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59-275.
- Willimon, William, “Oral Roberts Goes Legitimate,” *Theology Today*, Vol, 33, No. 3, 1976, 279-282.
- Wilson, William M, “Oral Roberts and the Spiritual DNA of Oral Roberts University,” *Spiritus: ORU Journal of Theology*, Vol. 3, No. 2, 2018, 277-286.
- Winter, Ralph D, “My Pilgrimage in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9, Issue 2, 1995, 56-60.
- Burgess, Stanley M., Van Der Maas, Eduard M.,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Mich: Zondervan, 2002.
- Burgess Stanley, Gary B. McGee, eds,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Grand Rapids: Zondervan, 1988.
- Netland, Harold A., Charles Edward van Engen,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s*, Michigan: Baker Books, 2000.
- Patte, Daniel,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2010.
- Rodney Hunter,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1990.

『동아 새 국어사전 4판』, 서울: 두산 동아, 2002.

A. Larry Ross Communications, 15 December 2009.

Abundant Life, July 1956.

Abundant Life, Volume. 12, No. 3, March 1958.

Abundant Life, Volume. 13, No. 11, November 1959.

Abundant Life, Volume. 15, No. 3, March 1961.

Abundant Life, Volume. 16, No. 1, January 1962.

Abundant Life, Volume. 17, No. 5, May 1963.

Abundant Life, Volume. 19, No. 4, April 1965.

Abundant Life, Volume. 21, No. 7, July 1967.

Abundant Life, Volume. 22, No. 3, March 1968.

Abundant Life, Volume. 23, No. 2, February 1969.

Abundant Life, Volume. 23, No. 3, March 1969.

Abundant Life, Volume. 28, No. 5, May 1974.

Abundant Life, Volume. 32, No. 6, June 1978.

Abundant Life, Volume. 32, No. 7, July 1978.

Abundant Life, Volume. 32, No. 8, August 1978.

Abundant Life, Volume. 34, No. 7, August 1980.

Abundant Life, Volume. 34, No. 9, October 1980.

Abundant Life, Volume. 35, No. 2, February 1981.

Abundant Life, Volume. 35, No. 4, April 1981.

Abundant Life, Volume. 35, No. 5, May 1981.

Abundant Life, Volume. 35, No. 6, June 1981.

Abundant Life, Volume. 35, No. 7, July 1981.

Abundant Life, Volume. 35, No. 9, September 1981.

Abundant Life, Volume. 35, No. 11, November 1981.

Abundant Life, Volume. 36, No. 2, February 1982.

Abundant Life, Volume. 36, No. 2, Special: February 1982.

Abundant Life, Volume. 36, No. 6, June 1982.

Abundant Life, Volume. 36, No. 7, July 1982.

Abundant Life, Volume. 36, No. 8, August 1982.

Abundant Life, Volume. 36, No. 9, September 1982.

Abundant Life, Volume. 37, No. 3, March 1983.

Abundant Life, Volume. 37, No. 6, June 1983.

Abundant Life, Volume. 37, No. 11, November 1983.

Abundant Life, Volume. 38, No. 2, February 1984.

Abundant Life, Volume. 38, No. 4, April 1984.

Abundant Life, Volume. 38, No. 9, November and December 1984,

Abundant Life, Volume. 39, No. 1, January 1985,

Abundant Life, Volume. 39, No. 2, February and March 1985,

Abundant Life, Volume. 40, No. 2, March and April 1986.

Abundant Life, Volume. 40, No. 3, May and June 1986.

Abundant Life, Volume. 40, No. 6, November and December 1986.

Abundant Life, Volume. 41, No. 3, May and June 1987.

Abundant Life, Volume. 41, No. 6, November and December 1987.

Abundant Life, Volume. 43, No. 1, January and February 1989.

Abundant Life, Volume. 43, No. 4, July and August 1989.

Abundant Life, Volume. 45, No. 2, March and April 1991.

Abundant Life, Volume. 45, No. 3, May and June 1991.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7, No. 12, November 1953.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8, No. 1, December 1953.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8, No. 2, January 1954.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8, No. 3, February 1954.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8, No. 9, August 1954.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8, No. 10, September 1954.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9, No. 1, January 1955.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9, No. 3, March 1955.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9, No. 7, July 1955.

America's Healing Magazine, Volume. 9, No. 9, September 1955.

Christiaity Today, Volume. 54, No. 2, 15 February 2010.

Christianity, 16 July 1982.

Columbia Missourian, 16 December 2009.

Columbus(Ohio) Evening News, 15 July 1957.

Crash, 11 February 1977.

Crusade Transcript, 12 June 1957.

Daily Telegraph, 24 December 2009.

Dallas Morning News, 5 January 1986.

Dallas voice, 30 August 2017.

Faculty Chapel Transcript, 19 August 1974.

Formerly Healing Waters Magazine, November 1953.

Golden Eagles Broadcasting, 24 September 2009.

Healing Waters, November and December 1947.

Healing Waters, January and February 1948.

Healing Waters, August 1948.

Healing Waters, October 1948.

Healing Waters, Volume. 3, No. 1, December 1949.

Healing Waters, Volume. 3, No. 6, May 1950.

Healing Waters, Volume. 5, No. 1, December 1950.

Healing Waters, Volume. 6, No. 9, August 1952.

Healing Waters, Volume. 7, No. 3, February 1953.

Healing Waters, December 1956.

Herald Dispatch, March 1958.

Indianapolis, August 1908.

Indiana University, May 1988.

Kingdom Lifeline, January and February 1987.

KTUL-TV, 15 December 2009.

Larry King Live, 18 December 2009.

Life, 30 May 1951.

Ministry Today, September and October 1977.

Oklahoma Eagle, 25 October 1973.

Oklahoma Association of Broadcasters, 4 June 2010.

Oral Roberts Ministrie, 23 June 2011.

Oral Roberts University Catalog 2000-2002, Volume. 21, No. 1, 2000.

Oral Roberts University Outreach, Winter 1966.

Oral Roberts University, 18 September 2009.

Oral Roberts University, 20 November 2009.

Oral Roberts University, fall 2015.

ORU Chapel Audio Transcript, 26 September 1989.

ORU Witness, July 1964.

Pentecostal Holiness Advocate, 17 July 1947.

Personal Interview with the author, 8 and 9 April 1998.

Review and Expositor 81, Winter 1984.

School of Theology and Missions Oral Roberts University, May 2002.

Speech at the Seminary Transcript, 9 February 1979.

Talk About Equality, 25 October 2010.

The Christian Century, June 29, 1955.

The Christian Century, Volume. 127, No. 1, 12 January 2010.

The Christian Post, 22 December 2009.

The Dallas Morning News, January 1986.

The Guardian. London, 21 December 2009.

The New York Times, 28 January 1972.

The New York Times, 10 June 1982.

The New York Times, 30 January 1983.

The New York Times, 24 December 2009.

The Tulsa Tribune, 5 February 1986.

The Voice of Healing, September 1948.

The Voice of Healing, April 1949.

This Land Press, 3 September 2011.

Time, 4 January 2007.

Tulsa Today, 21 December 2009.

Tulsa World, 4 May 2005.

Tulsa World, 25 March 2008.

Tulsa World, 20 December 2009.

Roberts Oral, "Oral Roberts Meets with Bishops," Holy Spirit Research Center,
Oral Roberts University, Tulsa, OK, 1989, audio cassette.

http://ag.org/top/Beliefs/Statement_of_Fundamental_Truths/sft_full.cfm, 2020. 03. 24.
접속.

<http://bellschool.or.kr/>, 2020.03.21. 접속.

<https://danieldisgrigg.com/2020/04/17/oral-roberts-the-almost-missionary-to-palestine/>,
2020. 05. 14. 접속.

<http://dev.oru.edu/>, 2020. 03. 24. 접속.

<http://dgacademy.kr/>, 2020.03.21. 접속.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4655>, 2020.03.21. 접속.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4848>, 2020.03.21.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50600025&code=970209, 2020. 03. 24. 접속.

<http://oruglobal.com/index.php?lang=ko#about-oru>, 2020. 03. 24. 접속.

<http://seine.hs.kr/>, 2020.03.21. 접속.

<http://thislandpress.com/2011/09/03/beno-hall-tulsas-den-of-terror/>, 2020. 03. 24. 접속.

<http://www.beautifulgrace.kr/>, 2020.03.21. 접속.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2, 2020. 03. 24.
접속.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6>, 2020. 03. 24. 접속.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40>, 2020. 03. 24. 접속.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82>, 2020. 03. 24. 접속.

<http://www.lausanne.org/lausanne-1974/lausanne-covenant.html>, 2020. 03. 24. 접속.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0501071039345001>, 2020. 03.
24. 접속.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3008&cID=10201&pID=1020, 2020.03.21. 접속.

<http://www.oralroberts.com/oralroberts/biography/1930-1939>, 2020. 03. 24. 접속.

<http://www.orumissions.com/reports>, 2020. 03. 24. 접속.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27>, 2020.03.21. 접속.

<http://www.smcs.or.kr/>, 2020.03.21. 접속.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1/>, 2020. 03. 24. 접속.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14/>, 2020. 03. 24. 접속.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8/>, 2020. 03. 24. 접속.

<https://nstore.naver.com/broadcasting/detail.nhn?productNo=1143966>, 2020. 03. 24. 접속.

<https://oru.edu/academics/cotm/graduate/phd-in-theology.php>, 2020. 03. 24. 접속.

<https://oru.edu/academics/explore-programs.php>, 2020. 03. 24. 접속.

<https://oru.edu/chapel/>, 2020. 03. 24. 접속.

<https://oru.edu/faculty/dr-wonsuk-ma.php>, 2020. 03. 25. 접속.

<https://oru.edu/faculty/julie-ma.php>, 2020. 03. 25. 접속.

<https://oru.edu/faculty/daniel-d-isgrigg.php>, 2020. 03. 25. 접속.

<https://oru.libguides.com/library>, 2020. 03. 24. 접속.

<https://oruathletics.com/landing/index>, 2020. 03. 24. 접속.

<https://www.collegefactual.com/colleges/oral-roberts-university/student-life/>, 2020.03. 25. 접속.

<https://www.gnuh.co.kr/gnuh/treat/docInfo.do?rbsIdx=55&code=NP&dno=117006>, 2020. 03. 21.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7055000009>, 2020. 3. 18. 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v9DFt2CV1Ts&feature=share>, 2020. 3. 28. 접속.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281029460581, 2020. 03. 24. 접속.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1/>, 2020. 03. 24. 접속.

Robert Goodwin, “Black Heritage Chapel,” ORU Chapel Transcript, 20 February 1974, 7. <https://digitalshowcase.oru.edu/chapel/4/>, 2020.03.22. 접속.

www.oru.edu/news/oru_news/20130131_4th_president.php, 2020. 03. 24. 접속.

www.tulsaworld.com/specialprojects/news/crimewatch/article.aspx?subjectid=450&articleid=220125_11_A11_CUTLIN615032, 2020. 03. 24. 접속.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0020&key=202003041728282868, 2020.03.21. 접속.

<부록> 인터뷰 전사(Transcription)

정보제공자: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재원

연구자: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원: 별 말씀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연구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오늘의 이 인터뷰가 제 논문의 제언부분에 공개되어도 될지 여쭙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최재원: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연구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요즘 세계가 몸살로 앓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관하여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19가 대구에서 가장 큰 확산이 있는데요, 일반일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최재원: 그럼요 말도 못하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확진자로 인해 대구를 포함한 인근 병원들이 초비상이 걸렸죠. 현재 저희 병원과 마산에 있는 병원까지 응급실이 통제가 되고... 여하튼 도시 전체가 통제가 됐으니까요.

연구자: 네 일반인인 저희들은 사실 뉴스로밖에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직시는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종의 전염병들은 과거에도 존재했었잖아요? 지금 득세하는 코로나19와 차이가 있을까요?

최재원: 음.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었다가 다시 잠잠해지곤 하죠.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정신의학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연구자: 네 교수님,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전염병에 의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최재원: 간단하게 코로나19의 특징으로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상황이 좋아지질 않는 거죠. 공기 중에 확산되어 전염이 되기도 하니까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는 사실 과거 전염병에 의한 정신적 피해의 성질은 비슷합니다. 뉴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전염병에 걸려 확진자가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당연히 크죠. 뭐, 예를 들면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죠. 본인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여기서 우울증, 무기력,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고립이 되니 소외감, 위축 같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공황장애. 각종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연구자: 네 그러면 확진자만 그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확진자들의 가족도 영향이 있을 않을까요?

최재원: 아무래도 그렇죠. 확진자가 직접적인 영향은 가장 많이 받겠지만요. 가족들도 영향이 있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하루 이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바이러스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집에 고립되어 있으니까요.

연구자: 네 그렇군요.

최재원: 근데 이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면, 지금 현재 확진자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이 수명이 꽤 길다는 겁니다.

연구자: 수명이 길다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최재원: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이런 정신적 고통들도 끝이 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정신적 후유증 같은 거죠. 상황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은 그리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모든 일반사람들을 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가 해결이 되고 일상생활이 돌아와도 정신적 아픔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연구자: 아, 어쩌면 상황보다 더 수명이 긴 정신적 고통이네요. 그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최재원: 실상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들의 정신적 상담을 위해 대구에서 24시간 상담소의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건강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결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시민들을 위한 24시간 상담센터가 전화로 돌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또한 전문 의료진들이 아니고요, 그들도 굉장히 많이 지쳐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같고요, 일반적인 정신질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실, 눈에 보이게 상처가 아문다던가 수술로 아픈 곳을 치료한다는가..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질병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은 어떻게 아시죠?? 이 사람의 정신적 질병이 다 치료되는 것어요.

최재원: 그 사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자기관리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진 않지만 이러한 기능을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거죠. 이 정상기능은 상담이나 재활치료라든가 약물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돌아옵니다만 과거 문제가 있었던 감정이나 기억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러한 감정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습니다. 다른 치료들을 같이 하는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단기적인 치료로는 실상 다 해결되기엔 어렵다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기능은 돌아오지만 자체 내에 남아있는 이런 감정들이 지속적인 치료유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몇 달 뒤에 더 악화되어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구자: 그러면 정신적 아픔. 정신적 질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고충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최재원: 글썄요. 음. 인간의 정신적 질병과 그에 따른 회복에 대한 끝나지 않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적 처방으로 약을 권하는데 이 약의 기능은 뇌의 균형을 돕는 필요, 필수적인 조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밥과 반찬을 우리가 먹는다고 할 때 밥과 같은 존재죠. 반찬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의 정신적 회복은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만 병원 문 밖을 나가는 동시에 다시 정신적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고 많은 환자들이 몇 달 뒤 방문하면 처음 내원하였을 때보다 더 심한 상태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신적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참 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연구자: 그러면 병원 문 밖을 나가는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건가요?

최재원: 계속 의사가 함께 있으며 지지하고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연구자: 그러면 교수님 정신적 질병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약과 함께 삶 가운데 지지와 도움이 함께 일어나면 좋겠군요?

최재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연구자: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현현 즉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 이런 부분이 되어 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원: 저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 다르죠. 그러나 의학적인 부분에서 의사로써는 이 처방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종교적이고 신비한. 뜬 구름 잡는 이런 처방을 의학계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니깐요.

연구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른들도 포함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니까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재원: 우선, 아이들에게 이들을 전적으로 돕고 후원하고 끌어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을 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연구자: 부모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건 맞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핵가족화이고 맞벌이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드물어요. 예전이야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해 많은 어른들이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았죠. 생활자체 패턴이...그러나 현재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기 힘들 시대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은 밖에서 보냅니다. 특히 학교죠.

연구자: 그럼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학교가 중요하겠네요?

최재원: 당연하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어른인 바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자: 아, 기존의 가르침을 행하는 대상이상의 자격이네요.

최재원: 마음이 아픈 아이들, 보통아이들과 조금 다른 아이들,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아이들, 뭐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사랑과 그에 따른 이해가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연구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고적인 체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재원: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하면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대안의 대상은, 정신병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대안이에요. 아이들

의 정신적 건강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굴해 자신들의 열정을 찾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교가 무척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연구자: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들 학교차원에서의 교육이 다 영향이 크겠네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최재원: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죠.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연구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다 한계가 있고 또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건강 또한 하나님의 치유에 달려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체험되기 위한 누군가의 통로가 필요함을 또 다시 느낍니다.

최재원: 네, 그럼요. 맞습니다.

연구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재원: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날짜: 2020. 03. 01.

정보제공자: ORU 성령연구센터소장 Daniel D. Isgrigg

연구자: 안녕하세요, 다니엘교수님, 저는 한국에 있는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최희원이라고 합니다. 지도교수님이신
유근재 교수님께서 연구의 아카이브 리서치를 조언해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Daniel Isgrigg: 네 말씀 들었습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연구자: 네 저는 오순절적 선교전략으로서 GOR 목사님의 생애, 사역과 이에
대한 선교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GOR의 자료는
극히 적기 때문에 GOR에 대한 1차 자료와 그 외의 GOR에 관계된
자료들, 또한 특히 GOR의 교육선교전략에 결과물인 학교에 대해 자
세하게 알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Daniel Isgrigg: 네 그렇군요.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GOR에 대한 자료는 매우
방대합니다. 생애, 사역, 설교, 선교, 사업적인 부분 등등.
특별히 필요한 자료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구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교수님과의 대화를 제 논문에 오픈해도
괜찮으실지 양해를 구합니다.

Daniel Isgrigg: 네 좋습니다.

연구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종합대학교 안에 개별적 도서관인 성령리서치센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Daniel Isgrigg: 네 맞아요. 그만큼 이 학교에서 설립자인 GOR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지역을 비롯해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연구자: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GOR은 수많은 집회를 통해 성령의 사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대한 영향이 과거에서부터 컸겠죠?

Daniel Isgrigg: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적으로 보면... GOR은 처음 사역부터 성령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자: 그럼 GOR의 초기치유사역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Daniel Isgrigg: 그렇다기보다는 1950년대에는 GOR의 집회 가운데 설교 등을 보면 오순절신학 가운데 치유, 구원, 성령이 키워드였습니다. 특히 치유가 매우 중심적인 그의 사역을 대표하는 말이었죠.

연구자: 네네 그럼 그 후로는 변화가 있었나요?

Daniel Isgrigg: 50년대 후반이 되면서 GOR의 치유사역은 초반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수치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GOR 뿐 아니라 많은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서 GOR의 치유사역은 성령사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중점적인 키워드가 되면서 GOR의 사역을 다시 재조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유, 구원이 그의 사역에서 사라질 수는 없죠.

연구자: 아, 성령의 존재를 부각시켜 사역한 것은 익히 그의 설교와 책을 통해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GOR은 자신의 신학을 구체화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한 저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Daniel Isgrigg: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OR의 책을 비롯한 설교, 오디오 테잎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GOR의 성령을 인식한 그의 시각은 하워드 이어민의 성령론을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자: 하워드 이어민과 GOR의 특별한 관계성이라도 있나요?

Daniel Isgrigg: 정신적 지주이자, GOR의 성령신학을 구체화한 사람입니다. 하워드 이어민의 제자로써 저는 그의 성령론이 매우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연구자: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GOR이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치유집회 말고도 병원과 학교 사역도 했는데. 병원에 대한 자료는 한국에서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Daniel Isgrigg: 그의 믿음의 도시 병원은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 크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 대한 스토리나 정보들은 GOR의 매거진과 당시 이 지역의 신문들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믿음과 의학의 종합적인 그의 주장이 그 당시 획기적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 아는데요.

Daniel Isgrigg: 의학에 대한 그의 생각과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지역적으로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연구자: 네 그럼 GOR의 병원사역에 대한 주신 자료 외에 비평적인 입장의 자료도 볼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GOR의 사역을 연구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Daniel Isgrigg: 네 그런데 다만 신문, 잡지, 소직지 등은 GOR의 입장에서 쓰여 졌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건축계획, 의도,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자료는 이 신문들 몇 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료들은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저희도 소장되어 스크랩해놓은 이 자료들이 GOR의 1차 자료로써 매우 가치있는 이유이죠.

연구자: 아, 네 감사합니다. 이 학교가 GOR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증거 하는 자료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Daniel Isgrigg: 네 그것은 현재 학교가 선교활동, 훈련에 따른 전인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학교 선교센터에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연구자: 네 그렇군요.

Daniel Isgrigg: 너무 방대한 양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키워드로 이곳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은 학교 교직원, 학생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열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시간 내 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aniel Isgrigg: 별말씀을요. 이곳의 귀중한 자료를 통해 좋은 연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연구자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날짜 : 2019. 08. 19.

정보제공자: ORU 신학부 학장 마원석

연구자: 처음뵙겠습니다. 학장님, 저는 한국 주안대학원대학교 선교학 박사 과정에 있는 최희원이라고 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원석: 그래요, 유근재 교수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연구자: 학장님과의 대화를 제 논문에 실어도 괜찮을까요?

마원석: 네 그럼요, 그러세요.

연구자: GOR를 연구하게 되면서 오순절 역사에, 복음전도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 많이 놀랐었어요

마원석: 그럼요 GOR에 대해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직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GOR을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어요.

연구자: 아, 그런가요?

마원석: 네 그리고 특히 아시아인이 박사 논문으로 GOR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건 우리 학교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연구자: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GOR에 대해 학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원석: GOR에 관한 연구는 박사학위엔 없고 석사는 등재가 안되니까요. GOR 20세기에 빌리그래함이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구가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GOR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쓰여진 전기가 하나 있는데 80년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GOR이 저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 전혀 쓰여져 있지 않았던 거죠. 박사 논문 나온게 어디보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가 있는데 다 여러 사람하고

GOR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여서 학문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죠. 이 분이 미국 교회 역사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나 세계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분의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죠.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과 가까이서 일을 했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시급성이 있죠. 한편으로 끼친 영향이 무척 막강해서 이분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아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겠지요?

마원석: 예를 들어 TV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초반이에요.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GOR이 처음이었어요. 미국 방송국이 당시 전국을 커버하는 방송 네트워크가 3-4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 케이블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TV에서 주일마다 성령의 능력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모험이었고,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가정의 안방을 매 주일마다 파고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을 설교를 했죠.

연구자: 아, 네. TV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마원석: 그 사람의 영향력에 한 분야에 불과한데 이거에 대한 연구도 아주 안되어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에는 흑인과 백인이 갈라 앉았었죠. 예를 들면 버스와 식당에서 자리 구분은 당시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GOR은 백인 아버지와 인디언계의 어머니가 있으니..양쪽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인종이 자유롭게 섞여 있지 않으면 천막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들은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두 가지에 불과해요.

연구자: 네 그의 사역은 실과 놀라웠고 영향력은 지대했어요. GOR의 이와 같은 사역가운데 선교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해주세요

마원석: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거죠. 이 당시 가장 큰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 여명이 모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깐요. 그리고 그것이 TV수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전했죠. 그때 TV 방송을 했던 것들이 지금도 아프리카같은 데서는 계속 방송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시작할 때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고,, GOR이 학교를 세울 때도 원래는 전 세계에 전도자들이 와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세워요.

연구자: 아 세계의 지도자들의 훈련을 위해서요?

마원석: 네, 처음에는 school of evangelism인가 그랬어요. 이를 통해 수 천명이 와서 훈련받고 돌아가고 했어요. 초기에 계속 했어요. 복음전도자들이 와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를 비롯해서 비즈니스 등 모든 거에 다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ORU가 세워진 거죠.

연구자: 아 그렇군요.

마원석: 대학교 각 분야들이 세워진 이유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성령 충만하게 키워내서 그 분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모든 인류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는 분야마다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GOR이 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중요하죠. 여기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이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가 알려지지 않는 곳에 세상 끝이라도 다 가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런 거죠.

연구자: 네 학장님 알겠습니다. 근데 GOR이 쓴 책들이 거의 대중적으로 쓰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원석: 네 맞아요. 자신의 책들..아니면 그의 가족들이 쓴 책들이죠.

연구자: 저는 GOR의 선교사상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마원석: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전 세계에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60-70년대만 해도 선교는 서구교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비 서구에서는 선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GOR은 처음부터 모든 교회가 복음과 선교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분명했죠.

연구자: 네 이 또한 선교적 영향력이 있겠네요.

마원석: 그래서 연구가 필요해요. 말로는 이렇게 영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증명하는 연구가 미흡 한거죠. 오늘날 인터넷이 발전해서 아프리카같은 데를 가면요, 아, 어떤 나라들은 잠비아같은 곳은 주일 공공방송 5개가 있는데 다 주일 메시지를 방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전도에 일으켜 세운 문명에 일기를 쓰게 되는 거죠. 최전도사님은 젊어서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한국에 처음 TV가 나왔을 때 교회에서 마귀가 쓰는 도구라고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순식간에 깨고 아주 실용적으로 주님께서 이를 위해 어떻게 선교를 극대화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 자체가 아주 패러다임이에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실제로 이 사람이 끼친 영향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연구자: 네 그렇군요. 그럼 오랑의 전인치유에 대하여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마원석: 전인치유.. 치유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인구원으로 들어갈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중에 죽음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주심이 함께 온다고 믿었기에 그 범위 안에서 전인치유가 이해가 되겠죠.

연구자: 전인치유에서 전인교육으로 흘러 그에 대한 하나의 전략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마원석: 그렇죠.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미션 스테이트를 보면 알 수 있죠. Whole person 교육이죠. 그러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성령충만하고 능력입은 리더로 준비하도록 하는게 우리 교육 목표이고 또 이것을

전인교육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는 거죠. 우리 커리큘럼을 보면 박사학생들도 운동을 해야 하죠.

연구자: 사실 대학교에서 이런 커리큘럼은 독특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마원석: 독특한 교육이죠 매우요. 학교가 처음 세워져서 에어로빅센터가 생겼는데 그 당시 어떤 대학에도 이런 센터는 없었어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만 있었죠. 그리고 의과 대학이 세웠을 때는, 학교 앞쪽에 크게 세워져 있는 건축물, 치료하는 손 봤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시는 능력 그리고 의학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 이 둘이 한꺼번에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선물이라 보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아주 새로운 생각이죠. 이 생각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팔시받는 미국인디안 피를 가진 사람이 열 일곱 살 때 거의 결핵으로 죽을 뻔 했던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 계시라고 생각을 해야 하죠.

연구자: 네 그렇군요

마원석: 우선, ORU 안에 있는 성령연구센터에는 GOR에 관한 모든 자료가 방대하게 소장되어 있어요. 꼭 많은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죠. 제가 드리는 이 책들은 GOR의 연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마원석: 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책이죠 그리고 GOR에 대한 신학적, 사역적인 부분들을 정리한 유일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연구자: 네 연구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마원석: 또한 ORU의 선교센터는 GOR이 설립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념을 아직까지도 지켜가고 있어요. 학생들이 매년 선교를 나가고 있으니까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지요.

연구자: 네 종합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교훈련을 받고 직접 타 국가에 선교를 간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마원석: 네 이 또한 GOR의 교육이 선교적 의의가 분명했다고 볼 수 있지요.

연구자: 네 그렇군요. 많은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장님.

마원석: 네 좋아요. GOR에 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죠.

연구자: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날짜 : 2019. 08. 19.

Abstract

The thesis propose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as an effective for pastoral ministry and mission to respond to the challenge of the ineffective evangelistic mission as the critical hindrance to Christian ministry and mission. The study argues that the whole-person healing mission and evangelization of Granville Oral Roberts(1918-2009) through revival meetings, broadcasting,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in the twentieth century would serve as a new theological breakthrough. Hi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became a significant ideological foundation of holistic mission, faith mission, mission corporation through racial harmony for pastoral ministry and miss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church, called to gain society's confidence and respond to human needs, has suffered a low approval rate from society. Consequently, most local congregations have experienced a decline in membership. In the face of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church's crisis and the challenges in the ministry frontline, the researcher draws her attention to the early church's foundational message, particularly the power of healing and restoration. For this reason, the historical study of the whole-person healing mission of Granville Oral Roberts, as the recognized revivalist and authoritative healing minister in the twentieth century, would serve as a critical model for contemporary and future ministry and mission.

The history reveals that God's whole-person healing has continued.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researcher undertakes a historical investigation of the various approaches of Oral Robert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God's history of salvation of humanity and society, the study focuses on the whole-person healing of Oral Roberts' vast ministries.

The researcher further divides Oral Roberts's whole-person healing into medical, broadcasting/evangelism, and literature/mission education. This preliminary study lays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hi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as a strategy for his evangelistic commitment. Also, the research identifies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Oral Robert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Pneumatological healing theology, eschatological soteriology, and theology of stereological hope. On the basis of these investigations, the research concludes that hi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consists of three key components: holistic mission, faith mission, and cooperative mission through racial harmony.

His whole-person healing mission began with mass tent cathedral, leading countless people to Christ by meeting the people's real needs through the provision of whole-person wellness. He further challenged his audience to take active steps toward mission, thus, laying the ground for reproductive mission, an effective mission strategy.

Through the rediscovery of a whole-person healing evangelist with profound impact, since the "Great Century of Mission," this research not only reiterates healing as the "forgotten mission strategy" but also takes an initial step toward the restoration of the biblical holistic mission demonstrated by the early church.

The researcher desires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ward holistic salvation through whole-person healing by responding to the contemporary, social, contextual, and individual, ushering in the new era of mission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Protestant Church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Keyword: education mission, tent cathedral, multimedia, faith mission, broadcasting mission, evangelistic mission, Granville Oral Roberts, Oral Roberts university, Pentecostal/Charismatic, medical mission, Whole-Person

healing mission, ethnic harmony, racial harmony, Healing-Team, holistic mission, corporation mission